

미주크리스천신문

The Korean Christian Press

금주의 기도

어두운 밤이 지나면 아침 햇살을 주어 세상을 밝혀주시어 사물을 분별할 수 있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적으로 사상적으로 세상은 어둠으로 가득 차서 일이 안보입니다. 빛 되신 주님 당신의 빛을 우리가 받아서 세상을 밝히는 크리스천들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금주의 말씀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마태복음 5장 16절)



□ L.A. : 601 N. Vermont Ave. #202 L.A., CA 90004 Tel.323-665-0009 Fax.323-665-0056 Email: LA@chpress.net
□ N.Y. : 143-17 Franklin Ave. #206 Flushing, NY 11355 Tel.718-886-4400 Fax.718-886-0074 Email: NY@chpress.net

www.chpress.net

제 1412호 2012년 12월 1일 (토)
사시 : 바른신학 바른교회 바른생활 바른선교

신앙은 공공영역서도 존중받아야

CT, 테네시대 맥클레이 교수가 밝히는 '미국사회에서의 종교 중요성' 보도

오바마 대통령의 재선으로 끝난 '2012 대선 후, 미국 사회는 해묵은 논쟁인 종교와 정치 분리가 또 다시 점화되고 있다. 진보적 성향의 민주당, 오바마 대통령과 행정부는 계속해서 종교를 공공영역(the public square)에서 제거하려고 하기 때문이다. 미국 사회에서 정교분리 논쟁은 대통령이나 공직자가 개인의 종교 성향을 공적으로 표현하는 것을 통해 시작됐지만, 이번 경우에는 행정부나 사법부를 통해 미국 사회 근간인 종교 즉 기독교적 세계관과 가치관을 배제시키려고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다. 과연 미

국사회에서 종교와 정치의 분리는 어떻게 실천돼야 하는 것일까?
크리스티안티티튜데이(CT)는 오바마 대통령 재선 후, 첫 번째 커버스토리로 테네시 대학교 석좌교수인 윌프레드 맥클레이(W McClay)의 기고문(Honoring Faith in the Public Square)을 소개하면서 미국 사회에서 종교는 특별한 영향을 끼쳤고 이를 통해 오늘날의 미국을 이뤄왔으며 계속해서 신앙이 공공영역에서 존중받아야 한다고 제안한다.

한마디로 오바마 행정부나 진보 세력들은 정교분리는 일차적으로 공공 영역으로부터 종교를 제거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는 논리를 펼친다. 즉 정교분리는 '공적 공간의 종교적 중성화'를 의미한다. 하지만 종교가 지닌 특성으로 인해 공립학교와 종교단체에 대한 세금 공제, 공립학교에서의 예배 과목 문제, 특정 종교에 의한 공공자금 활용 등의 문제가 생겨나고 있기에, 종교나 종교 단체에 더 이상의 특혜를 주어서는 안된다고 주장한다.



미국에서 기독교신앙은 건국이념과 함께 중요하다

따라서 미국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종교자유, 국교 불인정, 정교분리 원칙은 결국 '공공영역에서의 종교의 제거'라는 정교분리의 원칙에 따라 진행돼야 한다는 것이다. 결국 대통령이나 공직자가 개인의 종교 성향을 공적으로 표현하는 것을 막는 원리로 '정교분리'를 제시하게 된다.

그러나 진보 세력이 펼치는 정교분리는 정치와 종교가 분리 가능할 뿐만 아니라 국가가 종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듯한 환상을 주고 있지만, 정교분리는 정치와 종교의 벽을 설정해 종교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이지 결코 그 해답이 아니라는 것이 보수 진영의 반대 논리가 된다.

대통령과 같은 고위 공직자들이 종교와 신앙을 찬양하는 잦은 언급

으로 논란을 빚어온 것은 비단 미국에서만 문제가 아니다. 사르코지 전 프랑스 대통령이 또다시 신앙을 찬양하는 전도사로 프랑스 진보 진영의 못매를 맞았기 때문이다.
사르코지 대통령은 2008년 프랑스 유대인단체 대표회의(CRIF)에서 연설을 통해 신앙이 공적인 영역에서도 차지할 위치가 있으며 프랑스 학생들은 홀로코스트(나치의 유대인 대학살) 당시 희생된 1만천 명의 프랑스 유대인들에 대해 공부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르코지 대통령은 교회와 국가를 구분하는 벽을 허무는 것이 자신의 목표는 아니지만 신앙 공동체가 국가로 인해 겪게 되는 현실적인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미 수차례에 걸쳐 신앙을 찬양하고 프랑스의 기독교적 뿌리를 언급해 정치, 사회적 논란을 빚은 바 있는 사르코지 대통령의 당시 발언은 종교와 공적인 영역의 분리를 확실히 고수하고자 하는 세속주의 진영의 반발이라는 파장을 조래했다.

그러나 미국 사회에서의 종교의 중요성은 이미 학계에서도 지지를 받아온 문제이다. 특히 버클리 대학(UC Berkeley)에서 종교사회학을 가르치다가 은퇴한 로버트 벨라(Robert N. Bellah)가 미친 영향은 상당하다. 그는 종교의 사회적 현상, 특히 미국 사회와 종교의 관계를 분석하는 연구를 진행하면서 종교의 사회에 대한 공적 책임에 대한 문제를 제기해왔고, 미국 사회와 종교의 지속적인 개인화 현상에 대한 분석과 비판을 거듭해왔다. 성공회 신자이기도 한 벨라 교수는 이러한 사회의 공공성을 공동선에 입각해 재구축하는 일에 종교와 그 예배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를 여러 글을 통해서 밝히기도 했다.

특히 공동체 예배를 중시하는 성공회 전통의 신자였던 영향이 크다. 그는 "민중사회 안에서 예언자적 종교"(Prophetic Religion in a Democratic Society, 2006)라는 에세이 끝에서 "예배"의 중요성을 다음과 같이 언급한다.

"종교 전통들이 공동의 삶에 가장 깊이 기여할 수 있는 지점은 무엇인지를 논의하면서 내 말을 마치고자 한다. 우리는 종교에 찾아오는 모든 사람들과 나누는 대화에 참여함으로써 좀 더 넓은 시각을 공공 영역에 가져올 필요가 있다."
(3면으로 계속)

제 28회

세계한인목회자 및

평신도지도자세미나

주제: 들으라 이스라엘! "Hear, O Israel"
생명의 말씀을 Word of Life to
자녀들에게(산 6:4-9) Our Next Generation!

▶ 일 시
2013년 4월 9일(화)~4월 18일(목)(9박 10일)

▶ 세미나장소
Ramada Jerusalem Hotel
Ruppin Bridge At Herzl Blvd., Il-91033, Jerusalem, Israel
Phone:972-2-6599999 Fax:972-2-6511824

- **참석대상**
1) 전 세계에 계신 현직 한인 목회자, 선교사, 전도사 부부
2) 평신도 지도자(장로, 권사, 집사)
- **등록비**
세미나와 성지순례 9박 10일 숙식 등록비: **1400불**
- **항공료**: 별도로 개인부담
- **등록마감**: 2013년 2월 28일
- **등록신청**
- Online : 신청: <http://www.chpress.net>
- NY사무실: ny@chpress.net / Fax.718.886.0074
노선희 전도사:shknoh@gmail.com / TEL(718)886-4040
- LA사무실: la@chpress.net / Fax, 323.665.0046
이성자 전도사: TEL.(323)665-0009
- 한국연락처: 설철호목사(schgil@hanmail.net)
(재)에듀넥스트교육개발원
TEL. (02)583-9136~8 / Fax 588-0709



2면 "하나님의 부르심" 예측이 불가능 하다!



7면 한국교회와 WEF, WEA, 로진운동 (I) 노봉린 박사(Th.D. 하와이신학대 교수)



"반대자들을 위해 기도하고 축복하라!"



16면 새 책 소개 배원찬 목사의 공동체 시리즈 3권



창립 28주년 기념 및 공로장로 추대 및 임직예배

2012년 12월 9일 (주일) 오후 4시

장소: La Habra Hills Church
951 N. Idaho St, La Habra, CA 90631

Tel: 562-690-9800

담당목사: 신원규 Rev. Wonkyu Stephen Shin



삼성장로교회 창립 28주년을 맞이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본 교회를 위해 변함없이 섬기시며, 성도들에게 신앙 생활의 본을 보이신 귀한 공로장로 추대와 성도들을 섬김 일꾼들을 임직 및 취임하는 교회 예식에 초청합니다.

공로장로추대: 김수성, 김이집, 배인수, 선계원

장로임직: 김봉식, 전병일

명예장로임직: 김기완, 이봉중, 정진범, 이범수

명예안수집사임직: 정병연

권사임직: 국승희, 김광숙, 김명숙, 김상준, 김영희, 김지완, 이옥자, 유병주, 임미숙, 정순덕, 진상화, 최인숙, 홍영선, 황경숙, 홍린다

명예권사임직: 김순자, 김정혜, 문봉남, 김추자

명예장로취임: 국유일

안수집사임직: 송기성, 안은식, 이성욱, 임지노, 최정근, 허금주



Address: 501 S. Idaho St. La Habra Ca 90631
WWW.SAMSUNGCHURCH.ORG



시론

따뜻한 점심을 즐기는 자의 책임



민경엽 목사 (오렌지 카운티 나침반교회)

지난 추수감사주일에 우리교회는 '느긋하고도 편안한' 터키 파티를 벌였다. 온 교회가 큰 축제의 마당이 되었다. 성도들의 얼굴에는 즐거운 표정들이 역력했다. 서로가 말을 안 해도 무슨 마음속의 사인을 보내는 모습들이었다. 물론 추수감사주일의 터키 파티 자체가 얼마나 즐겁고 풍요롭고 가슴이 따뜻해지는 식사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주일 점심식사는 더욱 큰 의미로 성도들 가슴에 와 닿았다. 아마도 1년 전의 터키 파티 때문일 것이다. 사실 우리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로 개척 초기부터 예배당을 갖고 시작했다. 하지만 예배당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차버렸고 지하의 친교실로 사용하던 공간은 주일학교를 위해 내어주어야 했다. 결국 성도들은 예배당 밖으로 나와서 식사를 해야 했다. 마침 예배당 옆 건물 1층 주차장은 주일에 쉬는 공간이라, 주중에는 우리교회 주차장을 사용하게 하는 조건으로 주일날 우리가 식사를 하는 자리로 빌릴 수 있었다.

고마우신 하나님께서는 10년 넘는 세월 동안 주일날 노상에서, 혹은 황소바람이 넘실대는 교회 옆 건물 1층 주차장에서 식사를 큰 어려움 없이 할 수 있도록 비가 피해 가게 해주셨다. 10년여 동안 점심을 먹으며 비를 맞은 것은 한두 번에 불과하다는 사실은 우리조차 믿기 어려울 정도였다. 그러나 웬걸, 지난 2-3년 동안은 놀랍게도 주중에는 오지 않던 비가 주일날 내렸다. 게다가 비가 오지 않으면 날씨가 추워져서 점심시간마다 얼마나 애를 먹었는지 모른다. 특히 지난해 추수감사주일은 장대비가 쏟아졌다. 모두가 난감해하다가 드디어 낸 아이디어로 분당에서 예배를 마치고 그 자리에서 식사를 하였다! 그런데 올해는 드디어 오랜 염원 끝에 마련한 새 예배당에 입당하여 넉넉한 친교실에서 푸짐한 터키 파티를 즐기니 얼마나 즐거웠겠는가?

그러다가 지난 추수감사절 당일에는 교회의 젊은이들과 함께 우리교회에서 30분쯤 떨어진 곳에 있는 어느 루터란교회의 가난한 자들을 위한 터키 파티에 가게 되었다. 오래 전부터 계획하던 것도 아니고 젊은이들이 찾아서 마련한 봉사 기회에 동참하는 딸의 갑작스런 제안에 무작정 따라나섰던 것이다. 400여명의 가난한 이웃들에게 100명씩은 된장찌개와 정성스런 준비로 마련된 파티에 단순히 음식을 제공하는 봉사의 자리였다. 식사를 받는 분들의 모습들은 추레하였고 처음에는 어색해 보였다. 그러나 봉사자들이 나름의 겸손과 정성으로 식사를 서브하자 긴장은 풀어졌고 커피도 레모네이드도 더 달라는 주문도 쉽게 표현하였고 남김 음식은 싸서 갈 수 있도록 쿠키호일과 비닐백까지 얻어갔다. 우리교회에서 함께 간 젊은이들은 교회에서는 어려보이는 '아이들이었는데 음식점시를 나누며, 레모네이드와 커피 팻을 들고 정성스럽게 섬기는 그네들의 얼굴에서 배어나오는 즐거운 표정과 자부심은 오늘날 교회가 서야 할 자리가 어디인지를 깨닫게 해주었다.

사역을 마치고 받은 유인물에는 크리스마스 때는 1200개의 선물백을 마련하여 이웃에게 나눠줄 것이니 협조해달라는 글이 있었다. 젊은이들은 자기들의 힘으로 200개 정도는 감당하겠다고 즉석에서 사인을 하였다. 뿌듯한 피곤함으로 돌아오면서 우리교회들의 향방이 어디로 정해져야 할지 새삼 깨닫는 시간이 되었다.

교회는 하나님을 위해 존재한다. 그래서 예배에 성공해야 한다. 동시에 교회는 교회 자체를 위해 존재한다. 고로 교인들을 부지런히 가르치고 훈련해야 한다. 아울러 교회는 세상을 위해 존재한다. 그러기에 세상의 필요를 찾고 그들을 섬길 때에 주님은 영광을 받으신다. 교회에서 먹은 따뜻한 점심, 이것은 한 끼의 밥만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누리게 되는 모든 축복을 포함한다. 이 점심을 먹은 자들은 이런 교회의 책임에 소홀할 수 없다. 오늘도 사랑에 눈 뜨는 교회들마다 화이팅!

“하나님의 부르심” ... 예측 불가능

리더십저널, 고든 맥도널드 목사의 “사역을 위한 ‘부르심’ 의 의미와 분별 원리” 소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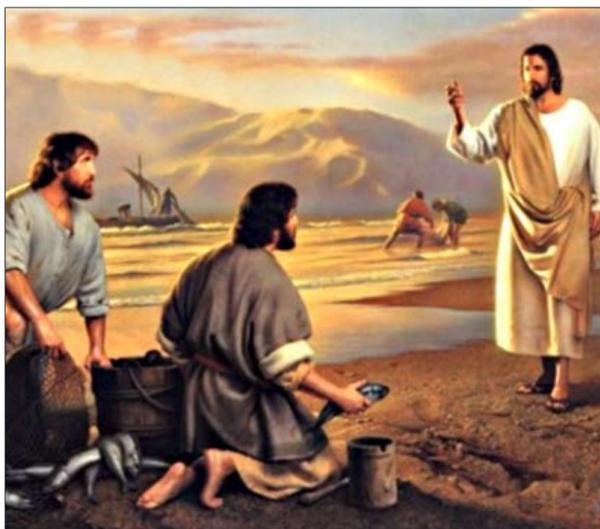
목회자가 헌신을 위해 나아가는 절대적 동기는 소명 의식에서 비롯된다. 목회는 하나님의 소명이다. 기독교 소명은 신앙에 있어서 절대적이다. 모든 기독교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도록 부르심을 받았다. 그중에서도 목회자는 독특한 사명이다. 하나님의 독특한 계시는 하나님의 구속의 말씀을 선포하는 과업을 위해 특별히 헌신하는 독특한 포고자를 요구한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도 택하심과 부르심에 근거해야 함과 같이(사43:1; 롬8:30), 헌

신적인 특수사역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특별히 그리스도의 종으로 소명을 받게 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신적 소명(Divine calling)에 대한 철저한 인식과 분명한 응답으로서의 고백이 뒷받침될 때 비로소 헌신을 가능케 한다. 고든 맥도널드 목사는 목회자들에게 소명의 정확한 의미를 다시 짚어주고 있다(God's Calling Plan: So what exactly is a call to ministry?).

‘부름’이란 성경에서 가장 심오한 개념이다. 성경에는 부름을 받아 동시대인들에게 특별한 영향을 주었던 사람들의 이야기로 넘친다. 성경의 부름에는 몇 가지 공통점이 있다.

첫째, 부름의 주체는 하나님이다. 성부 하나님은 아브라함, 모세, 이삭, 야곱을 ‘부르셨다.’ 예수님은 “함께 있게” 하려고 열두 제자를 ‘부르셨고’ 열방을 제자로 삼으라고 그들을 보내셨다. 성령은 사울과 바나바를 비롯하여 여러 사람을 사도로 ‘부르셨다.’ 성경에는 스스로 자신에게 기쁨을 부른 사람이 아무도 없다.

둘째, 성경적인 부름은 예측이 불가능하다. 기드온은 부름을 받아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



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불렀고 특별한 사람과 주제, 역할로 인도하시는 분명한 순간이 있다. 에이미 카마이클은 인도로 가라는 부름을 받았다. 루터는 칭의에 대해 설교하라는 부름을 받았다. 그레고리우스는 복음을 전하라는 부름을 받았다. 아프리카에서 평생을 보낸 메리 슬레서는 그녀의 영웅 데이비드 리빙스턴의 죽음을 통해 하늘의 음성을 들었다. 리빙스턴은 죽기 전에 이런 글을 남겼다. “아프리카에 관심을 가지십시오. 몇 년이 지나면 나는 지금은 개방된 아프리카에 더 이상 남아 있지 않을 것입니다...아프리카의 문이 다시 닫히게 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시작한 일을 계속하십시오. 당신에게 맡깁니다.” 슬레서의 전기 작가 제임스 버컨이 쓴 글이다. “메리는 자신의 영웅

다양한 방법의 부르심, 확증 갖게 해 부름 받으면 재능도 받아 공동체 성장과 비전 제시, 헌신 유도

나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라고 했다. 왜 다윗이었을까? 왜 레미아였을까? 왜 시몬 베드로였을까? 그리고 많고 많은 사람 중에 왜 하필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 였던 다소의 사울이었을까?

성 프란체스코는 하나님이 왜 그를 부르셨느냐는 질문에 “하나님은 세상에서 가장 약한 자, 가장 작은 자, 가장 낮은 자를 택하여 쓰신다” 라고 답했다.

셋째, 성경적인 부름은 대체로 이해할 수 없고 해낼 수 없을 듯 한 목표가 있다. 노아에게는 배를 만드는 일이, 모세에게는 이집트로부터 민족을 해방하는 일이, 엘리야에게는 악한 왕을 꾸짖는 일이, 바울에게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이 주어졌다. 하지만 부름을 받은 자는 부름을 피할 수 없었고 알 수 없는 용기가 생겼다.

마지막으로, 성경적인 부름은 어느 것 하나 똑같은 게 없다. 모두 다르다. 부름의 상황, 성격, 기대하는 것이 다 각자에게 맞춰져 있다. 하

나님은 늘 유례없는 방법으로 말씀하시고 사람을 인도하셨다.

부름은 아무나 응시할 수 있는 구인광고가 아니었다. 겉으로 자력과 능력이 충분해 보이는 사람들은 낙방하고 이상한 사람들은 불었다. 미리암과 아론은 자신만만하게 “여호와와께서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라고 말했지만 하나님이 부르셨던 사람은 모세밖에 없었다. 하나님이 부르셨던 에스더는 에스더 밖에 없었고 세례 요한도 세례 요한뿐이었다.

이게 바로 부름의 이야기다. ‘부름 받은’ 사람은 누구나 이런 이야기가 있다. 부름의 이야기는 영혼을 사로잡아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걸 깨닫게 하는 ‘속삭이는 음성’과 ‘사건’의 역사다. 부름의 이야기가 극적으로 펼쳐지는 사람들이 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인도하셨다는 확신을 얻는 강렬한 순간, 그 후로 인생은 완전히 변한다.

부름을 받으면 먹고 살 걱정, 장소, 약쟁, 칭찬, 권력 따위를 대수롭지 않게 여긴다. 중요한 것은 순종

이다. 부를 쌓고 제국을 건설하는 일은 다른 사람에게 맡기라. 부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뜻에 순복한다. 몹시 경건한 소리를 하는 게 아닌가 싶지만 수백 년 동안 부름 받은 사람들이 모두 그랬다.

그렇다면 부름을 어떻게 구별하고 확인할 수 있는가? 부름을 확인할 수 있는 몇 가지 방법이 있다. 대체로 특별한 부름은 서너 가지 결과로 알 수 있다.

1. 하늘에서 들리는 음성! 어떻게 들릴까? 방법은 다양하다.

이 죽었다는 기사를 읽고는 어처구니없는 생각을 반복했다. 버리면 버릴수록 지출 수 없는 생각. 리빙스턴처럼 아프리카로 가겠다는 생각...그녀는 일 년 동안 그런 생각을 잊으려고 했지만 잊을 수가 없었다.”

2. 확증 진짜 부름은 ‘보통’(항상이 아니라 ‘보통’이다) 성령의 고유한 역사를 분별할 줄 아는 사람들이 확신해준다. (3면으로 계속)

Advertisement for The Korean Christian Press, including contact information for L.A. and N.Y. offices and a subscription form.

글로벌 인재 발굴과 양성을 실현하는

Midwest University

Founded in 1986

www.midwest.edu

학위과정 Degree Programs

ESL, 학사과정, 석사과정, 박사과정

학위취득방법 Study Options

- 1. On Campus 강의: 유학생을 위한 SEVIS I-20 발행(토폴은 요구하지 않으나 ESL과정 병행)
2. On-Line방법으로 세계 어느 곳에서든지 인터넷 환경이 주어지면 가능
3. 인터넷 환경이 잘 안되는 지역 혹은 어려운 조건에서는 별도 교육방법
3. 지역별 교수의 만남을 통해 개인별 학업지도와 학업상담, 진로상담

Midwest 특징

- 1. 직장을 떠나지 않고 세계 어디에서나 On-Line으로 전 과정의 학점과 학위 취득
2. 미국 체류비자 발급, F-1 Visa 발급(동반 자녀는 공립학교 무료교육)
3. 수시 입학이 가능

* 자세한 문의는 전화(636)327-4645 또는 이메일 usa@midwest.edu로 연락바랍니다.



Midwest University

Main Campus: 851 Parr Road, Wentzville, MO 63385 U.S.A. Tel: (636)327-4645 Fax: (636)327-4715 E-mail: usa@midwest.edu

Washington D.C. Site: 7620 Little River Tnpk # 400, Annandale, VA 22003 Tel: (703)626-8712, (571)730-4750 wdc@midwest.edu

인간은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다!

CT, 테네시대 맥클레이 교수가 밝히는 '미국사회에서의 종교 중요성' 보도

(1면에서 계속)

그러나 신앙인들이 제공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은 예배의 자리이고, 영적 실천의 자리라고 믿는다. 주요 종교들 안에서, 예배는 "사적"인 것이 아니다. 오히려 예배는 공적이다. 국가의 지원을 받는 의미에서가 아니라, 모든 이들에게 열려 있고 모든 이들에게 관심을 갖는다는 의미에서 그렇다. 예배는 우리의 모든 적극적 행동의 원천이요 목표이다. 예배는 우리가 지극히 의식적



분, 즉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바로서야 타인들에게도 다가설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되기에 미국 사회는 '시민종교(civil religion)'라는 미국 사회만의 특성을 반영한 종교적 트렌드를 형성했다.

4. 종교가 주는 사회적 혜택들이다. 현재까지도 미국 사회에서 자선, 의료, 교육 분야에서 종교 기관들의 영향은 엄청나다. 즉 가톨릭만 한정해도 7,500여개의 초등학교들과 5,600개 병원들(미국병원들 중

'공적 공간의 종교적 중성화' 정교분리 불가능 종교는 사회 공공성을 공동선에 입각해 재구축

으로 공극적 실재와 연결되는 것이며, 이 힘든 세상 속에 우리의 사명을 갖고 나가도록 하는 힘을 얻는 곳이다. 무엇보다도 예배는 우리의 비전이 살아 움직이며 거듭날 수 있는 곳이다. 앞서 나는 위트겐 하버 마스가 고전 철학 사상을 두고 화산의 "용핵"(molten core)이라 표현한 이미지를 사용한 적이 있다. 이것은 예배에 대해서 생각할 때도 도움이 된다. 바로 예배 안에서 우리는 우리 신앙의 "용핵"과 만난다. 바로 예배 안에서 우리의 종교적 상상력이 응축되어,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나누는 "거룩한 비전"을 볼 수 있는 것이다. 여러 방면에서 일하고 있는 수많은 활동가들이 있다. 그리고 신앙인들도 때로 이러한 활동가가 돼야 한다. 그러나 어떤 종교 전통에 있든지 간에 그 신앙인들이 자신들을 규정하는 종교적 실천들을 무시한다면, 그 신앙인들은 세상에 대해서 어떤 말을 할 수 있단 말인가? 신앙인들이 만들어낼 수 있는 차이란 무엇인가? 종교 사회학자로서 나는 종교와 영성 전통이 대체로 기

존 질서(status quo)를 옹호하는데 열심이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생각이 다르더라도 침묵하고, 어려운 문제를 제기하지 못하게 했다. 그러나 종교와 영성 공동체들을 통해서 위대한 문제 제기가 터져 나오고 그 사회에서 그저 당연하게 여기는 것들을 넘어서서 궁극적인 실재에 비추어 이 문제들을 검토하는 이들이 나왔다는 것도 알고 있다. 때로 이들은 자신들이 속한 사회를 거부하고 비판했다. 아무래도 신앙인들은 계속해서 이 거부와 비판 사이에서 움직일 필요가 있다. 그러나 신앙인들은 '대낮같이 환하게' 실천한다. 신앙인들은 자신들의 삶의 방식을 통해서 그들의 대안적 현실을 좀 더 넓은 사회에 보여주는 것이다. 이들이 없이는 공공 영역은 급격히 퇴락하고 만다. 신앙인들 어느 누구도 그 혼자서는 답을 낼 수 없다. 하지만 함께하여 서로에게서 배운다면 신앙인들은 우리가 마주친 곤경에서 우리를 꺼내어, 덜 파괴적이며 이 지구 위에 살아가는 모든 이들을 위해 좀 더 건설적인 삶의 형식으로

안내할 수 있을 것이다." 결국 벨라는 예배를 두고 사회와 세상에 대한 새로운 대안적 질서(order)의 표현이며, 예배는 새로운 사람살이의 틀을 만들어내는 핵심적인 실천이며, 공적 영역에서 실천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맥클레이는 벨라의 지적을 더욱 더 구체적으로 확대시킨다: 1. 종교가 바로 미국의 역사적, 헌법적 근간이다. 미국을 세운 건국자들은 기독교적 가치관으로 이를 실천했고, 미국인들의 정서에도 계속해서 반영되고 있다. 건국자들은 자신들의 종교적 신념에 따라 미국을 건국해나갔으며, 종교의 중요성을 계속해서 언급했다. 2. 종교의 다양함을 인정하면서 신대륙으로 건너온 다양한 종교적 특성을 하나로 묶어 미국을 강건하게 만들었다. 따라서 미국 사회에서의 종교적 자유는 단순히 개인적 영역에서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총체적 자유로까지 확대된다. 3. 인간 본성상 종교는 인간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가장 높은

13%, 1,500개의 자선 기관들이 저마다의 커뮤니티에서 묵묵하게 영향을 감당하고 있다. 5. 마지막으로 인간은 종교 없이 살 수가 없다. 하나님은 궁극적 의미를 가져다주시는 분이시다. 우주의 의미와 인간이 살아가야 하는 바른 길을 안내해주는 것이 종교이다. 그래서 종교의 자유를 바로 "인간이 가져야 하는 첫 번째 자유"라고 지적하기도 한다. 결론으로, 미국 전통에서 종교는 공적 영역에서 존중돼져 왔고 계속해서 미국 사회를 지배해오고 있는 근간이자 초석이다. 따라서 진보 세력이 펼치는 '정교분리' 원칙은 전통을 벗어난 그야말로 역족이자 무리수라는 것이 맥클레이 교수의 진단이다. 따라서 맥클레이 교수는 공적 영역에서 종교 즉 기독교의 영향력이 천명되고, 재천명될 수 있도록 크리스천들 각자가 자신들이 처한 커뮤니티에서 소금과 빛 즉 "그리스도의 대사자 편지"로서 살아갈 것을 촉구한다.

투고서

샌디(Sandy) 여인

어질치 못한 여인
샌디라 이름 하는 여인
허리케인 바람 타고
우리 집 지붕 20여 장을
뜯어먹고 도망했다.



조의호 목사
(뉴욕성화교회)

배가 고프가 봐
어느 마을엔
주택 80여채
젓더미만 남겼으니

샌디 여인
불장난꾼인가 봐
품은 두 아이 3모자 목숨이여
눈물도 피도 없는 여인이라
미등부 전역에
1백4명 생목숨 빼앗으니

샌디 여인 그 발
피흘리는데 빠른 가봐
그 여인 정전을 품고 왔으니
빛보다 흑암을 더 즐기나봐

외출입도 전면 금지해
주류대란까지 낳고
뉴욕마라톤 월계관도 삼켰으니
반항아 요나 같은 나를 용납
911쌍둥이빌딩 테러 후처럼
이 몸 살아남은 것도
주께 감사드립니다.

God Bless America
God Bless America

"하나님의 부르심"... 예측 불가능

(2면에서 계속)

성령이 사울과 바나바를 부르시는 걸 들었던 안디옥의 예언자와 교사의 행동이 좋은 예다.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멘토로서 아볼로를 지도했던 일도 마찬가지다. 특별한 예외들이 있다는 걸 알기에 자신 있게 말한다. 그리스도의 몸의 일부가 인정하지 않으면 사역자의 부름은 진짜 부름이 아니다.

3. 재능

사역에 재능이 전혀 없는데도 부름을 받은 사람들에 대한 낭만적인(

그리고 아마도 사실인) 이야기들이 있다. 하지만 그런 경우는 드물다. 부름을 받으면 재능도 받는다. 하나님이 '부름 받은 자에게 주시는 신비로운 능력과 정신. 그런 사람들이 부름에 순종하면 강렬한 사건이 일어나며 그걸 보는 우리는 놀라움을 금치 못한다. "빈민에게 가라." 피할 수 없이 부딪친 한센인들과의 만남에서 성 프란체스코는 친구들을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마음으로 들었다. 교황은 그에게 행정과 건축과 공무를 맡기고 싶었지만 프란체스

코는 거절했다. 그의 본능은 빈민에게 향하고 있었으니까. 그를 중산층 포복상의 방향만 아들로 여겼던 사람들은 그의 변화에 깜짝 놀랐다. 그는 빈민을 어떻게 도와야 할지 직관적으로 알았다.

4. 결과

물론 예외도 있지만 물어야 할 어려운 물음이 있다. 사람들은 부름 받은 사람의 영향을 받는가? 그들은 예수님을 찾는가? 그들은 그리스도를 본받아 성장하는가? 그들은 더 큰 비전을 품고 더 깊이 헌신하는가? 이것은 부름을 평가할 때 확인해야 할 물음이다.

성 패트릭은 꿈을 꾸었다. 꿈속에서 아일랜드 사람들이 말했다. "거룩한 종이며, 우리에게 오라." 패트릭이 받은 부름이었다. 그는 부름에 순종했다. 그는 아일랜드를 구석구석 다니면서 왕과 족장들에게 복음을 전했다. 나라 전체가 그리스도인으로 개종하는 여행의 출발이었다. 토머스 카힐에 의하면 패트릭을 부름의 장기적인 결과는 나라의 변화였고 아일랜드 수도사들은 "문명을 구했다." 솔직하게 인정하자. 사람들은 하나님의 부름에 순종해 순교자가 됐다. 말할 수 없이 어렵고 실망스런 일을 맡아 간신히 살았던 사람들도

있고, 가치 있는 일을 해냈다는 느낌도 없이 세상의 오지에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인생을 마친 사람들도 있다. 물론 눈부신 결과로 빛나는 인생을 살았던 사람들도 있다. 설교로, 글로, 조직으로 비전과 사람을 세워 교회사에 족적을 남긴 인물들. 그들의 공통점은 뭘까. 하나님의 기쁨을 '느꼈다'는 것. 기쁨을 누렸다. 그. 매우 과학적인 개념으로가 아니라 무척 구체적인 체험으로. 그들은 어떻게 난관을 극복했을까. 오직 하늘에서 들리는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음을 강하게 확신했던 순간을 잊지 않음으로.

그들은 달아날 수 없었다. 물러날 수도 없었다. 포기할 수도 없었다. 그들은 대다수가 자신이 왜 부름을 받았는지 설명하지 못할 것이다. 그들은 스스로가 죄인 중에 죄수라고, 부족한 사람이라고, 그리고 간간히 도망치고 싶은 마음이 든다고 가장 먼저 인정할 것이다. 하지만 부름은 모든 걸 이긴다. 그들은 디트리히 분회퍼의 말을 이해한다. "그리스도가 부르실 때는 죽으라고 하시는 것이다." 부름 받은 그들은 야고보의 말대로 큰 책임을 맡은 사람이다. 하나님의 신비로운 은총으로 목회자들은 바로 그런 사람으로 변형되는 것이다.

귀하는 미래사역을 위한 준비가 되셨습니까?

그레이스 신학대학원

본교 소개 및 특전

- 1. 75년의 역사를 가진 독일 경건주의 후예들이 세운 신학교
- 2. 학문과 경건을 겸비한 복음주의 신학교(ATS 정회원)
- 2. 미국에서 유일한 선교학 박사학위 한국어 프로그램(Online 강의, On Field, On Campus 강의로 사역지를 떠나지 않고 학위과정을 마칠 수 있음)
- 4. 특전 (1) SEVIS I-20 Form 발행
(2) FAFSA(연방정부학자금)지원가능(영주권자 이상)
(3) 각종 장학금 제도

모집과정

목회학 박사과정(D.Min.)
선교학 박사과정(D.Miss.)

On Campus Courses

2013봄학기 본교강의안내

Feb 11-15(2월 11 -15일)

DI 851 Biblical Teamwork in Missions(선교에서의 성경적 팀사역)
For D, Miss, Students(필수과목) & D, Min, Students
Dr. Roger Peugh

Feb 18-22 (2월 18-22일)

DI 802 Cultural Anthropology (문화인류학)
For D, Miss, Students(필수과목) & D, Min, Students
Dr. Thomas Stallter

온라인 강의(8주간)

Doctoral Courses (박사과정)

A Session(Jan 7-Mar 1: 1월 7일-3월 1일)

DI 801 Intentional Multicultural Ministry(고안된 다문화 사역)
For D, Miss, Students(필수과목) & D, Min, Students
Dr. Thomas Stallter / Dr. Stephen Park

B Session(Mar 11-May 3: 3월 11일-5월 3일)

PM 803 Gospel Centered Ministry(복음중심사역)
For D, Miss, Students(선택과목) & D, Min, Students
Dr. Matthew Harmon / Dr. Stephen Park

Off-Campus Courses

Bangkok, Thailand

• Jan 7-11 (1월 7- 11일)

DI 831 History of Missions(선교역사)

• Jan 14-18 (1월 14- 18일)

DI822 Cultures of the Old Testament(구약에서의 문화)

New Delhi, India

• Jan 21-25(1월 21 - 25일)

DI852 World Religions(세계종교)

Los Angeles, CA

• March 11-15(3월 11 - 15일)

DI 831 History of Missions(선교역사)

Manila, Philippine

• April 15-19(4월 15 - 19일)

PM 804 Philosophy of Ministry(목회철학)

Korea

• April 22-26(4월 22 - 26일)

DI 852 World Religions (세계종교)

Grace Theological Seminary

200 Seminary Dr, Winona Lake, IN 46590 / http://www.grace.edu

총장: Dr. Ronald Manahan

한국학부 디렉터: Dr. Stephen S. Park(박사경박사)

대표전화: 574-372-5100 (Ext.: 6335), 574-377-2619(한국어)

E-mail: parkrc@grace.edu, gtskoreanstudies@gmail.com

목회칼럼



손원배 목사 | (임마누엘장로교회)

새로 시작하는 "영혼 구원"

'나비 효과'(butterfly effect)는 초기 값의 미세한 차이에 의해 결과 엄청나게 달라지는 현상을 말합니다. 이 이론은 미국의 기상

학자 에드워드 로렌츠(E. Lorenz)가 1972년 미국 과학부총협회에서 "브라질에서 일어난 나비 한 마리의 날갯짓이 텍사스에 토네이도를 몰고 올 수도 있다"는 강연을 하면서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예를 든다면, 지난번에 미국 동부 전체를 휩쓸며 엄청난 피해를 입힌 허리케인 샌디(Sandy)도 초기에는 열대성 바다 캐리비안(Caribbean) 해에서 발생한 아주 작은 공기의 변화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은 '초기'라는 시간입니다. 초기의 변화가 일단 탄력을 받아 세력이 거대화되면, 중간에나 말기에 이 변화의 흐름을 제압하는 것은 무모한 일이 되어버립니다. 중간

이나 말기의 큰 힘보다 오히려 초기의 아주 작은 힘이 훨씬 더 큰 영향력을 지니며, 초기의 작은 변화가 상상을 뛰어넘는 엄청난 결과를 초래합니다.

에덴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지은 불순종의 죄는 오늘날 사람들이 범하는 탐욕, 정욕, 교만의 죄와 비교하면 아주 작아 보이지만, 인류 역사 최초기에 지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들의 범하는 거대한 태풍이 되어 온 세상을 엄청난 파괴력으로 초토화시키며 인류 역사를 운통 죄의 역사, 고통과 죽음의 역사로 몰들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유대 땅 베들레헬에 한 아이가 태어나는 작은 사건을 통하여 또 하나의 역사의 '초기'를 시

작하였습니다. 막강한 로마제국과 헤롯의 압정으로 역사에 흔적도 없이 사라질 것 같았던 성육신의 사건은 그리스도의 공생애,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성령 강림과 교회의 태동이라는 과정을 거쳐서 또 하나의 거대한 태풍이 되어 인류 2천년의 역사를 운통 흔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세상은 두 개의 거대한 폭풍이 부딪히는 현상이 되었으며, 인류 역사는 두 개의 응달을 받기 위해서 우리에게 다른 방법이 있어서는 안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출연히 주의 사자가 옥에 들어왔다고 접니다. 갑갑한 기도에 천사가 왔습니다. 어쩌면 그것이 비전일 수도 있고 꿈일 수도 있습니다.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기도의 능력을 믿는 자들이 기도할 때, 방황하던 자, 어둠에 놓였던 자가 광채와 빛을 보게 됩니다. 잠자던 자가 깨어나게 됩니다. 베드로는 기도했다는 말씀은 없습니다. 그러나

슬러 올라가보면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아주 작은 변화에서 시작되었을 것입니다.

2013년을 맞이하며 미국에 있는 모든 이민 교회들이 '영혼 구원'이라는 생명의 역사를 다시 한번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한 영혼을 품고 기도를 시작하는 것은 나비 한 마리의 날갯짓처럼 작은 변화일 것입니다. 그렇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거대한 폭풍이 되어 세상을 변화시키고 무수한 영혼들을 구원하는 역사로 확장되어 갈 것입니다. 성경께서 그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가 하나 되어 순종하기만 한다면, 이 일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푸/른/초/장

박은일 목사 (시애틀평강장로교회)



리를 지날 때 천사가 떠났다고 하였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정신이 나고 참으로 주께서 천사를 보내어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분이 하나님 이셨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에 갔더니 아직도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응답 받았는데도, 그들 앞에 섰는데도 교회 성도들은 계속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누가 봐도 아무 소망이 없었습니다. 도와 줄 사람이 없었습니다. 어떻게 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베드로는 죽은 자나 다름없었습니다. 성도들은 "베드로

가 해결할 수가 있을까 내 방법을 먼저 찾습니다. 이렇게 해서 안되면 다른 방법을 찾습니다. 기도의 응답을 받기 위해서 우리에게 다른 방법이 있어서는 안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출연히 주의 사자가 옥에 들어왔다고 접니다. 갑갑한 기도에 천사가 왔습니다. 어쩌면 그것이 비전일 수도 있고 꿈일 수도 있습니다.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기도의 능력을 믿는 자들이 기도할 때, 방황하던 자, 어둠에 놓였던 자가 광채와 빛을 보게 됩니다. 잠자던 자가 깨어나게 됩니다. 베드로는 기도했다는 말씀은 없습니다. 그러나

에 사용하는 사람만이 그 마지막 문을 열 수 있습니다. 이런 기도를 통하여 님의 영광을 극복하고 온전하고 놀라운 승리를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나는 몇 번이고 무릎 꿇고 기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것 이외에 어떻게든 할 수 없다는 것을 확인했기 때문입니다. 나 자신의 지혜로 그러한 사태에 대처하는데 불충분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링컨의 고백입니다.

빌리 그레함 목사에게 기자가 "목사님 만일 목회를 처음부터 다시 할 수 있다면 무엇을 바꾸겠습니까?" 그럴 때 대답하기를 "난 세 가지 바꾸고 싶습니다. 첫째, 기도를 더 하고 둘째, 기도를 더 하고 셋째, 기도를 더 많이 하겠습니다"라고 하였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지질 줄 모르는 힘과 거부될 수 없는 인내와 꺾이지 않는 용기로 강하게 구해야 한다." 이 엘 바운즈의 말이다.

힘찬 시대를 거스려 역사를 만드는 방법은 오직 그리스도의 능력을 의지하여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역사를 만든다

사도행전 12:1-11

존 번연의 '천로역정'을 보면 주인공 크리스천이 '절망 거인'에 의해 '의심의 성'에 갇히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크리스천이 그 성에서 나올 수 있는 방법은 '약속의 열쇠'를 사용하는 것이었습니다.

현재 많은 그리스도인이 여러 가지 일을 추진하다가 길이 막혀서 더 이상 전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개인이나 가정이나 교회나 모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발목을 잡고 있는 족쇄를 끊고 감옥을 무너뜨릴 수 있는 방법은 교회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합니다. 교회는 현재에 안주하려는 마음을 깨뜨리기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교회는 세상에 대한 관심을 버리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의 무한한 가능성에 가슴 설레게 하는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전능한 구원의 능력을 가지고 높은 곳에서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하는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불가능을 비웃으며 "하나님이 틀림없이 이루신다!"라고 외칠 수 있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만물이 하나님의 발아래 있다는 사실을 철저히 인정하는 기도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갈망하는 기도가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사탄은 우리를 쓰러뜨리기 위해

서 얼마나 노력을 하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도대체 어떻게 해야 우리 주변을 변화시키고 가정을 변화시키고 자녀를 변화시키고 지역을 변화시킬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사용하는 것이었습니다.

현재 많은 그리스도인이 여러 가지 일을 추진하다가 길이 막혀서 더 이상 전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개인이나 가정이나 교회나 모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발목을 잡고 있는 족쇄를 끊고 감옥을 무너뜨릴 수 있는 방법은 교회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합니다. 교회는 현재에 안주하려는 마음을 깨뜨리기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교회는 세상에 대한 관심을 버리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가 가장 큰 절기였기 때문입니다.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고 절망에 빠진 교회는 기도하였습니다. 영어 성경에 보니까 "earnestly praying to God for him"이라고 했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지도자 야고보를 얼마 전에 잃었는데 이번에 또 베드로도 잃어버리게 되었으니 어떻게 할꼬" 하며 간절히 합심하여 기도하였습니다.

베드로는 옥에서 군사 넷이 네 패가 되어 지키는 뜰에서 쇠사슬에 매인 상태에서 자고 있었습니다. 그럴 때 출연히 주의 사자가 곁에 설 때 옥중의 광채가 조조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우며 급히 일어나라 할 때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졌다고 합니다. 천사가 띠를 띠고 신을 들매라 하고 걸음을 밟고 따라오라 할 때 베드로가 잠이 풀리지 못하고 환상을 보다가 하면서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성으로 통한 쇠문에 이르렀을 때 문이 절로 열리고 나와 한 거

가 죽임을 당할 것이다"고 알고 있었습니다. 그럴 때 그들의 기도가 간절하였습니다. 간절한 기도는 응답 받습니다. 참으로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정확히 언제 기도를 응답하실지 또는 어떻게 하실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기도를 꼭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미국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들과 어려운 나라에서 사는 사람들과 다른 점이 있다면 그들에게는 옵션이 적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다른 선택이 없다는 것입니다. 멕시코나 아이티에 가서 보면 병원에 입원해서 대수술을 하고 난 다음날 아스피린도 없이 퇴원시킵니다. 의료보험도 없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문제가 생길 때 기도하지 않고 어떻

중보기도하는 자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베드로를 잡아서 깨워 주셨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위대하신 기도의 능력입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기적들을 온전히 믿는 믿음이 이러한 능력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앞에 단단히 잠겨진 문이 열릴지 바라십니까? 능력과 확신 가운데 기도하면 마지막 문이 열릴 때 자유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을 찾고, 그분을 붙들고, 그분의 창고에서 보물을 꺼내 영적인 일

JoyLA.com

추제별성서대전

80% OFF

정가 \$750.00+세일가 \$150.00+Tax

32 Set 한정특가판매(1set 12권)

Sale

2013 미주용 다이어리 신청하세요

다이어리 커버에 교회이름 인쇄, 수첩 안에는 필요한 내용을 넣을 수가 있습니다. 수첩커버에 100부 이상은 무료로 인쇄해 드립니다(단 10월 31일까지 주문에 한함). 50부 이상 100부 미만은 인쇄비 권당 50센트씩 추가됩니다.

이끼완벽 성경 성구 대전 (전7권)

save 69% 정가 \$758.00

세일 가격 \$235.00 +Tax

1권:가~납스
2권:다~못
3권:뜻가~소위
4권:소유~오늘
5권:오늘날~종
6권:종교~히데델
7권:편람

- 개역한글성경의 성구를 빠짐없이 완전히 수록
- 해당성구를 완전한 인용
- 한글성경성구를 이에 해당하는 원어와 철저히 비교하여 말씀의 근원적 이해에 접근할 수 있도록 제작

<p>미주판 2013 Immanuel 다양하고 실용성 있는 내용과 세련된 디자인 크리스천이라면 누구나 활용할 수 있는 큐티를 결합 임마누엘 미주판 2013다이어리!</p> <p>1-50 권은 \$6,50 51-99 권은 \$6,00 100권 이상은 \$5,50</p>	<p>2013 Agape Partner Diary 미주판 고급스런 표지와 세련된 디자인, 활용하기 쉽도록 구성된 미주판 Contents! 교사용, 구역장용, 성가대용으로 다양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필수 Gift 아이템입니다.</p> <p>1-50권은 \$650 51-99권은 \$6,00 100권 이상은 \$5,50</p>	<p>미주판 2013 Qumran Christian Diary (Medium Size) 다양하고 짜임새 있는 Contents로 구성된 미주판 다이어리! 목회자분과 구역장, 교사분 들을 위한 실속 있는 구성!</p> <p>1-50 권은 \$5,50 51-99 권은 \$5,00 100권 이상은 \$4,50</p>
<p>미주판 2013 Qumran Christian Diary (Large Size) 다양하고 짜임새 있는 Contents로 구성된 미주판 다이어리! 목회자분과 구역장, 교사분 들을 위한 실속 있는 구성!</p> <p>1-50 권은 \$6,50 51-99 권은 \$6,00 100권 이상은 \$5,50</p>	<p>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2013 2013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다이어리 Experiencing GOD diary! 목회자, 제직, 교사, 성가대, 구역장의 사역필수품!</p> <p>1-50 권은 \$6,95 51-99 권은 \$6,55 100권 이상은 \$6,00</p>	

JOYLA 언제나 고객감동이 있는 곳

CALL : 1-800-662-7282 / Email: joylabook@hotmail.com

조이기독백화점 | 미국: 323-766-8793

3170 W. Olympic BL. #E L.A., CA 90006

교육칼럼

다음세대(자녀)를 어떻게 양육할 것인가?(10)

다음세대 선교를 위한 전략



송규식 목사 | 차세대연구소소장

차세대 문제 해결을 위한 방법론으로 교육이 당연히 중요하지만 교육과 더불어 결코 분리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문화입니다. 문화적인 콘텐츠를 무시하고 교육한다는 것은 마치 음악이 없이 춤을 추게 하는 것과 같습니다. 특히 교회교육에서 아이들에게 성경말씀을 가르치는 데는 반드시 문화적인 매체를 사용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그리고 따르는 무리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실 때, 당시 문화적인 요소들을 최대한 많이 사용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사용하셨던 수많은 비유들이 다 그 예입니다. 그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갈 삶의 현장 즉 문화 속에서 소재를 찾아 쉽게 설명하셨던 것이지요. 마찬가지로 우리 자녀들에게 성경을 가르칠 때, 그들이 쉽게 이해하고 자신들의 삶에 적용할 수 있도록 그들의 문화 속에서 소재를 찾아 교육에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그래야 아이들에게 흥미를 유발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성경공부도 재미있다고 느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성취동기를 가질 수 있도록 교육현장에서 주제적 활동을 아이들 위주로 설정해야 합니다.

요즘 아이들은 표현욕구가 강합니다. 특별히 노래하고 춤추고 연기하는 것을 매우 좋아합니다. 교회 교육활동에서 이와 같은 소재를 활용하여 발달하고 생기 있는 교육현장으로 만들어 가야 할 것입니다. 더욱이 어린 아이들일수록 노래하고

린 아이들에게는 성경말씀을 이해시키고 사고하게 하고 판단하여 결정하고 행동하게 하는 순서로 교육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반대로 먼저 행동하고 행동하면서 생각하고 몸으로 터득하여 깨달아 가도록 순서를 바꾸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Thinking First Doing Next"가 아니라 "Doing First Thinking Next"로 교육방법의 순서를 설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교사가 설명하려고 하지 말고 아이들 스스로 찾아 발견하고 체험을 통해 깨달아 가도록 학습활동을 전개해야 합니다. 물론 쉽지 않습니다. 그

문제까지 다 감당하겠는가? 그러니까 교육목사, 교육전도사들을 세운 것이 아니겠나? 라는 것이지요. 목회현실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다음 세대의 문제는 결코 미루어서도 소홀히 해서도 안 되는 시급한 문제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전도하려고 부단히 노력하고 있지만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장년을 전도하는 것보다는 청년이 더 쉽고 청년보다는 청소년들을 전도하는 것이 더 쉽고 청소년보다는 어린 아이들을 전도하는 것이 훨씬 쉽다는 것입니다. 더욱 중요한

가질 수 있듯이 말합니다. 또한 설교하시는 목사님께서 설교를 준비하고 설교하면서 자신 스스로 더 큰 은혜를 받듯이 말합니다.

교회가 할 수만 있다면 이런 크리스천 문화의 장을 많이 열어주고 아이들이 그런 활동을 통해 교회내 집처럼 편안하게 좋아하고 교회와 더불어 자라갈 수 있도록 해주면 얼마나 귀한 우리 다음 세대 리더들이 우리 교회에서 배출되겠습니까? 가슴 뛰는 일입니다. 그 일을 위해 기쁨으로 투자하고 헌신하고 섬기는 교회가 많이 생겼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유년주일학교 프로그램으로 뮤지컬이나 합창단 또는 합합무용단이나 찬양울동 그리고 오케스트라나 밴드 등 다양한 공연문화와 연관된 장르들을 개발해주고, 물론 중고등학생들을 위해서도 지속적으로 같은 장르들을 키워가면서 더불어 각종 운동팀을 구성하여 단체운동을 권장하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사춘기와 반항기를 거쳐 정체성이 확립이 불분명한 그 나이의 청소년들에게는 정신적인 공백과 허황한 공상이나 탈선을 막아줄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대체활동이 바로 운동이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혼자 하는 운동보다는 그룹이 함께 팀을 이루어 협동하는 운동이 더욱 좋습니다. 교회 파킹장도 중요하디만는 체육관이 없다면 파킹장의 일부분을 활용해서라도 운동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주는 배려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커뮤니티와 공유해서 사용할 수

Q&A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신앙상담



이정현 목사

나성서부교회 / (310)749-0577
E-Mail: Lakwpc0316@yahoo.co.kr

Q: 주일예배를 드리고 오후에는 야외에서 교인들끼리 배구 등 운동을 하며 체육대회를 했는데 이것이 과연 주일성수에 걸리는 것인지요? 주일에 예배 후에 마켓 가는 것은 어떤지요?

A: 주일 성수문제는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주일성수를 하는 것을 제가 섬기는 나성서부교회의 원로목사이신 김승근 목사의 말씀에 의하면 청교도적인 주일관과 개혁주의적인 주일관이 있다고 봅니다. 저는 이것이 상당한 타당성이 있다고 봅니다.

청교도적인 주일관은 문자 그대로 주일을 지키기 위해 육신의 활동을 쉬는 것으로 주일에 절대로 운동을 하거나 TV를 보거나 학교공부도 하지 않고 여행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과거에 어떤 고신 교단목사님은 저녁 설교를 마치고 주일을 지키기 위해 차도 타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6시간을 걸어서 설교하셨다가 설교를 마치고 6시간 걸어서 집에 오자 새벽 3시가 되었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율법주의적인 주일성수라 할 수 있습니다.

둘째로 개혁주의적인 주일관이 있습니다. 구약의 안식일은 6일 동안 일한 후의 쉼으로서의 안식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지키라고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율법을 지키는 행위로는 절대로 인간이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신약의 주일은 안식 후 첫 날에 주님이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성취하셨습니다. 첫날인 주의 날에 큰 힘과 안식을 얻어 그 힘으로 일주일동안 세상에 나가 승리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지키므로의 안식이 아니라 주님께 가서 주님을 믿고 주님께 모든

주일성수는 주 안에서 참안식누리는 것

것을 맡길 때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안식이 온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을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했습니다. 한마디로 예수님 안에 진정한 안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믿고 주님께 인생의 모든 문제를 내려놓을 때 참 안식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옳다고 믿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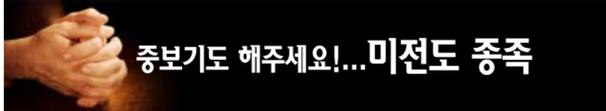
그래서 주일에는 교회에 나가 예배를 드리며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을 맡김으로 참 안식을 얻습니다. 주님 안에 참된 안식과 자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우리들이 주일에도 자유가 있습니다. 교인들끼리 주일 오후에 친교를 위해 운동을 하는 것은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그것이 주일성수를 범한 것이라고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구원함을 받은 사람들이 주일에도 함께 기뻐하며 즐길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가능하면 주일은 영혼이 예배를 통해 안식하듯이 육신도 쉬는 것이 좋습니다.

구약에서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는 말의 거룩은 "구별되었다"는 뜻입니다. 다른 날과 달리 구별되어 지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주일 전에 미리 마켓을 가서 주일에 먹을 것을 미리 준비하고 가능하면 마켓에는 안 갈려고 합니다. 그리고 특별한 일이 아니면 주일에는 음식을 사먹는 일을 금지합니다. 왜냐하면 주일성수를 위해 직장이나 비즈니스를 쉬어야 된다고 말하면서 내가 가서 사먹게 되면 남이 사업을 열고 일하도록 허락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경 신학자인 박운선 박사님은 1)예배에 관한 것 2)성명에 관한 것 3)부득이한 일 외에는 주일을 문자적으로 거룩히 지키라고 했습니다. 주일에 아프면 병원에 가야하며 교회 가다가 개스가 떨어졌으면 개스를 넣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우리는 율법적으로 무엇을 행하고 지켜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어 구원을 받았기에 참된 안식은 주님 안에 있습니다.

▲연락처: (714)699-0210 차세대연구소

▲연락처: (714)699-021



중보기도 해주세요!...미전도 종족

인도네시아의 파세마(PASEMAH)



파세마족은 레마탕(Lematang), 린탕(Lintang), 렘박(Lembak) 족을 포함한 다양한 종족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들은 수마트라섬, 특히 고원지대인 파세마 레바(Pasemah Lebar)의 고원지대에서 살고 있다. 어떤 파세마 공동체들은 보르네오 연안과 특히 수마트라 동쪽 연안섬

들 또한 이 지역 인접 부근에 살고 있기도 하다. 파세마족은 생계를 위해 상업무역과 선원생활을 하면서 파세마 반도와 수마트라에 걸쳐 살던 보르네오 연안 지역의 종족이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그들의 문화는 수마트라인(Sumatrans)과 자바인(Javanese)과 시아메사(Siamese)인 같은 종족들로부터 강하게 영향을 받았다.

부킷 바리산(Bukit Barisan) 산맥은 파세마의 역사적 문화적 발달의 중심지다. 이 지역이 바로 고

원지대들을 지나 흐르는 크고 완만한 강줄기의 근원이다. 그리고 이러한 강들은 마지막으로 저지대 평야와 연안 늪지대로 흘러들어 서쪽의 인도양과 동쪽의 방카(Bangka) 해협까지 이른다.

삶의 모습 파세마족은 인구 50에서 1천명 정도 규모가 되는 마을에서 사는 데 이 마을들은 연안과 강과, 도로를 따라서 위치해 있다. 집은 주로 땅 위에 4-8피트 정도의 높이로 기둥을 세우고 지은 고상식 가옥이며 그 위에 초가지붕을 얹는다. 부유한 사람들의 경우에는 종종 합판으로 된 바닥을 깔고 위에 기와지붕으로 된 집에서 살기도 한다.

파세마족의 80%가 종사하는 주된 업종은 농업이다. 쌀, 고무, 커피가 주된 생산물이다. 벵사하는 주로 팥이질로 또는 황소, 물소 등으

로 경작한다. 파종(씨뿌리기)은 임금 노동자들이나 혹은 품앗이로 5-10명 정도의 일꾼들이 그룹을 지어 일을 한다.

파세마족의 주식은 쌀, 옥수수, 고구마, 콩류, 감자, 그리고 생선 등이다. 특히 바나나는 계절 과일이나 견과류등과 함께 사시사철 먹는다. 닭과 염소는 특별한 경우에 먹는 음식이다. 파세마족이 사는 곳에는 실제로 건기가 없기 때문에 식수와 농업용수가 충분하다. 그러나 강과 우물에서 나오는 물이 오염된 경우가 많기 때문에 끓이지 않고는 식수로 사용하기 어렵다.

가족간 특히 부모와 자녀 사이의 유대관계가 아주 강하다. 전형적인 가족형태는 남편, 부인, 그리고 아이들로 구성되는데 부모는 둘이 함께 아이들을 돌본다. 가장 기본이 되는 가족원칙은 "머뭇진 굶던지 함께 모이자"이다.

결혼은 전통적으로 부모에 의해 정해진다. 결혼 후에 가족과 함께 남아 있는 아들이나 딸들은 어린 형제자매들을 돌보고, 가족의 땅이나 또 다른 재산을 지키고, 예를 갖추어야 할 종교적인 행사를 돕는다. 가계의 혈통을 벗어나서 결혼한 경우에는 이러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

여성들은 말레이 스타일의 면으로 된 사롱(sarongs, 허리를 감싸는 밝은 색깔의 치마)을 입고, 위에는 긴 팔 면 블라우스를 입는다. 그들은 또한 자켓과 스카프와 바지 위에 치마를 덧입는다. 그들은 베일을 쓰지 않는다. 남성들은 셔츠와 타이일의 면 셔츠와 바지를 입는다.

신앙 힌두의 영향이 역사적으로 컸지만 오늘날은 거의 모든 파세마족이 사피무슬림들이다. 각 마을마다 중

교적 중심역할을 하는 모스크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거의 모든 남성들이 매주 금요일에 예배에 참석한다. 시골지역에 사는 파세마족들은 이슬람종교 이전에 있었던 정글과 땅(토지)의 영혼을 믿는 신앙을 지키고 있다. 민간요법들이 여전히 성행되고 있고, 육체적, 영적 질병들을 치료하기 위해 무당들을 찾는 다.

필요로 하는 것들 시골지역 실업률이 높아서 많은 남성들이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 도시로 옮겨간다. 고등학교 중퇴율이 높아지면서 지역산업을 위해 필요한 기술을 가지지 못한 젊은이들이 장기 실업문제에 빠져있다. 부모들은 고등학교와 대학교를 보내기 위한 학비를 충당할 수 없고 정부에 대한 불만을 표출하기도 한다.

인터넷 뉴스 Internet News

나이지리아 교회에 자살폭탄 공격 11명 사망

'지난 25일 나이지리아 북부 카두나 주의 한 교회에서 두 건의 자살폭탄 공격이 발생해 최소 11명이 숨지고 30여 명이 부상했다고 연합뉴스 인터넷판이 보도했다.



나이지리아 군 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5분께 카두나주 자지마을에서 버스 한 대가 성 안드레 교회로 돌진한 뒤 폭발했다. 이어 10분 뒤에는 교회 근처에 있던 도요타 캠피 자동차 안에서 폭발물이 터졌다. 당시 교회 안에서는 신자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던 중이었다.

이번 사건은 급진 이슬람 단체인 '보코 하람'의 소행으로 추정된다. 보코 하람은 나이지리아에서 이슬람 세력 확장을 목표로 군 시설이나 교회 등을 상대로 한 자살폭탄 공격을 여러번 시도해 왔으며 이 때문에 지난 달에도 8명이 숨지고 100여 명이 다쳤다.

시카고서 '이스라엘 vs 팔레스타인' 대리전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정치적 고향 시카고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의 대리전 장소로 변했다. 20일 시카고 폭스뉴스 등에 따르면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공습 7일째인 이날, 유대계와 팔레스타인계 미국인들이 시카고 도심 톰슨센터 앞에 각각 수백 명씩 모여 결속을 다지는 집회를 열고 각각의 모국에 대한 지지를 호소했다.



길 하나를 사이에 두고 대치한 이들 시위대로 인해 시카고 도심에는 한때 긴장감이 감돌기도 했다. 시카고 경찰국은 만일의 충돌 사태에 대비, 두 그룹 사이에 가마병을 배치했다. 팔레스타인 지지자 1천여 명은 전날 시카고에서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공습과 오바마 대통령의 이스라엘 지지 입장에 반대하는 시위를 벌인 바 있다. 이들은 "오바마 대통령이 '민간인 대학살'을 자행하는 이스라엘에 대해 지지를 철폐한 것은 팔

레스타인인 뿐 아니라 전 세계 미국인들의 뺨을 때린 것과 같은 일"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자극을 받은 유대계도 모국에 대한 성원을 모으기 위해 시카고 도심으로 집결했다. 오바마 행정부 초대 백악관 비서실장이자 '오바마의 오른팔'로 통하는 유대계 인사 람 이매뉴얼이 시장을 맡은 후 목소리가 더욱 커진 이들은 시위장소에 "시카고는 이스라엘 편"이라는 대형 현수막을 내걸었다.

유대계 시위대는 "중동 가자지구의 무력분쟁은 12년째 계속되어온 일"이라면서 "이스라엘은 침략자가 아니다. 최근 수년에 걸쳐 벌어진 일에 대한 대응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팔레스타인인들이 무기를 내려놓는다면 이제는 전쟁은 없을 것이다. 반면 이스라엘이 무기를 내려놓게 되면 더는 이스라엘은 없다"고 역설했다.

시카고 유대인연합 에이런 코헨은 "하마스의 미래 비전은 이스라엘 파괴에 있다"며 "다른 렌즈를 통해서 보면 가장 중요한 이 문제를 간과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팔레스타인 지지자들은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공습을 '부당한 공격'이라 주장하면서 "어린이와 노약자에 대한 학살을 지켜보며 대체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분노를 표출했다.

영국 성공회, 여성주교 허용안 부결

영국 성공회의 여성 주교 허용을 위한 교회법 개정이 무산됐다. 영국 성공회는 20일 총회를 열고 주교직을 여성에 개방하는 안에 대한 투표를 진행했으나 평신도 의회에서 3분의 2 이상 지지를 얻는 데 실패해 부결됐다.



여성 주교 허용안은 주교단 의회와 성직자 의회는 통과했지만, 평신도 의회의 반대해 결려 12년에 걸친 노력이 무위로 돌아갔다. 평신도 의회 표결에서는 132명이 찬성표를 던졌지만, 74명이 반대해 찬성률이 64%에 머물러 근소한 차로 거부됐다.

성공회 총회에서 안건이 통과하려면 3개 의회에서 각각 3분의 2 이상의 찬성표를 얻어야 한다. 주교단의 의

회에서는 찬성 44, 반대 3, 기권 2로 찬성표가 압도적으로 많았다. 성직자 의회에서는 148명이 찬성하고 45명이 반대했다. 총회에 참석한 전체 인원 기준 찬성률은 74%로 집계됐다.

이번 부결로 여성 주교 허용안은 새로운 입안 절차를 거쳐 5년 뒤에는 총회에 상정이 가능하다고 성공회는 밝혔다. 이날 총회에서는 성공회 차기 수장으로 선임된 저스틴 웰비 더럼 주교가 발언대에 올라 여성 주교 배출을 더는 미룰 수 없다며 찬성표를 호소했다.

7천700만 신도를 거느린 성공회에서는 지난 1994년 사제적 문화가 여성에 개방됐으나, 여성의 사제 서품식 규관에 반발하는 복음주의 진영의 반발로 여성 주교의 탄생은 미뤄져 왔다. 이번 총회에서는 지역 교구가 여성 주교를 반대하면 남성 주교가 대리하도록 하는 규정 신설 문제도 논란이 됐다.

그레이엄 존스 성공회 노리치 주교는 "근소한 표차로 이번 안이 부결돼 유감스럽다"고 아쉬움을 드러냈다.

영국의 여성 교권운동 단체인 WATCH는 이번 표결은 영국과 성공회에 심각한 타격이 될 것이라고 반발했다.

마야 문명권에 '지구 종말일' 관광객 몰려

오는 12월21일을 지구 종말일로 설정한 할리우드 영화 '2012'의 영향으로 중남미 마야 문명권에 관광객들이 몰려 들고 있다. '2012'에서 지구가 홍수와 지진, 화산폭발로 멸망에 이르는 것으로 묘사돼 있는데 전문가들은 2012년은 5천200년을 주기로 하는 마야 역법에서 사이클이 끝나고 시작되는 시기로 종말과는 관계가 없다고 설명하고 있다.



마야 원주민의 후손들은 지구 종말일은 아무런 근거가 없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정부와 관광업체가 관광객 유치에 엉터리 종말론을 묵인하고 이용하고 있다고 비난하고 있다. 과테말라 원주민 지도자 알바로 포프는 "사람들이 할리우드 영화 때문에 마야 문명을 모르면서도 영혼한 해석을 했다"면서 "마야 문명에서 학자들은 예언자가 아니었다. 존재하지도 않는 예언을 근거로 하는 지구 종말론은 있을 수도 없다"고 말했다.

원주민들은 정부가 주도하는 행사와는 별도로 나름대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5개 도시와 신성시되는 6개 지점에서 기념식을 거행할 예정이다.

이라크 시아파 성지 수백만 인파 몰려

이슬람 시아파 성일인 '아슈라'를 맞아 25일 이라크 성지 카르발라에 수백만명의 순례자들이 몰렸다고 AFP 통신이 보도했다. 아슈라는 이슬람교 창시자 무함마드의 손자 이맘 후세인이 서기 680년 전장에서 순교한 날로 시아파 최고 의례일로 간주된다.



시아파 순례자들은 가슴을 후려치는 의식(마야탐)과 채찍으로 등을 때리는 의식 등을 통해 우마이야 왕조 칼리프 아지드에게 처형당한 후세인을 애도했다. 시아파 무슬림은 이러한 극적인 참회 의식(타오지야)을 행하면 이맘 후세인이 최후 심판의 날에 중재자로 등장해 자신들을 천국으로 인도할 것이라고 믿는다. 후세인의 시신은 이라크 수도 바그다드에서 남쪽으로 100km 떨어진 카르발라 인근에 묻혔다. 아말 알 딘 알 하르 카르발라 시장은 "아슈라를 맞아 카르발라를 찾는 사람들은 외국인 20만명을 포함해 약 300만명에 달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라크 경찰은 시아파 순례자를 노린 폭탄 테러를 막기 위해 대 테러 경계를 강화했다. 이라크에서는 매년 아슈라 전후로 수니파 무장세력의 폭탄 테러가 기승을 부려 희생자가 속출해왔다. 지난해에도 이라크 중부 곳곳에서 시아파 순례자를 겨냥한 다섯 차례의 폭탄 테러가 발생해 28명이 희생됐다.

그러나 올해는 지난 17일 바그다드 북부에서 시아파 순례자를 겨냥한 차량 폭탄 테러로 3명이 숨지고 25명이 부상한 것 외에 다른 테러는 아직 발생하지 않았다. 다만 파키스탄과 예멘 등지에서 테러가 잇따랐다.

파키스탄에서는 전날 자살 폭탄 테러로 8명이 숨지고 23명이 다친 데 이어 이날 폭탄 테러로 아슈라 의식을 행하던 시아파 신자 5명이 사망하고 83명이 부상했다. 예멘에서도 전날 시아파 신자를 겨냥한 총격으로 3명이 숨지고 10명이 부상했다고 통신은 전했다.

전체 이슬람 신자의 15%를 차지하는 시아파는 이라크, 이란, 바레인 인구의 대부분을 차지하며 아프가니스탄, 레바논, 파키스탄, 사우디아라비아 등지에도 상당수 거주하고 있다.

청빙 (Sunday School) 주일학교 담당 사역자 EM 사역자

팜비치 한인장로교회(담임: 한석원 목사)에서 주일학교를 담당할 디렉터를 청빙합니다.

- 주일학교 사역 대상: 유아부터 고등부까지
1. 자 격: 신학 대학교 졸업 또는 재학자, 영어 필수(1.5세/ 2세 선택)
2. 제출 서류: 이력서, 간증문, 사역 계획서 (제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이메일도 가능)
3. 접수 마감: 2012년 12월31일
4. 연 락 처:
담임 목사 한석원 목사: 404-435-3252
sukwonhan@hotmail.com
교육 사역원장 채한림 장로: 561-809-0937
hollychae@gmail.com)

인터뷰를 통해 하프 타임, 풀타임 조정 가능합니다. 궁금한 점 있으면 언제든지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팜비치 한인 장로교회 Korean Presbyterian Church of Palm Beach 301 S. Olive Ave. West Palm Beach, FL 33401 (www.pbkc.org / 561-651-1198)

구독신청서

미주크리스천신문의 정기구독을 신청하며 1년 구독료를 동봉합니다.

Table with subscription rates for 1 year: USA \$100, Canada \$110, Korea \$190, Europe \$190, Africa \$190.

Subscription form with fields for name, address, phone, and checkboxes for personal or gift subscription.

신청일자: 200년 월 일 신청인 서명: * 저희 미주크리스천신문을 구독(후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미주크리스천신문 The Korean Christian Press L.A: 601 N. Vermont Ave. #202 L.A., CA 90004 Tel.(323)665-0009, Fax.(323)665-0046 E-mail : la@chpress.net N.Y: 143-17 Franklin Ave., Flushing, NY 11355 Tel.(718)886-4400, Fax.(718)886-0074 E-mail .ny@chpress.net

특/별/기/고

한국교회와 WEF, WEA, 로잔운동 (1)



노봉린 박사(Th.D. 하와이신학대 교수)

WCC 제 10차 총회가 2013년 10월에 부산에서 열리므로 한국 교회가 WCC를 지지하는 교단들(예장 통합)과 반대하는 교단들(예장 합동)이 신학적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2012년 10월8일 서울 한국기독교연합회관에서 WCC반대 측의 최태성 교수(부산의 기독교사사연구원 원장)와 WCC를 지지하는 이형기 교수(장로회신학대학 명예교수)가 논문 발표 토론을 계획하였으나 이 교수의 교단 통합 측의 반대로 이 교수는 토론회에 참석하지 않았다.

제총무(International Director)로 6년(1990-96) 사역하였다. 그러므로 26년간(1970-96) 아시아와 세계의 복음주의 신학과 신학교육발전을 위하여 노력한 셈이다. 필자는 Covenant Seminary(M.Div.), Concordia Lutheran Seminary(STM, Th.D.)에서 공부하였고 1990년 Korean Presbyterian Church of America(KPCA)에서 목사 안수를 받았다. 1960년대에 미국에서 신학교육을 받으면서 미국의 신학방향이 정통적 복음주의에서 Karl Barth의 신정통주의 신학인 Rudolf Bultmann의 자유주의 신학으로 변질되는 것을 경험하였다. "As the seminary goes, so goes the church"(신학교가 변하면 교회가 변한다)는 구절을 마음에 깊이 새기게 되었다. ATA와

적 문제와 신학교육 문제를 ATA 복음주의 신학자 토론회를 통하여 다루게 되었다. WCC는 아시아에서 아시아교회협의회(Christian Council of Asia-CCA)를 통하여, 각 나라에 NCC를 통하여 활동하였다. 그 반면에 WEA는 아시아에서 아시아복음주의협의회(Evangelical Fellowship of Asia-EFA)를 통하여, 각 나라의 복음주의협의회(한국복음주의협의회)를 통하여 사역하였다. 필자는 EFA의 실행위원 멤버로 1980년대와 1990년대에 활동하였다. 1974년 빌리 그레함의 창설한 LCWE(Lausanne Congress of World Evangelization)를 계기로 아시아에 또 한 개의 복음주의 교회운동(Asian Lausanne Congress of World Evangelization-

그러므로 앞으로의 WCC 운동의 주도권은 교회가 계속 성장하며 세계 선교운동에 앞장서고 있는 제3세계교회 지도자들이 맡아 나가야 한다고 보고 있다. 이번 WCC 총회준비를 위하여 앞장서고 있는 예장통합 측의 책임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본다. 에큐메니칼 운동에 속해 있는 한국의 복음주의 교단들은 이번 기회에 복음주의의 신학으로 WCC 운동의 초창기 목적이었던 세계복음화운동에 되돌아오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

II. WCC 운동의 성장과 쇠퇴

1. WCC의 초창기 목적: 세계복음화 운동

에큐메니칼 운동의 초창기는 1910년 영국 스코틀랜드의 에딘버러에서 열렸던 제1차 국제선교대회에서 일어났던 IMC(International Missionary Council)로 시작되었다. 세계복음화운동을 전 세계교회가 동참하기 위한 목적으로 구성된 에큐메니칼 운동이 제2차 대전 후 1948년 암스텔담에서 정식으로 WCC가 창립된 것이다. 그때 당시 유럽 신학교에서 성장했던 자유주의 신학과 IMC내에도 하버드 신학대학원의 Dr. William

목상칼럼
여승훈 목사 (휴스턴사랑의교회)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신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거나 기도를 할 때 필수적인 개념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선다는 것이다. 그냥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역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식하지 못하고 예배가 드러진다면 그것은 죽은 예배가 된다는 말이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예배를 드리는 경우가 너무나 허다하다. 더욱 불행한 것은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도 하나님이 받으셨을 것이라고 믿는다는 것이다. 이런 경우 믿음이 정말 위대하다고 해야 할지 참으로 난감하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식하지 못하고 예배 가운데로 들어가면 어떻게 되는지 아는가? 예배에 대한 인식이 하나님 앞에서 아니라 사람 앞에서 드러지게 된다. 사람 앞에서 예배를 행하다 보니까 사람 보기에 좋은 대로 하게 된다. 사람 보기에 화려하고 사람보기에 아름답고 사람 보기에 지루하지 않고 사람 보기에 인정 받을만하고 사람 보기에 근사해 보이는 것들을 계속 추구하게 된다. 예배가 얼마나 복잡하고 세련되고 화려했는가? 청중들은 마치 한편의 좋은 공연을 본 것처럼 엔돌핀이 팍팍 도는 듯 한 기분으로 얼마나 즐거워하겠는가? 오늘날 심리학에 기반을 두고 기쁨을 부리는 소위 세련된 세미나들이 현대 기독교 안에 얼마나 유행하고 있는지 모른다. 이런 세미나에 너도나도 세련과 겉멋에 물들어가느라 그리스도인들이 분별력 없이 달려가고 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진정으로 인식할 줄 수 있다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외에는 다른 길이 없음을 정확히 보게 될 것이다. 보다 나은 행복한 삶을 누리기 위해서 소위 도덕 강론을 여기저기서 한다. 그러나 도덕 강론은 절대로 당신으로 하여금 도덕을 실천하도록 하는 힘을 결코 제공해주지 못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만난 이후에 그 뛰어난 유대교의 도덕주의를 배설물처럼 여기게 된 것이다. 그런데 현대 기독교가 바울이 배설물처럼 내려놓았던 율법적 도덕주의를 지향하고 있으니 이것은 거꾸로 가도 함참 거꾸로 가고 있는 것 같다. 청교도들의 메시지를 보라. 그들은 한결 같이 하나님에 관한 기초 교리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영광스러움을 일관되게 전했다. 왜 현대 기독교는 점점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기초교리로부터 점점 멀어져가고 있을까? 살아계신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가지지 못하기 때문이 아닐까?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는 진리 앞에 깊은 목상이 필요하지 않을까? 교회를 세우는 기초가 되었던 베드로의 신앙고백에도 그냥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이라 하지 않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즉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기초위에 세워진 기관이다. 성경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인격체임을 증거하고 있다. 주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실체이시다. 주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신 인격체로서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당신의 예배를 받으실 수 있는 것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신 인격체로서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당신이 기도한 모든 것이 그분의 때에 응답될 것을 확실하게 되는 것이다. 아무리 기다리고 기다려도 응답이 없어도 그래도 기다릴 수 있는 것은 그분이 살아계신 인격체로서의 하나님임을 믿기 때문이다. 이제 더 이상 요행이나 확률적으로 뭔가 찾아떨어지기를 바라는 그런 식의 기도는 멈춰져야 한다. 길이 어디에 있는가? 주 예수 그리스도. 진리가 어디서 나오는가? 주 예수 그리스도. 생명이 어디서 나오는가? 주 예수 그리스도. 참된 영혼의 양식을 어디서 찾을 수 있는가? 주 예수 그리스도. 참된 마음의 기쁨을 어디서 누릴 수 있는가? 주 예수 그리스도. Korean-American 2세대들을 어디로 이끌어주어야 하는가? 주 예수 그리스도. 교회가 어떤 가치를 최고로 붙잡아야 하는가? 교회의 머리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 모든 부패 모든 타락은 머리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살피면 붙잡고 절대적으로 붙들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 모두 살아계신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돌아가자!

미국 신학방향, 정통적 복음주의에서 신정통주의/자유주의로 변질 1960년대 신학 현장에서 절감 "신학교가 변하면 교회가 변한다"

섬 박사가 발표하였고, WEA측에서는 총무 Dr. Schirmacher와 김상복 박사(WEA 회장)가 발표하면서 WCC와 WEA간의 신학적, 교단적 차이점을 논의하였고 상호간의 협조로 세계복음화를 이루는데 힘을 것을 다짐하였다.

WEATC를 위하여 26년간 일하면서 유럽과 미국의 신학교에서 일어나고 있는 자유주의 신학의 영향이 아시아의 4,000개 신학교와 전 세계의 4,000개 넘는 신학교에 미치지 않도록 노력하였다. 필자는 아시아에서 30년 신학교육에 종사하면서 WCC에 속한 신학자들과 신학교육 단체들과 많은 대화를 갖게 되었다. 아시아에는 WCC에 속한 세계의 신학교육 단체가 있다: 동북아시아 신학교협의회(North East Asia Association of Theological Seminaries-NEAATS), 동남아시아신학교육협의회(Association of Theological Education in Southeast Asia-ATESEA), 인도신학교육협의회(Board of Theological Education-BTE) 등이다. ATA는 아시아의 1000개 신학교를 대상으로 하는 복음주의신학교협의회이다. 그러므로 ATA 총무로 이 세 개의 에큐메니칼 신학교협의회에서 강조하는 신학

ALCOWE)이 1970년 후반에 창설되었다. 필자는 ALCOWE의 실행위원으로도 활동하였다. 그러므로 필자는 ATA를 통한 아시아 신학교육과 EFA, ALCOWE를 통한 아시아교회 복음주의운동에 동참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아시아에서의 WCC(CCA), WEA(EFA), 로잔운동에 대한 경험을 나누려고 한다. 필자는 2013년 부산에서 열리는 제10차 WCC총회를 두고 논쟁하고 있는 한국교회에게 이 글을 통하여 중요한 메시지를 전하기 원한다. 1950-90년에 열정적으로 활약했던 WCC 운동은 그 후 WCC의 핵심역할을 맡고 있었다. 그러나 유럽과 북미의 대교단들의 계속 교인감소와 재정난에 의해 현재의 WCC 운동은 열기를 잃고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세계의 대다수의 기독교인은 유럽과 북미에 거주하지 않고 제3세계교회(아시아, 아프리카, 남미)에 거주하고 있다는 사실이이다.

Hocking(Rethinking Missions, 1932) 같은 자유주의 선교학자가 있었으나 일반적으로 대다수의 참여교단들은 교회연합운동(Faith and Order)을 통하여 기독교구제사업(Life and Work)과 세계 선교사역(IMO)에 동참하는데 관심이 많았다. 특별히 선교학으로 유명한 John Mott(d. 1955)는 IMC 초창기부터 사망할 때까지 에큐메니칼 선교운동을 위하여 일생을 바치고 노벨평화상을 받은 분이였다. 1910년부터 1952년까지도 복음주의 에큐메니칼 지도자들이 WCC운동을 지도하였으며 세계복음화운동에 열정적으로 동참하게 되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자유주의 신학을 지지하는 WCC 지도급의 인물들이 IMC내에 다원주의의 선교신학과 서구신학교의 자유주의와 혼합주의신학을 도입하면서 WCC신학은 변질되

(다음호에 계속)

Table with 4 columns and 4 rows of church announcements. Each cell contains church name, pastor name, and service times. Churches listed include: 강남중앙감리교회, 군포제일교회, 금란교회, 김포제일교회, 광주신일장로교회, 동경중앙교회, 든든교회, 로마한인교회, 명성교회, 삼보교회, 새에덴교회, 성문교회, 성실교회, 수원교회, 수정교회, 승도교회, 시은교회, 신길교회, 신촌교회, 안양제일교회, 양곡교회, 왕성교회, 장위제일교회, 주안교회, 창대교회, 청주주님의교회, 충신교회.

창조과학 칼럼



최우성 박사
(생리학, 창조과학선교회)

116. 종류대로와 하나님의 형상

창세기 1장에는 몇 가지 강조점이 있다. 그 중 가장 강조되어 있는 것은 창조자이신 '하나님(엘로힘)'이다. 창세기 1장이 31절로 되어 있는데 '엘로힘'이란 단어가 무려 32번이나 사용되었다. 내용적으로나 형식적으로나 창세기 1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창조자 하나님이다. 그 다음 강조된 것이 전지전능한 능력의 말씀으로 창조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가라사대'로 10번 사용되었다. 창조 과정에서 '하나님' 그리고 '가라사대'가 강조되었다는 것은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니다.

그런데 창세기 1장에서 별로 중요해 보이지 않는 것이 크게 강조되어 있는데 그것은 '종류대로'란 말이다. '가라사대'와 마찬가지로 10번이나 사용되었다. 생물들이 '종류대로' 창조된 것이 뭐 그리 대단한 일이었기에 하나님께서는 '종류대로'란 단어를 그렇게 강조하셨을까?

1. 종류와 종의 차이

'종류(kind, 히브리어로는 min)'라는 단어와 '종(species)'이란 단어의 의미는 실제로 별 차이가 없다. 두 단어 모두 다 '교배의 한계'를 의미한다. 차이가 있다면 '종'이란 단어는 교과서에만 나온다는 것이며, '종류'란 단어는 성경에서만 사용되는 것이다. 실질적인 차이점은 '종류'의 교배한계가 '종'보다 훨씬 넓어 보통 한 '종류'는 여러 '종'들을 포함하고 있다.

학자들이 주장하는 '종(species)'이란 정의가 20여 가지가 넘는다. 그만큼 종의 한계를 정하기가 어렵다는 의미이다. 현재 교과서에 사용되고 있는 종의 정의는 Ernst Mayr의 정의를 따르고 있는데, 같은 종은 자연 환경에서 서로 교배가 되어 생식 가능한 자손을 낳을 수 있어야 하며, 다른 종과 교배되지 않아야 한다. 현재 지구상의 생명체의 종을 적게는 300만 종부터 많게는

100만 종까지 분류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일상적으로 부르는 동물이나 식물의 이름들이 대부분 '종'의 이름이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종'의 정의가 애매하기 때문에 자연 상태에서 혹은 동물원 우리와 같은 반 자연 상

하게 하라'(창7:3b), 씨를 보존하기 위해서는 교배가 필수이므로 창조과학자들은 '종류'를 '서로 교배될 수 있는 한계'로 정의하였다. 예를 들면 개와 늑대, 사자와 호랑이, 긴부리 핀치와 짧은 부리 핀치 등은 서로 같은 '종류'로 본 것이다. 따라서 '잡종'이나 '혼종' 혹은 '혼혈'이란 단어는 쓸 필요가 없는 용어들이다. 그들은 모두 다 한 '종류(kind)' 안에서 생겨난 변이체(variant)들일 뿐이다.

2. 창조된 생명체들-종류대로 창조

서로 다른 '종'들이 교배가 되기 때문에 교과서에 있는 '종'이란 분류 체계는 그 단어의 정의와 다른 문제를 안고 있는 체계다. 또, 한 '종'이 변하여 다른 '종'이 된다고 하지만 그것은 같은 '종류' 안에서 변이일 뿐 '종류'의 범위를 넘어가지 못한다. 한 '종'이 변하여 다른 '과(과, family)' 혹은 '과' 이상의 그룹에 속한 다른 '종'으로 변하는 진화는 화석에서도 현재 생물들 가운데서도 관찰되지 않았고, 실험으로 성공을 해보인 적도 없다. 유전자 보

(micro-evolution)가 아니다.

3. '종류대로'와 하나님의 형상

창세기 1장은 하나님께서 식물과 동물들을 모두 다 '종류대로' 창조하셨다고 말하고 있다. '종류대로'의 창조는 각 종류의 독특함을 보여주는 것뿐 아니라 사람이 다른 모든 동물에 비해 특별함을 강조하고 있다. 진화론에서는 최초의 한 세대가 모든 동물들과 식물들로 발전(진화)되었으므로 결국 모든 생명체들은 가깝고 먼 차이만 있지, 서로 같은 친척이며 어떤 생명체도 그렇게 특별한 것일 수 없다(인종극림) 주장한다. 결국 진화론이 주장하는 것은 사람도 별로 특별한 생명체가 아니라 말이다. 그러나 진화는 사실 일 가능성도 없고 증거도 없으므로 진화론이 의미하는 사람의 의미와 가치는 받아들일 수 없다.

창세기 1장은 최초로 생명체들이 '종류대로' 창조되었다고 했다. 이 사실은 '믿음 장'이라고 불리는 히브리서 11장 3절에서도 강조되었다.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눈에 보

교과서언급 '종' 들로 교배한 잡종은 '종의 분류' 오류 증거 같은 '종류' 안에서 변이일 뿐 '종류' 범위 넘어가지 못해



진화 vs 종류대로

진화론은 사람을 수 많은 동물들 중에 하나로 만들고 종류대로의 창조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다.

태에서 서로 다른 '종'들이 교배하여 새끼를 낳는 경우들이 흔히 보고되고 있다. 호랑이와 사자가 교배된 라이거나 타이곤이 있고, 늑대와 개가 교배된 것으로 보이는 호주의 덩어 등 서로 다른 '종'들이 교배하여 만들어진 동물들을 '잡종(hybrid)'이라고 부른다. 그런데 가까운 '종' 사이에서 생기는 대부분의 '잡종'들에게는 생식능력이 있다. 사실상 그들은 같은 '종'인 것이다. 따라서 지금 교과서에 있는 '종의 분류'는 상당한 오류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종류(kind, min)'란 개념은 하나님께서 '종류대로' 창조하신 사실에 근거한 하나님의 분류체계다. 하나님은 '종류대로' 창조하셨을 뿐 아니라 방주에 동물들을 태울 때도 '종류대로' 태우셨다. 방주에 동물들을 태운 이유는 '씨'를 보존하기 위함이었다. "그 씨를 온 지면에 유전

종의 법칙, 정교의 법칙, 열역학 제2법칙 등에 의거해 볼 때 유전정보가 증가해 야 되는 진화는 가능하지도 않다. 그러므로 '종류대로' 창조되었다는 성경의 기록은 과학적으로도 전혀 흠잡을 수 없는 주장이다.

만약 아담이 부활하거나 우리가 창조 직후로 돌아간다면 작정이 놀랄 것이다. 동물들의 모습이 지금과는 상당한 차이를 보일 것이기 때문이다. 거기에는 사자와 호랑이가 있고, 사자와 호랑이 비슷한 모양이 '종류(kind)'의 동물이 있었다.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450여 종의 순종 개들은 없고, 늑대 비슷한 개 '종류(kind)'만 있었다. '종류(kind)'대로 창조된 생물들의 모습은 타락과 노아홍수, 그리고 빙하시대를 지나면서 지금처럼 변했기 때문이다. 특별히 빙하시대 직후에는 아주 춥거나 아주 더운 지역이 생겨났기 때문에 동식물들이 새로운 '종(species)'으로 변할 수 있는 최적기였다. 물론 그 변화들은 모두 다 한 '종류(kind)' 안에서 변이(variant)이지 유전정보가 약간 늘어난 소진화

이는 모든 '종류'의 생물들은 기존에 있던 것(나타난 것)들이 변하여(진화) 된 것이 아니라 서로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으로 무에서 창조되었다. 성경이 의미하는 것은 각 종류의 생물들은 서로 관계가 없으며 따라서 사람은 독특한 존재라는 말이다(오른쪽 그림).

성경은 사람을 특별한 존재인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한다(창 1:26-27).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자기 형상으로 특별하게 창조하시고 다른 모든 생물들은 그 사람의 다스림을 받도록 하셨다.

그러므로 '종류대로'란 말은 감격스러운 표현이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형상인 사람을 구별하여 높이기 위해 창세기 1장에서 10번씩이나 강조한 말이다(사8:5).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이 사실을 숨기는데 사용되는 사단의 도구들 중에 진화론만큼 효과적인 도구 있을까?

▲이메일: mailforwschoi@gmail.com

영성칼럼



이희영 사모
(뉴저지복음성로교회)

노아의 믿음의 비밀

창세기 5장을 정리하니 놀라운 사실들이 눈에 크게 들어왔습니다. 아담은 셋을 낳았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셋이 492세 때에 하나님과 같이 동행하는 에녹이 태어납니다. 에녹은 셋, 에오스, 게난, 마할랄렐 등의 할아버지와 아버지 아벳, 아들 므두셀라와 동행하다가 아들 므두셀라 300세 때에 하나님께로 갑니다. 므두셀라는 아담부터 줄줄이 살아 계신 6명의 믿음의 할아버지들과 가까이 하나님과 동행하던 아버지 에녹과 300년을 동행하며 살았고 369세에 노아가 태어납니다. 그리고 손자 노아의 믿음의 울타리 역할을 든든히 하다가 노아가 방주를 완성하던 해에 세상을 떠납니다.

위대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룬 이들의 배경을 자세히 살펴보면 필히 그러한 인물로 세워진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이 있습니다. 하루아침에 혼자 잘라서 위대한 인물이 튀어나오기보다는 그 인물이 나오게 되는 문화와 환경이 필히 있음을 보며 하나님의 역사를 다스려 가시는 오묘함이 놀라게 됩니다. 주위 환경과 사람들의 의견에 우리 모두 민감합니다. 시대의 풍조를 거스르고 자기 믿음대로 세상을 살아가려면 시대를 뛰어넘는 믿음의 소유자여야 가능합니다. 별로 비가 오지 않는데 그것도 바닷가도 아닌 잣나무가 우거진 산꼭대기에서 대 항공모함 크기의 방주를 만든다는 것은 이 세상 보통사람으로 불가능합니다. 어떤 사람의 흔든 소리에도 끄떡없이 자신이 받은 하나님의 명령을 100% 믿음의 확신을 갖고 요동이 없어야 가능한 일입니다.

노아의 이런 절대 믿음을 위해 하나님은 믿음의 할아버지들을 준비 하셨습니다. 그들의 믿음을 위해 에녹이 300년이나 하나님과 이 세상에서 동행하다 눈앞에서 데려가시는 천국의 소망 또한 분명 시과 효과도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의심을 할래야 도무지 의심 할 수없이 3중, 4중, 5중의 조상들의 믿음의 동행입니다. 에오스, 게난, 마할랄렐, 아벳, 므두셀라 5대에 걸친 믿음의 할아버지와 아버지 라멕으로부터의 철저한 신앙교육입니다. 노아가 500세에 아이를 낳으셨으며 하나님의 명령으로 방주를 지을 때는 할아버지 869세의 므두셀라, 687세인 아버지 라멕 두 분만을 모시고 고령의 세분 할아버지들을 돌볼 의무에서 자유로워진 상태였습니다. 건강추대를 요즘의 나이로 비추어보면 대충 노아 50세경에 영육 간에 건강하신 87세 할아버지와 68세의 아버님을 모시고 아이들이 자라감과 동시에 방주를 짓는 사명을 받고 방주를 짓는 것을 올린다고 갑니다.

태어나는 순간부터 방주 짓는 가정에서 태어났기에 주위 사람들이 눈총을 주어도 오히려 그것이 자신들의 가정에 주어진 가정의 과업으로 자랑스레 여기며 온 가정의 올인이 가능했으리라 보여집니다. 마치 현대 문명을 거절하여 세상과는 담을 높이 치는 애미유 사람들이 자신들의 신앙 문화를 오랜 동안 보존하며 살아가는 모습과 같습니다. 홍수나기 5년 전에 아버지 라멕이, 홍수 나면 600세 때에 할아버지 므두셀라가 세상을 떠나, 방주에 노아를 포함한 직계후손 가족 8명(노아, 아내, 세 아들 부부)만이 방주에 들어가게 됩니다. 불신앙으로 팽배한 세상에서 100년간 방주를 지은 결과 실제로 구원받은 사람들은 자기 가족 8명뿐입니다. 허나 결국 그들로 인해 인류가 살아남게 되었으니 인류의 계승이란 사명을 해낸 노아입니다. 모든 믿음의 조상들의 열매이기도 합니다.

멸종의 위기에서 인류를 구해낸 노아를 보며 믿음의 유산의 위대한 힘을 봅니다. 노아시대에 못지않은 악이 관영하는 현 시대를 살아가는 아이들을 보며 새삼 노아를 키워낸 조상들의 믿음의 힘을 생각합니다. 이 시대의 풍조를 거슬러 천국소망을 품은 노아와 같은 차세대 사명자들이 나오길 간절히 소망하며 그들 뒤에 든든한 믿음의 뒷배가 되어야겠다고 앞드려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런 기도의 부모, 조부모들을 많이 많이 일으켜주시길 또한 간절히 기도합니다.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기타지역 교회안내

남부한인장로교회 담임목사: 송성섭 주일1부예배: 오전 9:3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8:00 금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주일 6:00 주일학교예배: 오후 11:00 Tel: (704)529-0821, Fax: (704)841-1625 목사선: (704)989-4412 3619 McKee Rd, Charlotte, NC 28270	덴버한인장로교회 담임목사: 김 유 주일아침예배: 오전 11:00 주일찬양예배: 오후 2:00 금요일기도회: 오후 7:00 Tel: (303)422-6950, Fax: (303)422-6943 7755 Kipling St, Arvada, CO 80005	몽고메리교회 담임목사: 최해근 주일1부예배: 오전 9:30 주일2부예배: 오전 10:3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주일 6:00(월-토) 매일새벽기도회: 오전 6:00 Tel: (610)222-0691, 267-471-7777 Fax: (610)222-0692 3260 Morris Rd, Lansdale, PA 19446	벅스카운티장로교회 담임목사: 김용운 주일1부예배: 오전 9:00(한국어) 주일2부예배: 오전 10:15(영어) 주일3부예배: 오전 11:30(한국어) 수요일예배: 오후 8:00 수요일찬양예배: 오후 8:00 Tel: (215)945-1512, Fax: (215)945-2095 1550 Woobourne Rd., Levittown, PA 19057	벤엘교회 담임목사: 진용태 주일1부예배(한): 오전 7:00 주일2부예배(한): 오전 8:15 주일3부예배(한): 오전 11:30 주일4부예배(한): 오전 1:45 EYM예배: 오전 10:00 수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Tel: (410)461-1235, Fax: (410)461-6823 3165 St. Johns Lane, Elllicott City, MD 21042	보스턴장로교회 담임목사: 전덕영 주일한국어예배: 오전 11: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6:00 금요일기도회: 오후 8:00 EYM예배: 오후 8:00 수요일예배: 오후 8:00 주일학교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전 10:00 Tel: (508)425-4579, Fax: (508)435-5467 2 Main St, Hylkinton, MA 01748	볼티모어교회 담임목사: 이영섭 주일1부예배: 오전 8:30 주일2부예배: 오전 10:0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전 12:50 Tel: (410)337-9448, 882-0181, Fax: 337-9446 1600 Seminary Ave, West, Lutherville, MD 21093
샬럿장로교회 담임목사: 나성균 주일새벽기도회: 새벽 6:00 주일아침예배: 오전 10:45 수요일찬양예배: 오후 8:00 주일학교예배: 오전 12:10 주일학교예배: 오전 11:00 중, 고등부예배: 오전 11:00 Tel: (704)529-0900 / 0998(백스칼로) 701 Sealeybark Road, Charlotte, NC 28209	새시온침례교회 담임목사: 정용교 주일1부예배: 오전 8:30 주일2부예배: 오전 10:00(영어)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수요일찬양예배: 오후 7:00 Tel: (360)456-0191 6007 Pacific Ave, SE P.O. BOX 8358 Lacey, WA 98509	시애틀평강장로교회 담임목사: 박은일 주일아침예배: 오전 10:00 주일2부예배: 오전 11:15 수요일찬양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토요일예배: 오전 6:30 Tel: (206)527-0981, Fax: (206)524-1746 4040 N.E. 105th St, Seattle, WA 98125 www.kpcssattle.org	알칸사 제자교회 담임목사: 전남수 주일아침예배: 오전 11:30 주일2부예배: 오전 4: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금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Tel: (410)203-9049, 사번: (410)425-5178 600 Kirby Rd, Little Rock, AR 72211 www.jrasc.com	앵커리지델리문교회 담임목사: 유재일 주일1부예배: 오전 10: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영어예배: 오전 11:00 주일학교예배: 오후 2:00 수요일예배: 오후 7:00 Tel: (907)344-6446, Fax: (907)344-3182 8220 Briarwood St, Anch, AK 99518	엘파소델리문교회 담임목사: 하태수 주일1부예배: 오전 9:00(영어)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후 7:30 Tel: (915)755-1490, 타번호: (915)751-4365 3416 Atlas Ave, El Paso, TX 79904	영생장로교회 담임목사: 이용걸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주일3부예배: 오전 12:00 주일4부예배: 오후 2:30 수요일예배: 오후 8:00 금요일기도회: 오후 8:00 Tel: (253)542-0288, Fax: (253)542-9037 706 Witmer Rd, Horsham, PA 19044
온누리교회 담임목사: 김성현 주일1부예배: 오전 11:00 주일2부예배: 오후 7:00 금요일찬양예배: 오후 8:00 Tel: (254)634-8705, (254)501-4933 408 N. 8th St, Killean, TX 76541	워싱턴메시야장로교회 담임목사: 한세영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후 1:30(EM) 수요일예배: 오후 8:00 금요일기도회: 오후 7:45 새벽예배: 오전 5:30(월-토) Tel: (703)941-4447, Fax: (703)941-4448 4313 Markham St, Annandale, VA 22003	주예수교회 담임목사: 배현찬 주일1부예배: 오전 8:0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8:00 수요일찬양: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6:00(토) Tel: (860)643-4738, Fax: (860)674-0565 10201 Robius Rd, Richmond, VA 23235	큰루터교회 담임목사: 나광삼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후 2: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 오전 5:30(월-토) www.josephsvision21.org 매일저녁4시(금, 토, 주일) Tel: (410)203-0516, Fax: (410)203-0512 3264 Corporate Court Elllicott City MD 21042	타코마 삼일교회 담임목사: 정태근 주일1부예배: 오전 8:3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전 10: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새벽 5:30(월-토) 새벽 6:00(토) Tel: (253)565-1069 7461 S. Verde St, Tacoma, WA 98409	타코마새생명교회 담임목사: 임규영 주일1부예배: 오전 8:0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후 2:00(말만) Tel: (253)535-6207, 531-8424 www.hwchurch.org 9702 E. B St, Tacoma, WA 98445	타코마 한인장로교회 담임목사: 김수명 1부예배: 오전 9:3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후 1:00 주일4부예배: 오후 7:00 금요일기도회: 오후 7:0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Tel: (253)536-6675, Fax: (253)474-9515 www.hwchurch.org 2122 Metcalf St, Honolulu, HI 96822
템피조교회 담임목사: 윤정용 주일1부예배: 오전 8:30 주일2부예배: 오전 9:30(EM) 주일3부예배: 오전 10:50 주일4부예배: 오전 12:10 주일5부예배: 오후 2:00(말만)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오전 6:30(토) www.kpcraz.com Tel: (480)728-0191, Fax: (480)857-3907 1150 S. Dobson Rd, Chandler, AZ 85286	하트포드제일장로교회 담임목사: 김선만 주일1부예배: 오전 8:30 주일2부예배: 오전 10:00 주일3부예배: 오전 12:00 수요일예배: 오후 7:45 새벽기도회(금-토) 오전 5:30(토) 오전 6:00 Tel: (860)643-4738, Fax: (860)674-0565 300 Chapel Road Manchester, CT 06040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하와이지역 담임목사: 이남수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후 1:30 수요일예배: 오후 7:0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Tel: (808)735-0011 1635-A Palolo Ave, Honolulu, HI 96816	에덴장로교회 담임목사: 송창현 주일아침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7:0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Tel: (808)739-1004, Cell: (808)218-4592 1053 6th Ave, Honolulu, HI 96816	하와이 한국교회 담임목사: 김순환 주일예배: 오전 11: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7:00 새벽기도회: 오전 6:00(토) Tel: (808)277-2936, 557-1778, 542-2922 1351 S. Beretania St, Honolulu, HI 96814	호놀룰루한인장로교회 담임목사: 조일구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후 1:30(영어) 주일4부예배: 오후 7:00 수요일예배: 오후 7:00 금요일기도회: 오후 9:00 Tel: (808)947-5252, Fax: (808)947-5151 www.hnwchurch.org 2122 Metcalf St, Honolulu, HI 96822	

사랑의 쌀 모금 21일 3만3,120달러

사랑의쌀 나눔운동본부 발표... 마감 12월말

남가주 사랑의 쌀 나눔 운동본부가 불우이웃 돕기 일환으로 진행하고 있는 '2012년 사랑의 쌀 나눔운동'에 한인들의 운정이 모아지고 있다.

사랑의 쌀 운동본부에 따르면 21일 현재 입금액과 약정액을 합해 3만3,120달러가 모금됐다. 후원금 접수기간은 오는 12월 31일(월)까지이며 12월 2일(주) 저녁 7시 주님의영광교회(담임 신승훈 목사)에서 다민족 나눔을 시작으로 22일(토)과 23일(주) 오전 11시부터 오후 2

날짜	구분	후원자	입금액
11-21	개인	Dae Young Kim	80.00
	개인	Hak Sung Lee	10.00
	선교단체	AIM Ministry(테드함 선교사)	100.00
	개인	김은옥	20.00
	개인	용수산	300.00
입금총액			510
누계입금액+약정액=11월 21일 현재			33,120.00

시까지 총영사관을 비롯 지정 배부 후원금 문의는 (213)384-5232로 교회 외 20여 곳에서 나눔의 시간을 갖게 된다.



미주장신대학교 개교 35주년 기념 감사예배 및 후원의 밤이 옥스포드팔레스 호텔에서 열렸다. 사진은 찬양하고 있는 본교총장단

“미국내 한인명문신학교로 성장되길”

미주장신대 개교35주년기념 후원의 밤 성황

미주장로신학대학교(총장 이상명 박사) 개교 35주년 기념 감사예배 및 후원의 밤이 지난 20일 오후 7시 옥스포드 팔레스 호텔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연회 식사를 비롯해 찬양, 무용, 연주, 간증 등의 다양한 순서가 마련됐다.

행사를 위해서 본교 동문, 교계 인사, 크리스천 사업가, 언론사 인사 등 300여 명이 참석해 축하와 더불어 후원금을 전달했으며, 행사에 참석하지 못한 타 지역과 고국에

거주하는 많은 후원자들이 예정 어린 후원의 약속을 전하는 감사와 사랑이 넘치는 시간들로 채워졌다. 이상명 총장은 참석 인사들의 학교에 대한 끊임없는 관심에 감사의 마음을 전하면서 “21세기 이민 문화현장과 복합 문화사회, 그리고 세계 선교현장을 이끌 우수한 영적 지도자들을 양육하기 위한 산실로서 본교가 발돋움하기 위한 뜻 깊은 자리를 마련했다”고 본 행사의 취지를 설명했다. “미국 내 한인 명문 신



목회서신

문병용 목사
(유니온교회 담임)

강통을 보며

강통을 가보려면 여기는 할아버지가 있었습니다. 한 되 정도 들어갈 크기의 강통을 선반위에 얹어놓고, 수시로 쳐다보기도 하고 깨끗이 닦아두기도 했습니다. 할아버지가 강통을 애지중지 하는 데는 사연이 있었습니다. 할아버지의 고향은 생황이 안정되었습니다. 6.25 사변 때 남쪽으로 피난을 왔습니다. 전쟁통에 가진 것을 다 잃었습니다. 피난길에 어느 산길에서 미군이 먹다버린 강통을 하나 주었습니다. 강통을 깨끗이 씻어서 밥을 얻어먹기도 하고 물을 끓여먹기도 했습니다. 전쟁이 끝날 때까지 강통은 생활필수품이 되었습니다. 때로는 솔로, 때로는 냄비로 사용했습니다. 종전이 되고 자리를 잡으면서 생활이 안정되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강통을 사용하지 않아도 될 정도가 되었습니다. 솔도 사고 냄비도 사고 다른 가재도구도 마련했습니다. 하지만 강통에 대한 애착은 떠나지 않았습니다. 삶이 어려울 때마다 강통을 보면서 힘을 얻었습니다. 강통을 보면 늘 고맙기만 했습니다.

효자와 불효자의 차이는 간단합니다. 불효자는 부모님이 자신에게 해주지 못한 것만 생각합니다. 잘 먹

이지 못한 것, 잘 입하지 못한 것, 용돈 넉넉히 주지 못한 것, 선물 사주지 않은 것, 좋은 곳 구경시켜주지 않은 것 등등. 반면에 효자는 부모님이 베풀어주신 것을 생각합니다. 자녀를 위해 고생하신 것을 생각합니다. 낳아주시는 것, 키워주시는 것, 먹이고 입혀주시는 것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살아가면서 없는 것만 생각하면 마음 편할 날이 없습니다. 남과 비교해서 가지지 못한 것, 누리지 못하는 것을 생각하면 늘 우울할 수밖에 없습니다. 불평이 떠나지 않게 됩니다. 삶은 완쾌해지고 인생은 의미를 잃게 됩니다. 하지만 남아있는 것이나 누리고 있는 것을 생각하면 감사할 수 있습니다. 남보다 덜 가져도 남보다 덜 누려도 괜찮습니다. 있는 것으로 만족하고 감사할 수 있다면 그 자체로 행복한 삶입니다. 불평하면 오던 행복도 떠나가지만 감사하면 가던 행복도 되 돌아옵니다. 행복은 또 다른 행복을 낳게 됩니다. 가진 것 누리는 것을 생각하며 감사할 때, 우리 삶은 행복이 머무는 등지가 될 것입니다.

아프리카 아동을 위한 사랑나눔 콘서트

굿네이버스 주최 남가주장로성가단 등 출연

굿네이버스가 주최한 “아프리카 아동을 위한 사랑나눔 콘서트”가 지난 25일 저녁 7시30분 엘바인에 위치한 뉴송처치(담임 데이브 기븐스 목사)에서 열렸다.

2006년 미스코리아 이하나 씨의 사회로 열린 이날 콘서트는 남가주 장로성가단(단장 정도영 장모)와 KAMA소년소녀 합창단(단장 류지원)이 출연했으며 베이스 장진영 씨

13개팀 참가...사랑의교회 특상 수상

필라기독교방송 복음성가대회 성료

필라기독교방송국(사장 전영현 목사)이 주최한 제10회 복음성가 경연대회가 23일 오후 7시 필라제일장로교회(담임 강학구 목사)에서 13개 팀이 참여한 가운데 성대히 개최됐다.

1부 예배는 강승호 목사(운영이사) 사회로 백홍기 장모(운영이사) 기도, 조진모 목사(필라한인연합교회 담임)가 “창조의 목적이 무엇?”(사43:21) 제목으로 설교했으며 전영현 목사의 인사가 있었다.

이어 조 준 전도사와 전소는 집사 사회로 출전한 13개 교회가 열띤 경쟁 끝에 “하나님의 은혜” 찬양을 부른 사랑의교회가 특상과 부상을 받았다. 기타 팀들이 트로피와 부상을 받았다.

이날 경연대회에는 필라 교협회장, 목사회 회장, 장로회회장, 한인회장, 남부뉴저지인회회장, 평통회장 등 각 기관장과 업체들이 참석해서 대회를 빛냈다.

학교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이민 사회와 교회와의 협력관계 구축과 지속적인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라며 기독교 기관, 단체, 성도들의 지속적이고 애정 어린 관심과 후원을 호소했다.

이날 박총기 학생처장의 사회로 시작된 1부 예배는 이상훈 해외한민장로회(KPCA) 서노회장이 기도했으며 서정은 4대 총장이 시편 11편3절을 본문으로 설교했다.

또한 3부 순서에서는 이호준 교수와 조혜정 교수가 피아노 연주를 했으며 박정숙 전도사가 재학생 간증을, 김현구 목사가 동문 간증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후원의 밤은 참석자들을 위한 이벤트도 열렸는데 ‘미주장신’이라는 단어로 사행시 짓기 게임을 통해 ‘우수사행시 선발전’을 갖기도 했다.

향후 학교의 후원에 관한 자세한 문의는 미주장로신학대학교(562-926-1023 www.pts.edu)로 하면 된다.

(박준호 기자)

와 제9회 미주한국동요진흥재단 동

요부르기 대회 대상수상자 신현우 어린이, 그리고 CCM가수 최윤영 씨가 출연해 아름다운 찬양을 선사했다.

이날 콘서트는 ‘아름의 축복’과 ‘당신을 향한 노래’를 이날 모인 모두가 함께 부른 후 마쳤다.

(박준호 기자)

참가팀 명단은 양수영(비브리칼신학교), 오세미(트랜트장로교회), 최진아(벽스카운티장로교회), 서수진(텔라웨어한인장로교회), 이유현(필라라한빛교회), 오호석(영성장로교회), 박원아(뉴저지비대니교회), 조승우와 2명(사랑의교회), 곡계규와 5명(제일장로교회), 오인순(트랜트장로교회), 전제이(서광장로교회), 이찬규(순복음중앙교회), 필라안디옥교회 18명이 참가했다.

이날 특별찬양으로 김영환 테너, 1회 대회 대상자 전지은 전소는 자매가 공연했다.

(기사제공: 필라기독교방송국)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서부(CA) 교회안내

<p>감사한인교회 담임목사 : 김영길 주일 1부예배: 오전 7:45 주일 2부예배: 오전 9:45 주일 3부예배: 오전 11:45 평일예배: 오전 7:00 금요찬양예배: 오후 7:30 www.thanksgivingchurch.com Tel: (714)521-0991, Fax: (714)521-4636 6959 Knott Ave., Buena Park, CA 90620</p>	<p>나성순복음교회 담임목사 : 진유철 주일 1부예배: 오전 7:45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오후 1:30(영성) 주일영양예배: 오전 11:30 수-금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 오전 5:30(월-토) lalgcusa@yahoo.com / www.lalgc.com Tel: (323)913-4499, Fax: (323)913-4494 1750 W. Edgemont St., L.A., CA 90027</p>	<p>나성열린문교회 담임목사 : 박희성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 주일 4부예배: 오전 12:30 주일영양예배: 오전 10:00 찬양예배: 오후 3:30 Tel: (213)413-1600, (F) (213)413-1911 1925 Wilshire Blvd., L.A., CA 90057 www.isaopdoor.org</p>	<p>나성영락교회 담임목사 : 박희민 주일 1부예배: 오전 7:00 주일 2부예배: 오전 8:20 주일 3부예배: 오전 9:40 주일 4부예배: 오전 11:10 주일 5부예배: 오후 12:30 주일 6부예배: 오후 2:00(청년) 새벽기도: 5:30(월-금), 6:30(토) 1721 N. Broadway Los Angeles, CA 90031 Tel: 323-227-1400 / Fax: 323-227-0718 www.youngnak.com</p>	<p>나성서부교회 담임목사 : 이정현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찬양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45(화-금) 오전 6:00(토) Tel: (323)939-7323, (F) (323)939-1656 1218 S. Fairfax Ave., L.A., CA 90019 (Pico+Fairfax)</p>	<p>나침반교회 담임목사 : 민경엽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금요찬양예배: 오전 5:30 주요일예배: 오전 11:00 금요찬양예배: 오후 1:30 수요찬양예배: 오후 7:00 Tel: (562)691-0691, (F) (562)691-0698 1200 W. Lambert Rd., Brea, CA 92821 (Lambert + Puente) / www.nachimban.org</p>	<p>남가주든든한교회 담임목사 : 김현민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요일예배: 오전 11:30 주요일예배: 오전 11:00 금요찬양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5:40(화-금) Tel: (213)481-2779 / Fax: (213)481-3761 1645 Beverly Blvd., Los Angeles, CA 90026 LAsolidrock@gmail.com</p>
<p>남가주리더교회 담임목사 : 김요섭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목요예배: 오후 7:00 새벽예배: 오전 6:00(화-토) www.scrdm.org Tel: (213)152-8523, Fax: (213)877-1183 1838 S. Western Ave., L.A., CA 90018</p>	<p>남가주사랑의교회 담임목사 : 노창수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10 주일 3부예배: 오전 11:10 (Holywave) 영어예배 (KOC) 한국어예배 주일 4부예배: 오후 1:10 Tel: (714)772-7777, Fax: (714)772-0777 1111 N. Brookhurst St., Anaheim, CA 92801</p>	<p>대흥장로교회 담임목사 : 권영국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11:00 주일 3부예배: 오전 10:50 새벽기도회: 오전 6:00 금요일예배: 오후 7:30 Tel: (310)719-2244, Fax: (310)719-2229 15411 N. Figueroa St., Gardena CA 90248 www.dkpc.org</p>	<p>등문교회 담임목사 : 최태우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영양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오전 6:30(토) 금요찬양예배: 오후 7:45 Tel: (213)483-6625, Fax: (213)483-6675 1901 Beverly Blvd., Los Angeles, CA 90057</p>	<p>동양선교교회 담임목사 : 박형은 1부 아침예배: 오전 8:00 2부 전통예배: 오전 9:30 3부 주일예배: 오전 11:00 목요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Tel: (323)466-1234, Fax: (323)466-0816 424 N.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04</p>	<p>디아스포라선교회 Korean Diaspora Mission Center 대표: 전영자 목사 “세계에서 흩어져 있는 우리의 동족을 위해 일하는 선교회” 목요예배: 저녁 8:00 주요일예배: 오전 11:00 Tel: (213)559-7728 (55th & 녹스), Tel: (213)210-6890 1213 Gabriel Garcia Marquez St., #B L.A., CA 90033</p>	<p>드림교회 담임목사 : 이정현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영양예배: 오전 9:30 영양예배: 오전 11:30 새벽기도회: 오후 2:00 금요찬양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Tel: (626)793-0880, 0200 Fax: (626)793-6412 1305 E. Colorado Rd., Pasadena, CA 91106</p>
<p>삼성장로교회 담임목사 : 신원규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목요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 오전 5:30(월-금) 새벽기도: 오전 6:30(토) 중, 고, 대, 청년부: 오후 7:30(금) www.samsungchurch.org Tel: (562)690-9800, Fax: (562)690-8044 501 S. Ldaho St., La Habra CA 90631</p>	<p>미주양곡교회 담임목사 : 지용덕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수요예배: 오후 7:30 금요예배: 오후 7:00 새벽기도: 오전 5:30(월-토) Tel: (213)380-9377, 9079 519 S. Western Ave., L.A., CA 90020</p>	<p>미주 평안교회 담임목사 : 송정명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영양)예배: 오전 9:45 3부: 오전 11:30 (청년부)예배: 오전 11:45 새벽기도회: 오전 6:00 www.mjpeacechurch.org Tel: (213)381-2202, Fax: (213)381-2535 170 Bimini Pl., Los Angeles, CA 90004</p>	<p>베델한인교회 담임목사 : 손인식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 주일 4부예배: 오전 11:30 주일 5부예배: 오후 1:00(청년) 청, 장년영양예배: 오전 11:30 오전 1:30 Tel: (949)854-4010 / E-mail: bethe@bkc.org 18700 Harvard Ave., #A Irvine, CA 92612 www.bkc.org</p>	<p>밴쿠버빌라델리아교회 담임목사 : 임진택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후 1:30 수요예배: 오후 7:00 새벽기도: 오전 6:00(월-토), 7:30(토) Tel: (604)584-5780, Fax: (604)584-5717 9135 132nd St., Surrey, B.C. Canada, V3V 5P6 www.bkc.org</p>	<p>복음장로교회 담임목사 : 김상덕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1:00 영양예배: 오전 2:00(대학부) 금요예배: 오후 7:30 Tel: (562)694-6214 1751 W. La Habra Bl., La Habra, CA 90631</p>	<p>브리지교회 담임목사 : 장세경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요일예배: 오전 9:00 주요일예배: 오전 11:15 주요일예배: 오전 11:30 금요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5:30 Tel: (626)339-6177 1067 E. Badillo St., Covina, CA 91724</p>
<p>세계비전 교회 담임목사 : 김영민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30 주요일예배: 오전 9:00 영양예배: 오전 11:00 금요찬양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15(월, 금) Tel: (818)363-5897, Fax: (714)446-6207 18514 Rinaldi St., Northridge, CA 91326</p>	<p>세계소망교회 담임목사 : 오세훈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요일예배: 오전 11:30 수요예배: 오후 7:30 금요예배: 오후 7:00 새벽기도: 오전 5:30(월-토) Tel: (213)745-9191(CA), 사행(818)893-8607 824 W. Venice Blvd., L.A., CA 90015</p>	<p>안디옥장로교회 담임목사 : 지용성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전 12:30(영양) 주요일예배: 오후 1:45 금요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 오전 5:30 새벽기도: 오전 11:00 Tel: (818)249-2871, Fax: (818)249-0516 www.laopc.org 2720 Montrose Ave., Montrose, CA 91020</p>	<p>얼비인침례교회 담임목사 : 한중수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요일예배: 오전 11:00 주요일예배: 오전 11:30 주요일예배: 오전 11:45 주요일예배: 오전 1:3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토) www.irvinechurch.org Tel: (949)857-9425 / Fax: (949)857-9472 5101 Walnut Ave., Irvine, CA 92604</p>	<p>오렌지카운티제일장로교회 담임목사 : 엄영민 주일 1부예배: 오전 8:15 주요일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10:00 영양예배: 오후 11:30 새벽기도: 오전 5:30(월-토) Tel: (714)891-2029 / Fax: (714)373-3097 8500 Bolsa Ave., Westminster, CA 92683</p>	<p>요셉선교교회 담임목사 : 정성호 주요일예배: 오전 11:00 주요일예배: 오전 11:30 금요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새벽 5:30 Tel: (213)245-4090 301 S. Kingsley Dr., 2F-B L.A., CA 90020</p>	<p>월서크리스천교회 담임목사 : 엄규서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요일예배: 오전 9:45(영양) 금요예배: 오전 11:00(청년부) 주요일예배: 오후 2:00(다민족찬양) 새벽기도회: 오전 5:40(화-토) 주요일예배: 오전 11:00 토요일예배: 오후 8:00 Tel: (213)384-7274, Fax: (213)384-9638 3435 Wilshire Blvd., #101 L.A., CA 90010</p>
<p>은혜한인교회 담임목사 : 한기홍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요일예배: 오전 11:30 주요일예배: 오후 2:00 금요찬양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 오전 5:30(월-금), 6:00(토) 은혜새벽기도: 365일 24시간 www.gracem.com Tel: (714)446-6207, Fax: (714)446-6207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p>	<p>인랜드교회 담임목사 : 박신철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요일예배: 오전 9:15 주요일예배: 오전 11:45 주요일예배: 오전 11:30 수요예배: 오후 7:30 금요예배: 오전 11:45 새벽기도: 오전 5:30(월-토), 6:30(토) www.inlandchurch.org Tel: (909)622-2324, Fax: (909)622-1480 1101 N. Glen Ave., Pomona, CA 91768</p>	<p>주님의영광교회 담임목사 : 신승훈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요일예배: 오전 9:30 주요일예배: 오전 10:30 주요일예배: 오전 11:00 수요/금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금) Tel: (213)749-4500, Fax: (213)749-6700 1801 S. Grand Ave., L.A., CA 90015 www.gpc.org</p>	<p>창대교회 담임목사 : 이준준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요일예배: 오전 11:00 주요일예배: 오전 11:30(영양) 주요일예배: 오후 4:0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토) 수요찬양예배: 오후 7:30 www.gpc.com Tel: (909)388-2840, Fax: (909)388-2841 173 E. Dumas St., San Bernardino, CA 92408</p>	<p>코너스톤 교회 담임목사 : 이종용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요일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토) www.corneston.org / e-mail: pastor@acorneston.com Tel: (310)530-4040(CA), Fax: (310)530-9400 2428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2303</p>	<p>토렌스조은교회 담임목사 : 김바울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요일예배: 오전 9:00 주요일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토) www.torrencecc.org Tel: 310-370-5500, Fax: 310-370-2009 19950 Mariner Ave., Torrance, CA, 90503</p>	<p>미주크리스천신문 과 함께할 후원회회를 찾습니다 L.A.: Tel: (323)665-0009 Fax: (323)665-0046 N.Y.: Tel: (718)886-4400 Fax: (718)886-0074 www.chpress.com</p>



동부교계 기사판



뉴욕목사회 임원구성 완료

제 41회 정기총회, "편견 버리고 사랑과 화합으로 섬기겠다"

대뉴욕지부한인목사회(회장 최예식 목사) 제41회기는 요한일서 4장 11절("사랑하는 자들이 하나님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를 성구로 "서로 사랑하며 섬기는 목사회"를 표어로 삼고 다음과 같이 임원구성을 완료했다.

△회장: 최예식 목사(복된교회) △부회장: 황동익 목사(뉴비전교회) △총무: 김기호 목사(중앙장로교회) △서기: 임병남 목사(뉴욕평화교회) △부서기: 김해근 목사(온누리영광교회) △회계: 전희수 목사(기쁨과영광교회) △부회계: 캐더린 목사(기쁨과영광교회) △수

석협동총무: 이재덕 목사(뉴욕사랑교회) 허운준 목사(뉴욕새생명교회), 조병광 목사(뉴욕새하늘교회) △감사: 김상태 목사(주님의교회), 김진화 목사(미래비전교회), 한준희 목사(뉴욕성원교회).

이성은 자매 21일 집으로 퇴원



안락사 위기로 문제가 됐던 이성은 자매(뉴욕순복음안디옥교회)가 지난 21일 오후 1시 노스쇼어 병원에서 퇴원해 더글라스톤에 있는 자택으로 옮겨졌다.

아버지 이만호牧사는 "이렇게 되기까지 열심히 기도해주시고 관심을 가져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성은 자매는 지난 9월 노스쇼어 병원에 입원한 후 안락사 문제로 뉴욕교계 뿐 아니라 뉴욕 미국언론에서도 이슈가 된 바 있다. 그동안 호전상태에 있던 이성은 자매는 약물투여로 인해 수일 간 코마상태에 들어갔으나 이를 전부터 의식이 돌아와 이날 퇴원했다. (유원정 기자)

는 김인식 목사의 사회로 노성복 목사의 기도, 김남수 목사의 설교, 한재홍 목사의 축도, 김홍석 목사의 인사와 개회 선언 등으로 진행됐다. (유원정 기자)



우승팀 '티벳뉴욕'과 준우승팀 '웨체스터장로교회' 선수들이 기념촬영 했다

축구 통해 타민족에 복음전파 제5회 미동부 친선축구대회 우승 '티벳뉴욕'

한인동포와 타민족이 함께 하는 축구대잔치 '제5회 미동부 친선축구대회'가 추수감사절인 22일 다민족 7개 팀과 한국교회 4개 팀 총 11개 팀이 참가한 가운데 열렸다. 우승컵은 티벳뉴욕 팀에게 돌아

갔으며 2등은 웨체스터장로교회 팀이 차지했다. 최우수선수(MVP)는 티벳뉴욕의 타시(Tashi)가 받았다. 이날 '웨체스터장로교회' 팀은 3회 대회 우승팀인 '후러싱제일교회' 팀을 3대 2로 물리치고 결승에 진출했

으나 발 빠른 티벳뉴욕의 타시 선수를 막지 못했다.

뉴욕의 랜달스 아일랜드파크에서 열린 이 축구대회 참가 다민족팀은 아르헨티나, 티벳, 폴로비아, 아프리카 가나스탄(2팀), 네팔, 에콰도르이며 한국교회팀은 프라미스교회, 웨체스터장로교회, 후러싱제일교회, 뉴욕성결교회 등이다.

이 축구대회는 다민족선교와 미주 기독교방송(KCBN, 시장대행 문석진 목사) 후원을 위해 뉴욕목회자축구단(단장 김홍석 목사)이 주최한 것으로 내년부터는 20여개 팀을 초청해 국제대회로 치를 예정이라고.

우승팀에게는 트로피와 500달러의 상금, 준우승팀에게는 트로피와 300달러의 상금, 최우수선수에게는 트로피가 각각 주어졌다. 한편 대회에 앞서 드린 개회예배

뉴욕장로성가단 손성대 단장 연임 후원이사회도 김영호 이사장 선임

뉴욕장로성가단(단장 손성대 장로, 지휘 이정진 장로)이 정기총회 및 후원이사회 정기총회를 연이 이 갖고 새로운 도약을 다짐했다. 뉴욕장로성가단은 지난 20일 퀸즈한인교회(담임 이규섭 목사) 연습실에서 제 16회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새 임원을 선출했다. 선출된 2년 임기의 임원들은 다음과 같다.

△단장 손성대(연임) △부단장 박용기(전 단장, KCTS 부회장), 오승환(치과의사) △감사 유시수(전 교협부회장), 홍대순(내과의사), 21명의 단원들이 참석한 이날, 이사회(이사장 김영호 장로)에서 후원회(전담이) 있었다.



뉴욕장로성가단 후원이사회 제1회 정기총회를 마치고 참석자들이 기념촬영 했다.

△단장 손성대(연임) △부단장 박용기(전 단장, KCTS 부회장), 오승환(치과의사) △감사 유시수(전 교협부회장), 홍대순(내과의사), 21명의 단원들이 참석한 이날, 이사회(이사장 김영호 장로)에서 후원회(전담이) 있었다.

통해 모금운동(목표액 25만달러)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총회에 앞서 드린 예배는 단장 이규섭 목사(퀸즈한인교회 담임)가 맡으며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마10:42-52)를 전했으며 장로성가단의 찬양, 이사회 행사보고, 결산보고, 2013년 예산안과 사업계획의 순서로 진행됐다. 이날 참석한 단장 손성대 장로는 "늘 기도와 물질로 후원해주는 이사회에 심심한 감사"를 표명했다. 장로성가단 송년감사 예배는 오는 12월 11일(화) 오후 7시 플라싱 대동연회장에서 열린다. (기사제공 : 뉴욕장로성가단)

윤복희 권사 찬양 및 간증집회 뉴욕선의선교회/뉴욕선교사의집 설립10주년 기념

뉴욕선의선교회/뉴욕선교사의 집(회장 최문섭 장로, 이사장 성기로 장로)이 설립 10주년을 맞아 '윤복희 권사 찬양 및 간증집회'를 열었다. 지난 25일 저녁 퀸즈한인교회(담임 이규섭 목사)에서 첫 집회가 열렸으며, 28일에는 뉴욕에일장로교회(담임 김중훈 목사), 30일에는 뉴저지찬양교회(담임 허봉기 목사)에서 집회가 계속 열렸다.



윤복희 권사초청 집회를 마치고 참석 목회자들과 뉴욕선교사의집 관계자들이 기념촬영 했다.

6년 만에 뉴욕을 찾은 윤복희 권사는 찬양과 더불어 뮤지컬 공연의 하이라이트를 보여주고 하나님을 만나 변화한 모습을 간증하며 자신에게 변화의 삶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전했다. 뉴욕선의선교회는 한국의 선의복지재단의 지원으로 10년전 설립됐으며 6년 전부터 플라싱에서 뉴욕선교사의 집을 운영해 뉴욕을 방문하는 선교사들에게 쉼터를 제공하고 있다. 연평균 2백여 명의 선교사들이 이용해왔으며 교회나 선

교단체들과 선교현장 정보공유, 선교사 자녀교육과 의료진료 등도 돕고 있다. 회장 최문섭 장로는 "뉴욕을 경유하는 선교사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으며 평신도 선교사가 대폭 확장에 따라 선교사의 집을 확대하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하다"며, "선교사의 집 확장을 위한 자금미련을 위해 이번 집회를 개최하게 됐다"고 말하고 또, 10주년을 맞아 한인선교사 영적 물류 종합센터를 마련하려는 장기복안도 소개했다. (유원정 기자)

쉐퍼드 콰이어 오페라단 정기 연주회

쉐퍼드콰이어오페라단(단장 박요셉, 지휘 최경덕) 2012년 정기연주회가 지난 25일 오후 7시 필라델피아 교회(담임 조병우 목사)에서 필라, 뉴저지, 뉴욕 등지에서 온 80여명 단원들이 참여한 가운데 열렸다. 이날 강승호 목사 기도로 시작된 연주회에서 "참 좋은 하나님", "나를 인도하신 목사" 등 약 13곡의 찬양곡을 불렀고 앵콜을 받기도 했다. 이날 필라 기독교방송을 위한 헌금

시간이 있었으며 전영현 필라기독교방송 사장의 인사말이 있었다. 이날 연주회는 조병우 목사(필라델피아 교회 담임) 축도로 마쳤다. 쉐퍼드 콰이어 오페라단은 찬양을 사랑하는 가정들이 모여 4년 전 창단됐으며 현재 미국내 5개 지역에서 150여 단원들이 매주 2회씩 연습을 하고 매년 정기 연주회를 갖고 있다고 한다. (기사제공: 쉐퍼드콰이어)

Table with church announcements including names, addresses, and contact info for various churches like 뉴욕젯세미나교회, 뉴욕목양장로교회, 리빙스톤교회, etc.

남가주목사회 신임회장 이운영 목사 제46회 정기총회, 회관건립 추진 등 발표

남가주한인목사회(회장 김영대 목사)는 27일 제46회 정기총회를 한미장로교회(담임 이운영 목사)에서 열고 신임회장에 이운영 목사를 선출했다. 신임 이운영 회장은 “그동안 눈물과 땀과 기도로 일궈온 목사회 회장으로 선출해주셔서 감사한다.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바를 이루기 위

해 최선을 다하겠다. 재정문제는 투명하게 다루려고 한다. 전임 김영대 목사가 취임할 때 했던 기독교회관 문제는 건립위원회를 만들어 건립에 전념할 수 있는 자들을 세우고자 한다. 추진위원들을 세워 기독교회관 건립에 전념하게 할 것이고 목사회 임원은 목사회 일에 전념하게 하겠다”고 말하며 “목사회가 좋아졌다,

아름다웠다. 섬길 분들 수고했다는 말을 듣는 목사회 되도록 노력하겠다. 많이 격려하고 책망하여 목사회가 바로설수 있도록 협조 바란다”고 취임소감을 밝혔다. 목사회 총회는 당초 수석부회장인 이우형 목사가 회칙에 의거해 자동적으로 회장을 승계하게 돼있지만 이 목사가 2013년 초에 한국으로 사역지를 옮기게 될 예정이어서 부득이하게 수석부회장직을 사임하게 됐다. 따라서 회장과 수석부회장이 공석이 될 것을 우려해 총회 전 열린 임원회에서 회장을 선출하

고 추후 수석부회장을 선출하기로 결의했다. 이날 총회는 허귀암 총무의 사회로 1부 예배를 시작해 전석호 부회장이 기도, 김사무엘 증경회장이 ‘바울의 회개’(갈6:11-17)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김영대 회장이 축도했다. 이어 김영대 회장 사회로 열린 총회는 개회기도, 회원점명, 개회선언, 회순통과, 전회의록 낭독, 활동보고, 감사보고, 회계보고, 회칙통과, 공천위원회 보고, 선거위원회 선정, 선거, 당선공포, 신구회장 교체 인사 및 신구임원 인사, 안건토의회의록 채택 등으로 이어졌다. 한편 감사보고 및 회칙개정시간에는 약간의 고성이 오가는 소란이 일어나기도 했다. 이날 총회는 류당렬 증경회장의 축도로 마쳤다. <박준호 기자>



남가주한인목사회는 제46회 정기총회를 마치고 참가자들이 단체사진을 찍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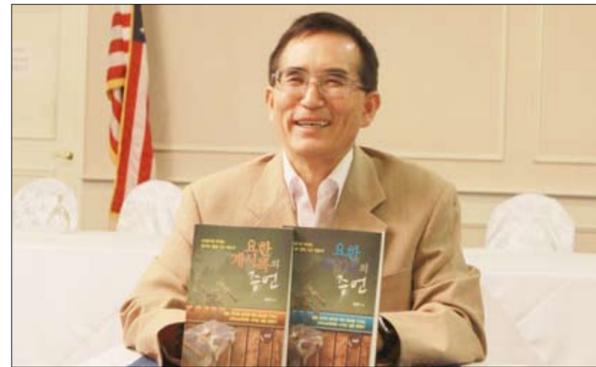


갈보리민음교회에서 개최한 청년토크콘서트에서 이재철 목사가 말씀을 전하고 있다

갈보리민음교회 청년 토크콘서트 강사 이재철 목사 ‘선복음 후교회’ 주장

갈보리민음교회(담임 강진웅 목사)는 이재철 목사(한국100주년기념교회 담임)를 강사로 초청한 가운데 청년토크콘서트를 21일 저녁 7시 개최했다. 강진웅 목사의 사회로 시작된 이날 콘서트는 이재철 목사가 ‘새로운 출발’(마4:1-11, 13:13-21)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한 후 참여자들이 서면으로 작성한 질문에 답변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재철 목사는 “신약성경의 순서는 복음서와 사도행전 그리고 서신 등으로 이어진다. 이는 교회는 복음

이 선행해야 하고 그 바탕으로 교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 즉 ‘선복음 후교회’가 돼야 한다. 그러나 오늘날 교회의 쇠퇴현상 원인은 ‘선교회 후복음’이 됐기 때문이다. 교회의 존재의 이유는 교회 그 자체가 아닌 복음에 있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교회에서 청년들의 이탈현상은 교회에서 참된 생명을 느끼지 못해서이다. 교회가 이런 것들을 회복할 때 이탈현상은 줄어들 것이고, 우리 삶으로 복음을 드러낼 때 교회는 회복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준호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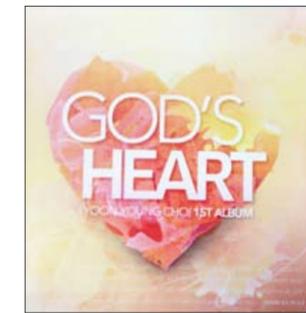


요한계시록의 증언의 저자 김준식 목사

김준식 목사 ‘요한계시록의 증언’ 출판 경제불황, 지구온난화 등 세계흐름 관찰

지난 2008년에 탁진 서브프라임 모기지 파동으로 인한 세계적 경제 불황과 지구 온난화 이상기후 등 세계의 흐름을 요한계시록적 시각으로 바라본 책이 발간됐다. 토렌스 지역 주예수사랑교회를 담임하는 김준식 목사가 저술한 이 책 제목은 ‘요한계시록의 증언’으로 상권과 하권으로 나눠져 있다. 이 책은 김준식 목사가 텍사스 주 엘파소사사랑교회에서 14년, LA에 위치한 세계이가페션교회 14년 동안 문서선교부서에서 사역하는 가운데 요한계시록을 연구하면서 각종 현상들이 어떻게 전개되는지를 관찰한 뒤 펴낸 것이다. 30여 년간 계속적으로 마태복음,

요한복음, 다니엘서, 에스겔서, 스가라서 등 종말복음을 연구해왔다는 김준식 목사는 “이 책은 계시록에 있는 정치, 경제, 사회, 과학, 역사 등의 요소를 분석하는 것으로써 다른 요한계시록 강해나 주석과는 다르다”고 전했다. 출판기념회는 오는 12월 1일(토) 오후 5시 LA지역 세계이가페션교회에서 열리게 된다. 4대째 장로교 고신교단의 신앙적 배경을 가진 김 목사는 서울대학교 문리대를 졸업하고 베다니신학대학원에서 목회학을 전공했다. 자세한 문의는 (213)424-3129로 하면 된다. <박준호 기자>



CCM가수 최윤영 첫 앨범 'God's Heart'출반

CCM 가수 최윤영 씨가 첫 번째 음반 'God's Heart'를 내놓았다. 2011 CBS 창작복음성가제 미주 지역 대상수상자이자 2011 한국복음성가 경연대회 금상 수상자인 최윤영 씨의 이번 앨범은 그의 첫 번째 정규앨범으로 '영원한 생명의 주님', '사랑이', '괜찮다, 다 괜찮다,'

아버지의 사랑' 등의 신곡과 'You are my King', '찬양의 제사드리며' 등 리메이크 찬양곡, 그리고 찬송가 '정결하게 하는 샘이' 등 총 9곡과 '사랑이 MR' 등 10곡이 수록됐다. 특별히 최윤영 씨가 총 프로듀서를 맡는 등 한 곡 한 곡 심혈을 기울여 제작돼 미주지역에서 발매된 한

인들이 제작한 찬양음반의 질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킨 것으로 평가 받고 있다. 최윤영 씨는 “이 앨범을 통해 끝까지 나를 믿어주시고 기다려주시는 아버지의 사랑, 그분께 받은 사랑을 온 세상에 전하고 싶다”고 밝혔다. 'God's Heart' 구입에 대한 문의는 iyoonyoung24@gmail.com으로 하면 된다. <박준호 기자>

서부교계 게시판

연세대남가주총동문회 정기총회 및 송년의 밤

2012 연세대 남가주 총동문회 정기총회 및 송년의 밤이 12월 1일(토) 오후 6시 힐튼 로스앤젤레스 에어포트 호텔에서 개최된다. ▲문의: (310)410-4000

삼성장로교회 임직예배

삼성장로교회(담임 신원규 목사)는 공로장으로 추대 및 임직예배를 12월 9일(주) 오후4시에 개최한다. 이날 장로임직, 명예장로취임, 명예장로임직, 안수집사 임직, 명예안수집사 임직, 권사임직, 명예권사 임직 등이 있게 된다. ▲문의: (562)690-9800

텍사스 어스틴지역 이단대책세미나

미주기독교이단대책연구회(회장 한선희 목사)가 주최하는 텍사스 어스틴 지역 이단대책 세미나가 12월 7일(금)부터 9일(주)까지 라운드락장로교회(담임 김광석 목사)에서 개최된다. 일정은 △7일(금) 오후 7시: 신천지 △8일(토) 오후 7시: 다락방, 신사도운동 △9일(주) 오전 10시30분: 여호와증인, 인터콧 등이다. ▲문의: (512)671-9669, 341-3733

KCCD 학부모 청소년 컴퓨터 강좌

한인기독교커뮤니티개발협회(KCCD, 회장 임혜빈)가 12월 4일(화)부터 학부모와 청소년을 위한 무료 컴퓨터 강의를 실시한다. 컴퓨터 교실은 인터넷 입문, 마이크로소프트 워드 입문, 파워포인트 입문, 인터넷 서핑 등 학부모 대상 강좌와 청소년 대상 '컴퓨터 게임 제작' 강좌로 나뉘어 실시되며 요일별로 오전반과 오후반 등 다양한 시간대를 골라 수강할 수 있다. 각 강좌 정원은 10명으로 제한된다. ▲문의: (213)985-1500

남가주동신교회 새성전 이전 감사부흥회

남가주동신교회(담임 손병렬 목사) 새 성전 이전 감사부흥회가 12월 1일(토) 오후 7시30분, 2일(주) 오후 4시 이틀에 걸쳐 열린다. 이번 부흥회의 강사는 서울 명성교회 담임 김삼환 목사이며 감사 음악예배로 연합성가대가 베토벤 심포니 9번 '합창'을 공연한다. ▲문의: (714)680-9556

미주갈멜산 기도원 12월 기도성회

미주갈멜산기도원(담임 조성근 목사) 12월 정기 기도성회가 13일(목)부터 20일(목)까지 개최한다. 시간은 새벽 5시30분, 오전 10시30분, 오후 7시30분. ▲문의: (818)306-4912

나성영락교회 크리스마스 징글잼 공연

나성영락교회(임시담임 박희민 목사)는 성탄절을 앞둔 12월 8일(토) 오후 6시 체육관에서 크리스마스 '징글잼'(Jingle Jam) 공연을 갖는다. 티켓은 2일(주) 교회 오피스데이터 앞 부스에서 무료입장권을 선착순으로 배부한다. 대상은 초등학교 1-6학년과 부모들이다. ▲문의: (323)559-6620

“아직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에 충분한 시간입니다”

2012 연말 특별 기도성회

| 일시 : 2012년 12월 13일(목, 저녁) ~ 20일(목, 저녁) (새벽 5:30, 오전 10:30, 오후 7:30)
| 장소 : 미주 갈멜산기도원 본당 (3123 W. 8th St. #210 Los Angeles, CA 90005)
| 문의 : (818) 306-4912
| 강사 :



조성근 목사
갈멜산 금식기도원(안양·강화·LA)담임/나사렛대학교 겸임교수/GST대표(신학생 훈련단체)
KWMA 운영이사/총신대학교(Th.M/Th.D,cand)/미국 ORU(D.Min)

LA 미주 갈멜산기도원은 한국의 안양에 위치한 갈멜산금식기도원에서 2012년 2월 19일에 설립한 기도원으로 성도와 교회를 섬기고자 세워졌습니다. 코리아타운 내 카타리나와 W 8th 코너에 위치하여 누구라도 쉽게 찾을 수 있는 미주 갈멜산기도원은 주일을 제외한 매일 아침과 저녁으로 매일기도회와 매일 조성근 담임목사가 직접 성회를 인도하는 매일 정기기도성회가 있습니다. 신비주의와 자유주의를 철저히 배격하는 교회중심과 말씀중심의 기도성회에는 생명력이 있는 말씀과 은혜가 넘치는 찬양 그리고 뜨거운 기도의 열정이 있어 하나님의 응답과 은혜회복의 감격, 그리고 새로운 헌신의 결단이 있습니다. 새신자들은 몇 년의 신앙이 앞당겨지고 직분자들은 견고하고 성숙한 신앙을 지니게 되며 사역자들은 위로와 능력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합니다. 눈물의 기도는 새로운 인생이야기의 첫문장이 됩니다. 지금도 기도를 대신할 만한 것은 결코 없습니다. 모든 것이 기도에 달려있는 것처럼 기도하십시오. 이제라도 기도하면 이제부터는 달라집니다.”



한장총 신임 대표회장 권태진 목사 운영위원회서 상임회장 유만석 목사 추대

한국장로교총연합회(한장총)는 23일 운영위원회를 열고 권태진(64) 목사를 새 대표회장으로, 유만석(56) 목사를 상임회장으로 추대했다.

군포제일교회 담임인 권 목사는 예정 합선 제96회 총회장을 지냈으며 현재 한장총 상임회장이다. 유 목사는 수원명성교회 담임으로 예정 백석 제29회 총회장을 역임했다. 권 목사와 유 목사는 지난 15일 마감된 한장총 대표회장·상임회장 후보

보통록에 각각 단독 입후보했으며 23일 운영위원들의 박수로 추대됐다.

권 목사는 "별들의 전쟁이 있는 곳에서 하늘과 같이 품는 연합의 정신을 갖고 한국장로교회의 통합을 이뤄나갈 것"이라며 "교계의 하나됨, 남북연합과 남북통일을 믿음으로 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또 "한국장로교 300개 교회 선정과 역사박물관을 통한 역사의 정리 등으로 장로교의 바른 신학

과 좋은 제도가 잘 나타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유 목사는 "지금까지 한국교회가 분열을 겪으며 부흥해왔다면 이제는 연합과 일치를 통해 부흥할 때"라며 "교단간 교류협력에 힘쓰고 이단 경계·결절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장총은 오는 30일 제30회 정기총회에서 새 대표회장과 상임회장을 공식 인준할 예정이다.

미션스쿨 정상화 10년 로드맵 나왔다

영락교회, 기독교학교교육연구소 공동 제2차 포럼

기독교 학교의 정상화를 위해 학원선교 현장에서 헌신하는 사역자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오늘날 기독교 학교에서 정체성 상실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독교 학교들이 본래의 건학이념에 맞는 종교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기독교 학교의 정상화를 위한 제2차 포럼'이 최근 서울 저동 영락교회에서 열렸다.

영락교회와 기독교학교교육연구소가 공동 개최한 포럼은 중립학교 내 종교교육 및 선교활동 등의 포괄적 주제에 대한 현황 및 문제를 진단하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포럼에서 참가자들은 교육제도 면과 법률적 측면, 교육 현실적 상황 등으로 나눠 기독교 학교 정상화를 위해 구체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10년 로드맵을

제시했다.

영남대 교육학과 김재춘 교수는 교육제도 면에서 3년 내 실시되도록 노력해야 하는 단기 방안, 중기(4-6년), 장기(10년 이내) 방안 등으로 나눠 10년 로드맵을 발표했다. 김 교수는 단기 방안으로 자신이 선호하는 종교교육을 받기 위한 전학 허용, 종교 과목 단순 편성 허용, 회피제도 도입을 제시했다. 중기 방안으로는 종교계 자율형 사립고의 자율성 확대, 종교 교과서 자유 발행 및 활용 허용, 모든 중립학교의 자율성 확대 허용 등을 내놓았다. 장기 방안으로는 중립학교를 '전기선발학교'로 전환해 일반학교에서 중립학교에서 종교교육이 가능한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한양대 헌법학과 박종보 교수는

김 교수가 발표한 로드맵을 법적으로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에 대한 법률적 방안을 내놓았다. 박 교수는 "다음세대를 교육할 권리, 어떤 내용을 가르칠지 결정할 권리는 부모가 갖는다"며 "헌법에 적시돼 있지 않아도 이는 당연히 부여받은 자연권"이라고 말했다. 그는 "자신의 자녀가 하나님 안에서 교육받고 성실한 신자로서 살기 바라는 부모는 자녀가 그런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권리가 있다"면서 "학교 내에서도 당연히 기독교 교육을 받을 권리가 부여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중립학교 설립, 종교교육 실시는 헌법상의 권리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대광고 우수호 교목은 교육 현장에서 필요한 사항들에 대해서 발표했다. 유 목사는 "기독교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헌법상 정당한 권리인 데도 불구하고 교육 현장에서 크리스트교 교사들조차도 이에 대한 확신이 없다"며 "우리 스스로가 확신을 갖고 논리를 펼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늘어나는 경매 교회...이단들 '눈독'

경기도 고양시 풍동의 C교회의 목사와 성도들은 요즘 피가 마르는 심정이다. 오는 29일까지 3억8000만원을 마련하지 못하면 교회가 이단 단체에 넘어갈 위기에 처한 것. 앞서 75억원을 들여 교회를 신축한 C교회는 대출 이자를 갚아 나가던 중 건설사 부도로 은행에 원리금까지 상환해야 할 처지에 놓이면서 경매에 넘어갔고, 가까스로 38억원에 낙찰을 받아놓은 상태다. 하지만 낙찰액의 10분의 1에 달하는 공탁금을 내지 못하면 2순위에 교회가 넘어갈 상황. 문제는 차순위 낙찰자가 대표적인 이단 단체로 꼽히는 'H교회'라는 것이다.

경기 집체로 교회를 포함한 각종

종교시설의 경매 물건이 증가하고 있다. 특히 경매시장에 나온 교회와 관련 부속시설의 경우 이단 및 사이비단체들이 눈독을 들이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25일 법원경매정보 전문 업체 부동산타임에 따르면 올 들어 지난 21일까지 법원 경매에 나온 종교시설(교회, 사찰 및 기타종교시설 포함)의 총 물건 수는 지난해(251)보다 10% 가까이 늘어난 272개로 집계됐다. 박종보 부동산타임 연구원은 "이 가운데 교회 물건은 68건 정도이며, 교회 부속시설까지 포함하면 120-130건 정도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종교 시설의 경매물건 절반 정도가 교회, 또는 관련시설이 차지하

고 있는 셈이다.

문제는 경매에 넘어간 교회의 경우 이단 및 사이비단체들의 먹잇감이 되고 있다는 점이다. 교계 이단·사이비단체 기구 등에 따르면 주요 이단들은 최근 들어 기존 신축 교회들 중 입지 상태 등을 따져 공세적으로 매입을 시도하고 있다. 서울과 인천, 경기 수원·용인, 경남 김해, 충남 서산 등 진출 범위가 전국적이다.

이단·사이비 문제 전문가인 탁지일 부산 장신대 교수는 "H교회의 경우 최근 들어 매입한 건물 중 5곳이 경매 등으로 넘어가거나 건축 문제로 문제가 발생한 기존 교회들"이라며 "무리한 교회건축이 빚미를 제공한 측면이 적지 않은 만큼 이에 대한 목회자와 성도들의 각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국내 11개 신학대, 세계복음화 협력 모색

'주님 오실 때까지 그리스도를 전파하라!' 로잔캠프

국내 11개 신학대학의 교수와 학생들이 모여 복음주의적 시각에서

세계복음화를 위한 협력을 모색한다.

한국로잔위원회(Korean Lusanne Committee·의장 이수영 목사) 산하 기관인 로잔연구교수단(

주요교단 정책 탐구(5) 예상 고신 작지만 강한 교단... "정통 보수신앙 지킨다"

올해 교단 창립 60주년을 맞이한 대한예수교장로회(고신) 총회(총회장 박정원 목사)는 제2의 도약을 선포하고 새 출발에 나섰다.

고신 총회는 지난 9월 제62회 총회에서 '민족과 열방을 위한 고신교회 회복과 성장'을 기치로 내걸었다. 교단 정책은 정통 보수신앙을 고수하는 교단의 정체성을 지켜나가는 데 초점이 맞춰진다.

대표적으로 총회 산하 유시기독교연구위원회 및 유시기독교연구소는 이단 및 반기독교 세력에 적극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이들 기구는 현재 국내 기독교계에서 교단 및 교회연합기구 간에 벌어지고 있는 '이단정죄 논쟁'과 관련, 제기되는 문제들에 대해 심층 연구를 하고 있다. 특히 대표적인 이단인 신천지 집단을 비롯해 최근 국내 침투가 가속화되고 있는 이슬람세력에 대해서도 별도 연구를 통해 대처하기로 했다.

교단 창립 60주년을 기념해 국내외 선교 및 교회연합 활동에도 힘을 쏟을 계획이다.

준비 중이다. 국내 3대 선교단체 중 하나로 꼽히는 SFC는 올 초 현재 국내 11개 지역 2개 지부, 해외 8개 지부(중국, 일본, 몽골 등)에서 전임간사 111명이 활동하고 있다. 이와 함께 115개 대학에서 2300여명, 교단 산하 교회에서는 전국 25개 지역에서 2만여명이 젊은 층신교를 위해 헌신하고 있다. SFC는 향후 국내 유학생 선교 사역을 활성화하는 한편 총회 선교부와 협력해 캠퍼스 사역과 교회연합 사역에도 역량을 모으기로 했다.

예상고신은 '작지만 강한 교단'으로 교단으로 유명하다. 지난 4월 기준으로 37개 노회, 1774개 교회를 두고 있다. 전체 교인(제적) 수는 48만2488명이며, 이 가운데 세례교인은 27만351명(56.0%)이다. 해외선교와 관련, 고신 총회는 지난 7월 말 기준으로 러시아와 우간다, 멕시코, 베트남 등 25개국에 477명의 선교사를 파송 중이다. 파송 선교사에 대한 선교비를 지원하는 교회는 1996년 448곳에서 2001년 630곳, 2006년 712곳에 이어 지난 해에는 교단 산하 교회의 58.6%에

노회	37개
교회	1774개
목사	3124명
시무장로	3882명
전사	1만2505명
세례교인	27만351명
전체교인	48만2488명

선교 차원에서) 기독교의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사인 동시에 세부적으로는 WCC와 고신교단 간 신학적 입장차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총회 개최 자체를 반대하기는 힘들겠지만 신학적으로는 단호히 대응할 겁니다. 현재(WCC 신학 및 총회에 대한) 필요한 교육과 홍보 또한 준비 중입니다."

고신은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와 한국교회연합(한교연) 간 관계 역시 기본 전제를 깔고 있다. 고신은 현재 한기총은 행정보류, 한교연은 미가입 상태다.

"한기총의 경우 특정 교단과 일부 목회자들에 대한 이단 연루 또는 옹호성 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않았습니니다. 이 부분에서 어떤 식으로든 결론이 나면 그에 따른 본교단의 입장 표명과 활동 방향이

구자유 사무총장 "기구 구조조정으로 행정시스템 효율화 교계 현안 균형감 있게 대처할 것"

2007년 말부터 시작한 '총회 3000교회 100만 성도운동'을 지속적으로 이어가는 한편 교단 차원의 개혁교회 설립에도 역점을 두기로 했다. 현재 37개 노회가 1개 교회를 개척하는 운동도 진행 중이다. 특히 정부 부처가 이전 중인 세종시에 개척 교회를 설립하는 방안도 구상 중이다.

3년 정도 연구 중인 예상합선 교단과의 통합 문제는 서두르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고신 총회의 한 임원은 "양 교단이 서둘러 전격적으로 합치는 것보다는 공동 현안에 대해 함께 다루고 대처해 나가는 것부터 차근차근 진행해 나가는 데 서로 공감하고 있다"면서 "통합 시점이 중요한 게 아니라 서로의 공통분모를 맞춰 나가는 데 초점을 두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교단 창립 60주년과 역사를 함께하는 교단 산하 학생신교단체 SFC(학생신앙운동)도 새 도약을

달하는 1039곳으로 증가했다.

예상고신총회는 현재 기구 구조 조정을 마무리하는 중이다. 총회 행정 시스템을 간소화·효율화·현대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이 작업을 총괄하는 구자유(55) 신임 사무총장은 최근 국민일보와 세종시에 개척 교회를 설립하는 방안도 구상 중이다.

내부 기구 개혁 마무리와 더불어 구 사무총장이 맞닥뜨린 문제는 교계의 주요 현안이다. 현재 고신교단은 2013년 세계교회협의회(WCC) 부산총회 개최, 한국기독교총연합회와 한국교회연합 등 교회연합 기구들과의 관계설정 문제 등이 현안으로 꼽히고 있다. 구 사무총장은 균형감을 강조했다.

"WCC 부산 총회는 본 교단 입장에서 상당히 민감한 문제입니다. (

설정될 겁니다. 한교연 가입 여부는 아직 고려하지 않고 있고요."

구 사무총장은 현재 교계 안팎에서 제기되는 교회 위기에 대해 조금은 다른 시각으로 바라봤다.

"저는 지금이 한국 교회가 더 밝아지고 있는 과정이라고 봅니다. 갱신을 통해 새로운 지평을 열어가고 있는 중이라고 봐요. 현재 불거지는 많은 문제들에 대해 마냥 부정적인 잣대로만 바라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구 사무총장이 주목하는 건 차세대 목회자입니다.

"이제 한국 교회의 1, 2세대 목회자 선배들이 은퇴하고 40대 중후반으로 대표되는 3세대 목회자들이 떠오르고 있습니다. 기성세대가 남겨준 전통은 이어가되 약속은 끊는 결단과 성장을 통해 한국 교회를 새롭게 열어갈 때입니다. 한국 교회는 희망이 있습니다."

회장 박영환 교수)은 23-24일 경기도 포천 광림세미나하우스에서 '주님 오실 때까지 그리스도를 전파하라!' (마태복음 28:19-20)라는 주제로 '제1회 로잔신학캠프'를 개최한다.

국내에서 처음 열리는 이번 '로잔신학캠프'는 11개의 신학대학의 로잔동아리 지도교수들과 학생들이

참석한 가운데 예배와 로잔특강, 워크숍, 찬양과 경건의 시간 등으로 진행된다. 이종윤(현 아시아 로잔위원회 의장) 목사가 '한국로잔의 역사', 홍기영(나사렛 대학교) 교수가 '로잔선언문 분석'에 대해 강연한다.

로잔연구교수단은 한국로잔위원회가 국내 주요 신학대학교와 기독교학교 안에 로잔운동의 정신을 보

급하기 위해 마련한 각 신학교 지도교수들의 연합모임이다. 로잔운동은 1974년부터 빌리 그레이엄, 존 스토틀 목사 등에 의해 주도된 복음주의의 대표적 운동이다. 지난 2010년 3차 로잔대회에서는 전세계에서 4500명이 넘는 교회지도자들이 모여서 세계선교를 위한 운동을 펼친 바 있다

SAM CARE 샘 복지재단
"강을 건너 세기 선교로"
대표 박세록 선교사
이메일 samcareusa@gmail.com
Tel. (714)870-1101
1309 W. Valencia Dr. #A Fullerton CA 92833

www.theonehall.com
The One Banquet Hall
one love...one life...
1%의 차이가 명품 웨딩을 만듭니다
The(원) 결혼식, 돌잔치, 세미나, 각종행사
아로마센타5층
213-387-7575
3680 Wilshire Blvd., 5Fl, L.A., CA 90010

www.laguesthouse.com
LA GUEST HOUSE
LA 호텔식 하숙
965 Fedora St, Los Angeles, CA 90006 (올림픽 김스 전기앞)
Tel. 213.487.5446 Cell. 213.663.9181 Email, laguesthouse@live.com

기독교 결혼 정보회사
HANA NOBLESSE
초혼, 재혼
YOUNG KIM
213.514.2004
youngkim720@Hanmail.net

사랑과 행복을 드리는
한나 꽃집
Hanna Flower Shop
각종 선물포장
꽃/과일바구니
결혼 꽃 / 파티 꽃
축하 꽃다발 / 장례 꽃
한국 꽃배달 / 타운내 무료배달
주소: 4034 W. Olympic Blvd, LA, CA 90019
전화: (323)936-1077 / (213)254-7003

설교/비디오 복사
SONY PHILIPS LG
BLANK CD
BLANK DVD
SALES
공 디스크 저가판매!
DiscMaster
자동형 복사 & 프린터
초간편 복사기
TOLL FREE: 1-866-817-4094 (ext.101 or 102)
www.produplicator.com
4010 Valley Blvd., #105, Walnut, CA 91789

생명의말씀사
Word of Life Books
미주 최고의 ONE STOP 기독교 백화점
2707 W. Olympic Blvd., #100 Los Angeles CA 90006
TEL. 213.382.4538 Fax:(213)382-1154
www.lifebook.co.kr
Email: wordoflifela@hanmail.net
로스앤젤레스 지사 워싱턴DC 지사
TEL. 800.347.7057 TEL. 800.228.2928

AUTHORIZED adidas DISTRIBUTOR
www.dynamicsworld.com
교회 로고프린트 티셔츠50벌 이상 \$5
교회 로고 프린트 자수타월
광고배너 / 교회배너 제작
T. 516.354.8484 F.516.354.8383
245-14 JERICHO TPKE, FLORAL PARK, NY 11001

인도

하루에도 몇 번씩 비가 왔다가 해가 나고 다시 느닷없이 비가 오는 기후의 변화가 심한 산 지역의 우기는 마르지 않는 빨래를 널었다가 거두었다가 하는 수고가 번거롭다고 가끔 투덜거리는 나의 작은 불평소리와 함께 서서히 가고 있습니다. 자연이 주는 무조건적인 은혜와 그저 자연 앞에 수동적일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간이 그 자그마한 불편에 불평하는 살짝 이기적인 내마음도 가고 있는 우기에 다 날려 보내고 감사함으로 청명한 하늘을 맞이하고 싶습니다.



그동안 평안하셨는지요? 저희들도 다 잘 있습니다. 늘 함께 해주시는 그것은 공기와도 같지요. 기도해주시고 마음써주시고 물질로 사랑으로 섬겨주시는 것, 보이는 것 같지 않아도 없으면 안 되는 그래서 때로는 잊지만 생명같은 거 그래서 공기처럼 특별히 표현하지 않아도 늘 감사드립니다.

DTS 훈련

7명의 적은 수의 학생들과 8명의 사역자들과 저희 부부 이렇게 3개월의 강의기간을 섬겼습니다. 학생 수가 적었는데 사역자들의 열심으로 “이번 훈련은 스태프들을 위한 훈련이다”라고 할 정도로 사역자들 안에 주님의 역사하심이 컸습니다. 학생들은 7명이었지만 몇몇은 참 힘든 학생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말씀으로 서서히 가랑비에 옷 젖듯이 그렇게 조금씩 그들의 옛 습관이 바뀌어져 갔습니다. 나중에 전도여행 후엔 가장 힘들었던 학생들 몇이 가장 많이 변화되어 왔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주님의 역사하심이 컸던 사역자들은 전도여행 중과 훈련이 마친 후에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사람의 눈으로 보는 것은 얼마나 다른지요. 많은 것을 배워갑니다. 아직도 보는 것 판단하는 것 생각하는 것이 서투른지요.

전도여행

이번 전도여행은 7명씩 두 팀으로 학생과 사역자들이 섞여서 여러 지역으로 나갔습니다. 교회를 섬기고 전도하고 세미나를 열고 중보기도를 하며 하나님 말씀하신 땅으로 나가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며 섬겼습니다. 이런 아름다운

소식 속에 아픈 소식이 있었습니다.

두 팀중 한 팀은 세 군데의 지역을 섬긴 후에 전도여행이 두 달째 접어든 그 주간에 티유니라는 지역에 로루팀에 속해 있는 교회를 가서 섬기게 되었습니다. 저녁마다 세미나를 열던 중 너무 더운 지역인데다가 선풍기도 없는 시골이어서 낮에는 강에 가서 목욕도 하곤 했는데 함께 가야 한다는 리더의 말을 듣지 않고 그날은 라즈형제 혼자 목욕하러 갔습니다. 수영을 할 줄 모르는 그는 물살이 센 곳에서 휩쓸려 갔습니다. 시체를 찾지 못하고 다른 곳으로 이동하고 일주일 후 다시 로루에 왔을 무렵 라즈의 시체를 찾았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 팀의 리더인 알준이 몇 명과 함께 다시 티유니로 가서 화장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라즈는 3년 전에 이곳 심라에 저희에게 왔습니다. 부모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떠돌던 라즈는 (엄마가 주인집의 아이를 낳았다고 엄마의 남편은 라즈와 엄마를 버리고 갔고 그 후 엄마는 다른 남자와 결혼을 했는데 새아버지의 사랑도 엄마의 사랑도 못 받고 자란 라즈는 일찍 집을 떠나 인도로 와서 떠돌이 생활을 했습니다) 로루의 한 밥집에서 일하며 살았는데 교회에 출석하면서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저희 남편에게 하던 일을 모두 그만두고 심라에 저희에게 와서 글자도 배우며 훈련받고 싶다고 해서 저희가 데리고 와서 훈련 센터에서 밥을 하며 글을 배우며 믿음이 잘 자라 이번에는 DTS 훈련을 받게 되었습니다.

성경세미나

8월 둘째 주에 가졌던 성경세미나는 25명의 사람들이 참석해서 성경전체를 훑어보는 시간과 성경을 공부 방법과 성경공부의 중요성에 대해서 배우는 시간이었습니다.

주일학교 교사세미나

약 35명의 사역자와 주일학교 교사들이 모여서 세미나를 가졌습니다. 이번 세미나는 강의와 프레젠테이션, 액티비티로 이루어졌는데 어린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처음으로 프레젠테이

션을 하는 시골 사람들은 때론 웃음을 자아내게 하고 때론 그들의 얼굴이 빨개질 정도로 부끄러워도 했지만 계속 반복되는 연습으로 마지막엔 얼마나 다들 창조적으로 잘해내던지 저절로 박수가 나왔습니다.

복음이 기초가 되지 않는 교육은 아무런 의미가 없음을 다시 한번 깊이 느끼며 강사와 교사들의 열정으로 좁은 강의실은 한 주간 내내 뜨거웠습니다. 이곳의 아이들이 복음으로 무장되도록 기도해주세요.

교회사역자 세미나, 미팅
버이지나에서 모인 교회 사역자들은 3일 동안 강의와 성경공부와 퀴즈와 오픈디스크스 예배 중보기도 스포츠 등으로 귀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선교센터소식

지난 두 달 사이에 세 명의 사역자들이 떠나게 되는 아픔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는 가능성 있던 자매와, 리더로 키우려고 했던 형제도 있었고 이제 새롭게 사역에 들어오려고 했던 형제가 있었습니다. 한 자매는 부르심에 분명하지 않아서 떠났고 두 명의 형제들은 아픔을 남겨주고 떠났습니다. 한동안은 가슴앓이를 했습니다.

어제는 하루 종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생각을 했습니다. 고귀한 그분의 나라에 있는 우리는 정말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하는 스스로의 질문에 마음이 뒤척여졌습니다.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에 있는 그분의 자녀라는 우리는 얼마나 아버지를 닮아있는가 얼마나 그분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라는 생각이 나의 한계와 우리의 부족함을 느끼면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어떠한 때에도 그분의 나라는 날마다 세워져 나가고 있고 또한 그러한 우리를 고치셔서 여전히 우리를 사용하시고 함께 일하시는 그분의 넉넉함에 다시 일어날 힘을 얻습니다. 오직 그분 때문에...

우리가 가는 듯해도 여전히 비는 옵니다. 푸른 것은 더 푸르고 더러운 것을 씻겨주는 비의 유익의 일부를 생각해 보며 몇 달 사이에 있었던 이러한 사연들로 지친 마음을 씻으며 마음이 쉬 수 있는 계절이 오기를 기대해 봅니다.

장순희, 어닐(어물러) 선교사 올림

터키

내 눈 주의영광을 바라며... 이 터키가운데 계신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봅니다.

살롬! 그동안 평안하셨는지요. 9월과 10월은 너무 바쁘게 지나가버린 것 같아요. 벌써 쌀쌀해져서 옷깃을 여미게 되네요. 뉴욕의 스톰 소식에 마음을 조리며 두 손을 모았습니다. 아무래도 아버지 오실 날이 가까운 것 같습니다. 아버지를 모시는 이들은 자신들을 향해 준비하는 것이 얼마나 허무한지 깨닫지도 못한 채 육신의 것들을 향해 달려가고 있네요.

9월은 여름의 마무리로 지방에 간 자매들이 돌아와서 서로 인사하면서 지냈구요. 저희 집에 모여서 사귀를 가지곤 했어요. 자매들이 저희 집에 오면 편한지 오길 즐겨해서 감사해요.

9월 25일 뉴욕에서 선성님들이 대거 방문하시면서 사도바울의 행적과 일곱 교회를 방문하시고 그러스로 10월 1일 방문하신다고 하셨는데 한 선성님이 회사사정이 생겨서 못 오셔서 그 자리에 저를 선성님들이 초대해주셔서 잘 다녀왔어요. 그리고 바로 학교가 시작해서 조금 바쁘게 지냈어요. 제가 여름에 건강검진 결과가 조금 불편하게 나와 마음이 복잡하니까 아버지께서 위로도 주시고 사랑도 받고 귀한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을 주셔서 많이 위로받고 사랑도 받고(선성님들이 오시면서 한국음식을 많이 갖다 주셨어요) 그 사랑의 손길에 이곳 선성님들과 기쁨을 나누었어요. 그리고 자매들과도 맛있게 나누어 먹었어요.

추석도 AWC에 모여서 자매들과 한국음식과 웃음으로 선성님들과 즐거이 보냈어요. 학교 시작인지 얼마 안돼 이곳에 명절인 쿠르반 바이람이 있었어요. 카이세리에 사는 자매집을 방문하려다가 감기가 걸려서 못 갔어요. 이 명절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속죄일로 지켰던 것과 비슷한 내용의 명절이지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것을 분반야 소나 양을 잡아 그 피로 이마에 바르고 집주변에 뿌리지요. 그 고기는 식구들과 가난한 사람들과 나누어 먹어요.

그러나 이들은 아브라함이 아닌 이스마엘이 바쳐졌다고 믿지요. 이 터키에 그 희생양이 예수님이 라는 사실을 믿고 기다리는 날이

속히 오길 소원합니다. 덕분에 소중한 시간을 가졌었어요. 바쁜 와중에도 자매들이 저희 집에 모여서

를 위해서 오라고해서 신나게 지냈지요^^ 치료프테 라는 음식을 자매들이 만들고 저는 카레를 만들고... 치료프테는 생소고기 같은 것에 불붙이라는 곡식과 매운 양념을 넣어 손으로 계속치대면서 치대는 손으로 반 익혀서 상추에 레몬을 뿌려서 먹는 매콤한 음식인데 이것을 제가 보는 앞에서 만들면서 중간 중간 간보라고 하는데 안먹을 수도 없고 눈 질끈 감고 주~여! 보호하시어! 하고 받아 먹었습니다.

(16면으로 계속)



선교 편지



이집트서 반 무르시 수만 명 시위...경찰과 충돌

시민 1명 최루탄 흡입으로 사망...카이로에 일부 학교는 휴교

이집트 야권과 사회운동가들이 27일 무함마드 무르시 이집트 대통령의 권한을 강화한 새 헌법 선언문 발표에 항의하기 위해 대규모 시위를 벌였다. 일부 시위대가 진압 경찰과 충돌하는 과정에서 1명이 사망하고 수십 명이 부상하는 등 충돌이 격화하고 있다.

이집트 일간 알 아흐람 등 현지 매체는 이날 카이로 민주화 상징 타흐리르 광장에서 수만 명이 모여 무르시 대통령의 새 헌법 선언의 철회를

촉구했다고 보도했다. 이번 시위에는 판사와 변호사 등 사법 관계자와 언론인, 자유주의·사회주의 세력들도 대거 참가했다. 시위 군중 속에서는 “우리는 정권의 붕괴를 원한다”, “무슬림형제단이 혁명을 빼앗아 갔다”는 구호도 들렸다. 이집트 최대 이슬람그룹인 무슬림형제단은 무르시의 지지기반이다. 경찰은 타흐리르 광장 주변에서 투석전을 벌이던 시위대를 해산하

려고 최루탄을 발사했고 50대 시위 참가자 한명이 가스 흡입으로 숨졌다. 이에 따라 이집트에서 벌어진 최근 시위로 숨진 이는 3명으로 늘었다. 이날 벌어진 시위는 무르시가 대통령으로 공식 취임한 지난 6월 이후 가장 규모라고 현지 매체는 전했다.

일부 시민단체는 무르시를 “폭군”이라고 지칭하며 이날 타흐리르 광장에서 열린 ‘100만인 집회’에 참여할 것을 촉구했다.

무르시 규탄 시위는 수도 카이로 뿐만 아니라 제2의 도시 알렉산드리아를 비롯해 페이움, 카프르 엘 셰이크, 소하그, 다미에타, 샤름 엘 셰이크 등 주요 도시에서 동시에 열렸다.

알렉산드리아에서도 수천 명이 무르시 반대 집회에 참가했다. 카이로의 타흐리르 광장에서는 무르시가 지난 22일 현대판 파라오 헌법으로 불리는 새 헌법 선언문을 발표한 이후 즉각 철회를 촉구하는 농성이 닥새째 진행 중이다.

이집트의 일부 학교는 이날 대규모 폭력 사태를 우려해 휴교했다. 이집트 교육부는 시위대의 충돌 가능성 때문에 이날 사립과 공립학교 재학생이 학교에 가지 않아도 된다고 밝혔다. 이집트 카이로대학도 정교생에게 하루 휴교한다고 통보했다.

무르시는 전날 새 헌법 선언문을 강행한다는 견해를 밝히면서 이집트 정국 불안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

무르시는 최고 사법기관인 최고 사법위원회 대표들을 만나 새 헌법 선언문은 주권과 관련된 사안에 제한적이고 한시적으로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야권은 “새 헌법 선언을 취소해야 한다”고 맞섰다.

노벨 평화상 수상자이자 이집트 민주화 운동가인 모하메드 엘바라데이 전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총장도 독재하려는 대통령과는 타협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집트에서 최근 시위대 2명이 숨진 사건도 무르시 반대 시위에 기름을 부은 격이 됐다. 지난 25일 나일 델타 지역 다만후르에서는 무르시 반대파가 무르시 대통령 최대 지지기반인 무슬림형제단 사무실을 공격하는 과정에서 15세 소년이 사망

했다. 카이로에서 시위 도중 경찰이 쏜 새총에 머리를 맞은 17세 소년도 병원에서 옮겨져 치료를 받다가 숨졌다. 숨진 시위대 청년의 장례식에는 수천 명이 모여 이집트 정부에 분노를 표출했다고 일간 데일리뉴스 이집트가 전했다.

이날 카이로에서 대규모 시위를 예고했던 무슬림형제단은 26일 오후 늦게 일정을 취소했다.

무르시는 지난 22일 사법기관의 의회 해산권을 제한하고 대통령의 법령과 선언문이 최종적인 효력을 갖는다는 내용 등이 담긴 새 헌법 선언문을 발표해 이집트 야권과 지식인들이 ‘현대판 파라오 헌법’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 세미나

라홍채 목사의 신간서적 안내

구약과 신약

본서는 성경 말씀을 읽어가면서 인간의 타락과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조망해 주고 있으며, 또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비결과 성경의 메시지를 짧은 시간 안에 깨달을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 주고 있다.

성경 66권을 총망라하여 주요 성경구절들을 묵상하면서 성경의 핵심인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깨닫게 되고, 성경 각권의 해설을 통해 한눈으로 성경 전체를 볼 수 있는 인목을 갖게 해준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으로 나타나는 그분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말씀을 통해 깨닫고 체험함으로써 말세지말을 사는 성도에게 바른 신앙을 정립시키고 영혼 구원에 대한 사명을 고취시켜 준다.

1권 360원 13,000원 / 2권 394원 13,000원

지금 이 시대의 말씀

본서는 요한계시록을 비롯하여 여러 성경 말씀을 토대로 하여 현재 크리천들의 잠자는 신앙을 깨우는 예언의 메시지와 경고의 일침을 담고 있다.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구원 메시지가 어떻게 펼쳐지고 있으며, 마지막 시대의 징조는 무엇이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하는 성도의 자세는 어떠해야 하며, 이 시대 마지막 사명은 무엇인지에 대해 성경 말씀을 풀이하며 상세히 가르쳐 주고 있다.

이단 사안까지 다루고 교회가 세속화되어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현 시대에 성도들이 거룩한 영성을 회복하고 교회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는 안내서이다. | 412원 14,000원



칠십 이레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듯이 이 세상은 분명히 끝나는 날이 오는데 바로 칠십 이레가 되는 날이라고 저자는 말한다. 다니엘 9장 24절 “네 백성과 네 거룩한 성을 위하여 칠십 이레로 기한을 정하였나니”라는 말씀을 근거로 칠십 이레가 도래하면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계 19:11-21) 이 세상은 끝이 난다는 것이다. 알 수 없는 미래라 하여 여러 사람들이 종말의 때를 막으려 하고 현실 세계에 묶어 아무 생각 없이 허송세월하며 살고 있다. 독자들은 이 책을 통하여 마지막 때, 이 세상의 끝 날에 대하여 새롭게 인식하고 종말을 준비하는 신앙을 다지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 156원 8,000원



라홍채 목사

-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졸업(학사)
- 미국 테네시 석유회사 13년 근무
- 미국 휴스턴 신학교
- 미국 베다니 신학교 석사과정 수료
- 미국 베다니 신학교 박사과정 수료
- 미국 베다니 신학교 신학박사(Ph.D)
- 뉴욕으로 이주, 뉴욕만민제자교회 설립
- 현 뉴욕만민제자교회 담임
- 저서: 한국직업훈련교본/아시아지역원유(석유) 조사연구/평가자료(제자들)
- 조사연구평가자료/서해바다원유(석유) 조사연구/평가자료(제자들)



목회자와 신학생, 평신도 여러분을 초청합니다.

성경 신구약과 다니엘서, 요한계시록을 단 이틀에 통달할 수 있으며 지금 이 시대를 준비하고 이길 수 있는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복음을 알고자 하십니까! 성경을 빨리 쉽게 배울 수 있습니다. 성경을 가르치고 복음 전도자가 되시기를 원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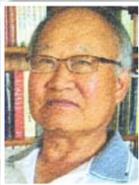
시간: 2012년 12월 4~5일 오전 10시부터~오후 4시
식사 및 음료 제공 / 회비 1인당 7만원(책 4권 교재 1권 파워포인트 포함)
강사: 라홍채 목사
장소: 백주년 기념관 제1연수실
Email: andency1@gmail.com
주최·신청: 쿤란출판사 (02-747-1004)

한국 세미나 일정 및 교육 시간표 (2012년 12월 4~5일)

제1일차 2012년 12월 4일		제2일차 2012년 12월 5일	
오전 세미나	오후 세미나	오전 세미나	오후 세미나
구약 제1강	신약 제1강	칠십 이레 제1강	계시록 제1강
오전 10:00-11:00	오후 1:00-2:30	오전 10:00-11:00	오후 1:00-2:30
10분 휴식	10분 휴식	10분 휴식	10분 휴식
구약 제2강	신약 제2강	칠십 이레 제2강	계시록 제2강
오전 11:10-12:10	오후 2:40-4:10	오전 11:10-12:10	오후 2:40-4:10
점심시간	1일차 종료	점심시간	2일차 세미나 종료
12:10-1:00		12:10-1:00	

기독교문학소설

(남)이라는 다른 이야기 (4)



정중해 박사 (문학인)

“그러나 목사님, 제가 예수를 믿게 된 것은 아무래도 좀 비겁한 것 같네요. 평소에 인생의 의미를 찾아보려고 해다가 예수를 만났더라면 그런 생각이 들지 않았을 텐데, 생명의 위협을 당하고야 하나님을 찾게 되었으니 자꾸만 비겁한 생각이 듭니다.”

“허 선생님처럼 다 그렇게 생각하면 기독교 신자들 중에 비겁하지 않은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될까요?”

“남이야 어떻게 신자가 됐는지는 잘 모릅니다만, 전 아직도 신앙이 약해서 그런지 아내의 죽음에 대해 의문이 많습니다. 제가 믿게 된 기독교에 대해서도 그렇고요. 이제부터 저는 신자라기보다는 구도자가 되겠습니다. 잃어버린 신을 다시 올바르게 찾아서 한번 제대로 믿어보고 싶어요.”

무영이가 이렇게 자기 신앙에 대해 알쏭달쏭한 소리를 발설하자 윤 목사는 혹시 무영 교우가 아니라 신앙적인 회의에 빠져 교회생활을 중단하지 않을까 염려가 되었다.

“허 선생님, 물론 예수를 믿는 동기가 다 같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허 선생님처럼 예수를 받아들이고 하나님 앞에 자기가 자꾸 비겁하게 생각된다는 그런 사람을 아직 만나보지 못했어요. 그건 허 선생님이 기독교에 대해 너무 진지하기 때문입니다. 대개 맹목적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은 그런 생각이 들지 않거든요.”

“목사님, 저의 성격을 바로 지적해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제가 기독교에 진지하면 할수록 목사님을 더 괴롭히게 될 겁니다. 앞으로 제가 신앙적으로 회의에 빠져 방황하더라도 계속 인내를 가지시고 지도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만이 허 선생님을 바른 길로 인도해주시는 선한 목자이십니다. 교회 목사님 이 사람은 그저 그분이 하시는 일을 시종들뿐이지요.”

윤 목사는 허 선생과 두 자녀들의 손을 맞잡고 아내를 잃고 어머니를 여읜 이 가정을 하나님의 자비의 손길에 위탁한다는 기도를 올리고 돌아갔다. 무영은 아내의 장례를 치르고 심히 울적해 있었는데, 마침 이때 윤 목사가 심방을 와서 이렇게 위로해주고, 또 자기는 그 목사에게 허심탄회하게 자기의 착잡한 심정을 고백하고 나니까 마음이 한결 후련해졌다.

무영은 그날 윤 목사에게 고백했듯이, 잃어버린 하나님을 다시 찾아 그의 축성을 한 번 더 진지하게 연구해보고 싶어졌다. 자식 둘을 데리고 날마다 일에 쫓기고, 가계가 빠듯한 생활을 꾸려나가면서도 얼마 전부터 회의를 갖게 된 기독교를 바로 이해해보려고 교회 생활을 계속했다.

얼마 동안 중단했던 성경공부반에도 들어가고, 토요새벽기도회에도 다시 참석했다. 새벽기도회는 교인들이 다 자리를 떠나도 무영은 혼자 오래도록 앉아 있었다. 다른 신도들은 통성으로 왈라지 절하게 소리 내어 기도하다가 하나씩 들씩 사라졌지만 무영은 고개를 숙인 채 입을 꼭 다물고 한두

시간씩 자리를 치대고 눌러 앉아 있었다. 그는 풀리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의문을 가지고 씨름하는 의자에서 빨리 일어나질 못했다.

바로 이런 시기에 아프가니스탄에서 한인 의료 봉사단 23명이 탈레반 반군들에게 납치되어 그 봉사단의 인솔자인 목사가 무참히 살해당하는 사건이 일어났다. 얼마 후 미네아포리스에서는 미시시피 강의 교량이 붕괴되는 불상사가 일어났다. 그 다리 위를 지나가던 50여대의 자동차가 함께 떨어져 곤두박질치는 대사고가 발생한 것이다. 미시시피 강을 가로지르는 이 I-35W 다리는 무영이가 늘 출퇴근할 때마다 지나가는 유일한 통로인 것이다. 다리가 붕괴되던 바로 그날 그 시간쯤 무영이도 퇴근길이라 그 다리를 지나갔던 것이다. 그러나 천만 다행하게도 무영이가 그 다리를 지나간 시간은 붕괴 시각보다 불과 30여 분 전이었다.

무영은 집에 돌아와 TV뉴스를 통해 이 사실을 알고 한숨을 내리 쉬었다. 자기는 무사히 살아 돌아와 얼마나 다행스러운지 몰랐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바로 그때 차를 몰고 그 다리를 지나가다가 강물 속에 떨어져 차 속에서 버둥거리는 익사한 사람들, 치명상이나 부상을 당해 신용하는 운전자나 승객들을 상상하자 무영은 심히 가슴이 쓰리고 아팠다.

그날 밤 무영은 이 다리붕괴사건의 충격 때문에 잠에 잠이 오질 않았다. 잠자리에 서 뒤척거리면서 아이슬슬하게 사고를 모면한 자신을 돌이켜보았다. 아무리 생각해보아도, 사고를 당한 그 사람들보다 자기가 무엇이 잘라서 하늘이 도왔다고는 말할 수가 없었다. 자기도 능히 그중의 한 사람이 될 수도 있었거늘, 단지 운이 좋아 그 참화를 모면했을 뿐이라고밖에 해석할 도리가 없었다.

그 다음날 아침 무영이가 직장에 나가기도 전에 미국에서 자기를 잘 아는 친구들에게서 전화가 걸려왔다. 심지어는 한국의 친척들도 전화를 걸어 무사냐고 안부를 물었다. 교인들 중에도 무영이가 교인이 되기 전부터 그를 교회로 인도하려고 꾸준히 관심을 가지고 가까이 해주던 김윤하 장로가 역시 문안전화를 하면서, 주말에 자기 집에 와서 저녁식사나 같이 하자고 초대했다. 요즘 자식을 데리고 휴가비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궁금해서 만나고 싶다고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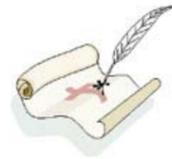
세상은 예나 지금이나 늘 시끄럽고 불안한 곳이다. 조금만 비가 많이 쏟아져도 여기저기서 물난리가 난다. 조금만 한발이 계속되면 농작물이 시들고 산불이 나 야단이다. 이래서 기근, 저래서 전염병, 거기다 인종 갈등, 종교 갈등으로 분쟁이 일어나는 사람이 죽어간다. 무영은 세상을 이렇게 비관적으로 보면서도, 이런 와중에서도 자기들 세 가족이라도 살아남아 있다는 사실이 다행스러웠다.

▲이메일: chonhae@hotmail.com (다음호에 계속)

우크라이나

살림! 오랫동안 선교 소식을 드리지 못했습니다. 선교사가 선교 소식을 소홀히 하면 직무유기에 해당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크라이나를 위해 끊임없이 기도해주신 덕분에 이렇게 무사히 선교 소식을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감사하고, 사랑의 수고와 은혜를 어떻게 보답해 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직무유기의 죄를 조금 책임을 회피하고자(?) 변명거리를 몇 가지 늘어놓고자 합니다.

선교 편지



소망의 두 결혼식

두 주 간격으로 마리나 전도사님 외아들 김사사와호반디아나와 박울라와데니스의 결혼식이 있었습니다. 테니스 외에 모두 교회에서 자란 청년들이어서 집안 결혼식과 다름이 없었습니다. 특히 사사위디아나는 오후 4시에 결혼식을 한 후, 곧바로 교회 마당에 피로연(이곳은 결혼식이 따로 없고, 저녁 피로연이 결혼식이기 때문에 피로연 때 하객이 참석합니다)을 가져, 교회 설립 후 가장 큰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이들 새로운 가정이 교회의 미래의 기둥으로 세워갈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여름 청년 수련회



LA 든든한교회의 단기 선교팀들과 니콜라이브교회(김일택 목사), 할렐루야교회의 세 교회가 청년들 대상으로 3박4일 '건세'(건조한 그리스도인 세우기) 수련회를 가졌습니다. 든든한교회의 단기 선교팀의 탁월한 준비와 섬김과 인도로 42명의 불신자 대부분이 복음의 결실을 맺을 수 있었습니다. 계속 이들의 구원의 믿음이 풍성한 결실을 맺을 수 있는 후속 조치를 위해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반쪽 어른신 수련회



해마다 봄, 가을에 교회 어른신을 위로하며, 신앙수련회를 1박2일로 가집니다. 이번에는 개척 중인 아비디오폴에 계시는 고려인 어른신들 중심으로 전도 수련회를 가지려고 했는데, 그만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기도와 지혜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하는 수 없이 교회 어른신들만 참석하셨는데, 어느 때보다 유익한 시간을 가져, 많은 위로가 되었습니다. 내년 봄 수련회에는 아비디오폴 어른신을 모셔서 전도 수련회를 가질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10년만의 직분자 임직식



10월 첫 주 금요일 임발렐리 집사님과 김류스란 집사님의 인수집사 임직식이 있었습니다. 작년 이맘때에 피택되어, 꼭 일년 만에 임직식을 갖게 된 셈입니다. 감사하게도 일년 동안 지도자 교육을 성실하게 잘 따라 오셔서 무사히 잘 마칠 수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신정교회 이규현 목사님과 같은 교단 이성현 선교사님, 그리고 오대사 현직인 이반노프 목사님과 정정식 목사님께서 오셔서 인수해주셨습니다. 임직식 때의 은혜는 당사자가 가장 많았지만, 저 또한 많은 은혜와 감회가 컸는데, 우크라이나에 온 지 꼭 10년 만에 처음 임직식이기 때문인가 봅니다. 겨우 두 명(?)이라는 생각도 있지만, 저에게는 너무나도 벅찬 일이었습니다. 아직 두 분이 부족한 것이 많습니다. 계속 두 집사님이 할렐루야교회의 든든한 기둥이 되도록 끊임없는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11월 23일 교회 건물 재판을 기도 부탁드립니다!!!

저희 교회에서 소송한 재판을 중도에 종결시키고, 23일 시 의회에서 소송한 재판을 시작합니다. 상대 측에서소송을 서둘러고 합니다. 저희들은 가능한 한 시간을 끌기 위해 저희들 소송을 종결할 것에 이의 신청하였습니다. 이의 신청이 받아들여 종결한 재판이 속개되며, 알렉세이 변호사에게 지혜와 입술의 권능을 주시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정환규 선교사 드림 ▲이메일: visionukraine@hanmail.net

BOOKSKOREA PRINTING & PROMO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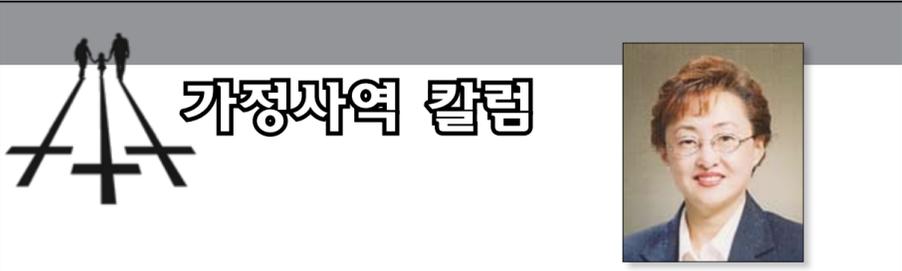
한국서적 프린팅 & 프로모션

교회 사역에 필요한 인쇄물과 판촉물을 한 자리에서 제작 할 수 있는 한국서적 프린팅 & 프로모션 사업부에서는 디자인에서 제작까지 만족스러운 결과물을 완성하여 드립니다. (창립기념일, 추수감사절, 크리스마스, 부활절) 명함, 전단지, 브로슈어, 엽서, 스티커, 달력, 선물권, 현금봉투, 전도지, 주보, 배너, 옥외 / 실내 스탠드배너, 전도용 작품제작 프린팅 단체 티셔츠, 타월, 토트백, 머그잔, 볼펜, 전도에 필요한 아이템에 모든것-



Advertisement for Bookskorea Printing & Promotion featuring various printed items like mugs, pens, and bags. Text includes: '판촉물을 원하신다면 언제라도 방문하십시오.', '상담 환영!!!', and '새가족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전화 : 718.762.1200 29-30 Union St, Flushing, NY 11354



김정진 사모 (FBM 디렉터)

현숙한 아내 (Excellent wife)

동성가정 등 가정에 대한 전통적인 개념이 무너져 가면서 남편 아내의 핵심 역할에 대해 분명히 이야기 되고 있지 못하다. 그러나 남편과 아내의 역할을 원만히 해내며 건강한 관계를 만들어 갈 수 있어야 아름다운 가정으로 성장되어 갈 수 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관계 맺는 것을 통해 성장해가길 원하시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이 좋았지만 한 가지를 좋지 못하게 생각하신 것이 바로 관계를 맺지 않고 사람이 혼자 독처하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사람이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창2:18).

독처한다는 것은 관계를 맺지 않고 따로 지낸다는 것을 의미한다. 곧 고립되어 있는 상태를 말한다. 하나님은 사람이 특히 부부가 연합되지 않고 고립되어(isolate) 있는 것을 좋지 못하다고 하셨다.

에덴동산에서의 환경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자. 그때 아담은 현대인들보다 훨씬 좋은 환경에서 살았다. 완전한 무공해 속에 살았고, 순간 뻔치면 언제든지 맛있는 과일들을 먹을 수 있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도우시니 블레셋을 이겼더라. 그런데 누가 누구를 돕는다는 것인가? 바로 하나님께서 연합한 자를 도우신다는 것이다. 돕는다-’에제르’는 있으면 좋고 없으면 그만인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홀로 있으면 쓰러질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을 붙잡아 세워주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도움과 같은 절대적인 도움을 말한다. 또한 신약성경에 나오는 성령(helper)의 다른 이름도 돕는 자(보혜사-helper) 이다.

이러한 의미를 부부관계와 연결시켜본다면, 남편이 여러 가지를 잘하더라도 아내의 도움이 있어야 부족한 것들이 온전케 될 수 있는 것이다. 여성이 남성보다 모자라는 조건 같은 존재가 아니라, 여성에게 주신 특별한 힘과 능력을 활용하여 남성을 도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성취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이제 ‘돕는 배필’의 뜻을 ‘하나님의 손길이 되어 남편을 온전케 하는 자’로 풀이해도 무방할 것이다. 그래서 그의 영혼과 삶이 하나님 앞에 바로 예배자로 설 수 있도록 돕는 것을 의미한다. 곧 성령님이 그를 도우시는 것처럼 중보하며 섬겨주

영혼 보는 눈과 마음 있어 영혼 깊이 사랑할 수 있어야 현숙해 ‘돕는 배필’ 여성은 남성 도와 하나님의 사명성취에 결정적 역할

죄를 지은 적도 없었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언제든지 교제할 수 있었다. 또한 동물들의 이름을 지어줄 수 있을 만큼 지각이 뛰어난 자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담에게 부족한 것이 있었다. 곧 돕는 배필이었다.

남편과 아내가 함께 만들어 가는 가정 안에서 여성의 핵심역할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돕는 배필’일 것이다.

돕는 배필의 의미

‘돕는 배필’이라는 말은 대다수의 여성들에게 씩 좋은 어감으로 들리지 않는다. 나 자신도 그 의미를 확실히 알기 전까지는 솔직히 기분 나빴다. 돕는 자라고 하니 뭐지 모르게 열등해서 주변 역할을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하루는 남편이 ‘돕는 배필’의 원어적 의미를 풀어주었다.

히브리어로 ‘돕는다’란 단어의 원어는 ‘ezer(에제르)’인데 구약에서 약 20회 사용되었다고 한다. 그것이 쓰인 용도는 다음과 같다.

‘하나님은 교와 과부를 돕는 자이시니라’, ‘

며 하나님의 원하시는 예배자로 살도록 돕는 것이라 볼 수 있다.

이렇게 ‘돕는 자’의 의미를 깨닫게 되면 남존여비(男尊女卑)의 문화 속에서 자라는 여성들도 남성에 대한 열등감이나 피해의식에서 해방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남성들이 인생이라는 영화에서 남자주인공이라면 여성들은 여자주인공이 되는 셈이기 때문이다. 이것을 깨닫고 난 다음에는 남편에게 종속된 삶이 아니라 남편과 내가 어우러져 한 폭의 멋진 영화나 연극 같은 삶을 연출해 낼 수 있다고 여겨졌다.

신혼의 시기에 갖는 호기심과 배려가 적어지면서부터 부부는 서로에 대한 기대와 환상 때문에 갈등도 겪게 마련이다. 그러나 수많은 갈등 속에서도 남편의 영혼을 바라보며 잘 도울 수 있는 여성은 정말 현숙한 여성일 것이다. 현숙한 여성이 되려면 영혼을 보는 눈과 마음이 있어야 하며 영혼을 깊이 사랑할 수 있는 여인이 되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이메일: familykum@gmail.com

매일가정예배

권영국 목사(LA대흥장로교회)

월 자만을 조심하라(막13:1-13)

5절에서 주님은 제자들을 향해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경고하십니다. 이 경고는 사도들도 얼마든지 미혹에 빠질 수 있음을 경계하신 것입니다. 아울러 이는 자만의 위험성을 또한 경계하신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경우에 미혹을 받게 되는 것이 자만에서 비롯되기 때문입니다. 성도들의 경우도 예외가 아닙니다. 먼저 믿는 자들이나 특별한 은사나 체험이 있는 자들, 특별히 기도를 많이 하거나 여러 가지 봉사를 하는 자들, 또 성격적 지식

이 많은 자들은 자만심을 경계해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선 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전10:12)고 경계했습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경우에도 자만하지 마십시오. 바울은 아주 특별한 은사가 있고 많은 일을 하면서도 자만에 빠질까 두려워 끊임없이 자기를 쳐 주께 복종시켰습니다. 언젠지 이미 이루어졌다는 생각을 버리고 사단의 뜻에 걸리는 일이 없도록 목표를 향해 달음질하는 자세로 살아가길 바랍니다.

화 기회를 잃지 말자(막13:14-23)

15절에 보면 주님은 지붕에 있는 자는 내려가지도 말고 집에 있는 무엇을 가져다 들어가지도 말라고 하셨습니다. 말하자면 집안의 물건들에 집착하지 말고 속히 도망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집안의 물건을 가지러왔다가 도망할 기회를 놓쳐 생명을 잃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는 기회를 놓쳐 멸망한 사람들이 나옵니다. 대표적으로 롯의 아내입니다. 소돔과 고모라에 멸망이 임박했을 때 주의 보내심을 받은 천사의 뜻에 “속히 도망하라”(창19:22)고 재촉했습니

다. 서둘러 도망하지 않으면 재산을 피하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모든 일에는 기회가 있기 마련이며 누구라도 이를 놓치면 곤경에 처하게 됩니다. 우리는 멸망이 임박한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면서 결국 불타 없어질 세속적인 것들에 연연하는 태도를 버려야 합니다. 누구든지 세속적인 것들에 집착하면 더 큰 것, 영원한 것을 잃게 됩니다. 세상 줄을 끊어야만 천국문이 보이는 것은 불변의 법칙입니다.

수 주님 맞을 준비 (막13:24-37)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 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니라”(33절). 우리가 재림의 시기를 정확히 알고 있다면 그때에 맞춰 재림을 준비해도 되겠지만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항상 영적으로 깨어 준비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주의 재림을 대비하는 최선의 자세는 영적으로 항상 깨어있는 것입니다. 전투 중인 병사들은 항상 전투복장을 갖추고 대기상태에 있습니다. 잠을 자도 옷을 벗지 않으며 쉬더라도 무장을 해제하지 않는데 그 이유는 언제 어디에서 적이 공격해올지 모르

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주께서 언제 오실는지 모르므로 준비를 갖추고 기다려야 합니다. 어느 날 어느 시에 그분이 오실지라도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도록 주 예수그리스도로 옷입어야 합니다.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리라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계16:15). 오늘날 주께서 오신다 해도 부끄러움 없이 주님을 맞을 수 있는 준비가 되었습니까?

목 하나님 눈치를 보라(막14:1-11)

2절에 보면 유대 종교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제거코자 하는 자신들의 계획을 유월절에는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민요가 일어날지도 모르는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여기서 그들의 주된 관심사가 하나님의 계획이나 뜻이 아니라 사람들의 반응이었음을 알게 됩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어떻게 보실 것인지에 대해서는 별관심이 없었고 사람들의 평가에만 온 신경을 곤두세웠던 것입니다. 이처럼 불의한 자들일수록 하나님의 뜻보다는 사람의 반응에 더 관심을 갖

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아닌 사람을 존재 기반으로 삼기 때문입니다. 성도와 교회는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뜻보다 사람이나 사회여론을 더 의식해서는 안됩니다. 우리가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은 오직 하나님의 뜻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마7:21). 하나님의 뜻에 더 깊은 관심을 가지기를 바랍니다.

금 지혜의 책(막14:12-26)

16절에 보면 보내심을 받은 두 제자가 성내로 들어가서 예수님의 하신 말씀대로 사람을 만나 유월절을 준비하는 사실이 나옵니다. 그들은 주의 말씀이 얼마나 정확하게 이루어지는지 새삼 깨닫고 놀랐을 것입니다. 거기엔 한치의 오차도 없었으며, 모든 일이 그대로 되어 참으로 기이하다는 생각들뿐이었을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교훈을 얻게 됩니다. 그것은 주의 때를 준비하는 지혜가 하나님의 말씀, 곧 성경 속에 들어있다는 사실입니다. 명하심을 받

은 두 제자가 주의 말씀을 좇아 유월절을 예비했듯이 우리가 성경을 열심히 들여다보면 그 속에서 주의 때를 준비하는 지혜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계1:3). 성경을 부지런히 읽고 듣는 자가 주의 때를 잘 준비할 수 있는 복을 누리게 됩니다. 늘 성경을 가까이하고 부지런히 읽으시기 바랍니다.

토 우리를 향하신 믿음(막14:27-31)

27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들이 모두 자기를 버리게 될 것이라고 예고하셨습니다. 제자들의 입장에서 민망하기도 하고 또 절대로 그럴 리가 없을 것이라고 부인하고도 싶었지만 이 말씀은 곧 사실대로 드러나게 됐습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사실은 주님은 인간의 이런 연약함을 잘 아시면서도 여전히 당신의 택한 자들을 신뢰하시고 일을 맡기신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은 베드로를 위시해 모든 제자가 자기를 버리고 달아날 것을 이미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

리나 그렇다고 해서 그들을 버리지 않았습니. 주님은 오히려 베드로를 향해 “내가 너를 위하여 네 마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네 형제를 굳게하라”(눅22:32)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우리가 넘어지고 또 시험에 들 줄을 알면서도 주님께는 늘 우리를 믿어주시고 기도를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자만하지 말고 오직 충성으로 맡은 사역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카리스 종합주석

NEW /원어 /배경 /주석 /강해 /One Stop Reading

카리스종합주석은 성경에 관한 모든 종류의 질문가 상호 긴밀한 연관하여 새롭게 통합 정리되어 있는 세계 최초의 저작입니다.

날권 \$30
전권 구입시 \$25 each

기독교인을 위한 최고의 선물

- 탁니엘 전자성경
- 만나 전자성경

2013년 달력

www.buycalendar.com 에서 더 많은 달력과 디자인을 확인하세요

미주판 국경일도 준비됨
교회비를 등 단체 이름 새겨드립니다

일반달력/기독교달력

공방도 가격세일

- 달력/수첩 주문제작 가능
- 교회 로고와 이름 인쇄 가능

HIS media 히스미디어에서 하는 일

교회를 건축하시거나 증축하실 때 미리 연락주시면 경비를 절감하실 수 있습니다.

최저의 가격으로 최대의 효과

멀티프로젝터 3000 ANSI LUMENS

- 2300 Ansi Lumens \$699
- 2600 Ansi Lumens \$799
- 3000 Ansi Lumens \$899

그 외 다수의 밝기 모델 취급함

E7 미가엘 반주기

뛰어난 휴대성! 획 바뀌고 달라진 기능!

- 선명하고 넓은 LCD화면
- 원음에 가까운 연주
- 본체 고음질 스피커
- USB 호스트 기능
- SD카드 사용
- 터치스크린 방식
- 장시간 연속재생

HIT상품 미주총판

미중동부 지사 획득! 특별세일!

헬라성구사
에하드수정장대상
LED LAMP를 설치한 빛나는 강대상 헬라문의 독특한 디자인

최저가격 보장
성구영계 최초 GD마크 획득!
한국디자인 인증으로 부터 Good Design 마크를 획득하였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 지정납품업체 선정
이동시 자유로운 바퀴(360도 회전) 중공(171磅당 1톤) 신축성 뛰어난 프레임 - 성교자 시력보호

성경, 찬송가 등 기독교의 모든 것

할렐루야백화점

HALLELUJAH BOOKS, Inc.

인터넷 샵몰 www.gospelmall.com

NY 40-21 159th Suite 1B Flushing NY 11358 Tel. (718) 762-0011/Fax. (718) 762-8402 1-800-404-1171

NJ 205 Bergen Turnpike Little Ferry, NJ 07643 201-373-0030

LA 621 S. Virgil Ave. Suite 200 L.A., CA 90005 213-925-5434

성경, 찬송가 기독교서적 일반서적 영문기독교서적 강대상, 까운, 달력, 다이어리

“반대자들을 위해 기도하고 축복하라!”

리더십저널, 리더십 대가 오브리 맥퍼스의 ‘리더를 반대하는 경우’ 해결방안 소개

리더가 되면 자신의 리더십에 반기를 드는 사람을 만나게 된다. 리더라면 무조건 쌍심지를 켜고 덤벼드는 사람도 있다. 물론 리더십에 반기를 드는 사람 가운데 타당한 이유를 가지고 있는 이들도 있을 수 있다. 리더가 리더로서 자질이 부족할지도 모른다. 아니면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아닌 엉뚱한 사명과 비전을 쫓아가고 있는 사람일 수도 있다.

아무튼 누군가 리더십에 반발한다면 우리는 가장 먼저 그 말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특별히 타당한 이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의 말은 더욱 진지하게

들어야 할 것이다. 그 과정을 통해 문제가 해결될 뿐만 아니라 자신의 리더십을 개선하고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만약 누구의 말을 들어야 할지 잘 모르겠다면 함께 사역하는 사람 중에서 리더에게 잘 협조하고, 또 리더가 잘못했을 때 용기 있게 말해 줄 수 있는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물론 정당한 이유없이 반기를 드는 사람들도 있다. 리더들은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를 배울 필요가 있다.

그렇다면 정당한 이유 없이 리더에게 반발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다루어야 할까?

먼저, 불평이나 비난을 늘어놓는 익명의 글(이메일과 편지)을 조심해야 한다.

지혜로운 리더들은 그런 글들은 아예 읽지도 말라고 말한다. 사람이 자신의 이름을 밝히지 않을 때는 대개 정서적으로 문제가 있거나 개인적인 감정이 있기 때문이다. 그런 사람의 말은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마음만 심란하게 만들 것이다.

둘째, 불평이 많은 사람들은 개



성경은 자신을 비난하는 사람을 비난하고 저주하기보다 오히려 축복하고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다. 결코 쉽지 않은 일이지만 이렇게 한다면 문제가 더 커지기보다 약화되고 사람을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며 리더십이 개발되어 갈 것이다.

모든 리더들은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이 모두 자신을 좋아해주고 지지해줄기를 바란다. 그러나 리더가 100% 지지를 받는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다. 리더에게 투덜거리고 불만을 말하는 사람들은 항상 존재하기 때문이다. 예수님에게도 이런 사람들이 있었는데 하

익명의 글 조심·불평자는 개인 면담 성경원칙대로·고자질하는 자는 멀리

인적으로 만나서 해결하라.

어떤 사람들은 계속 불평만 늘어놓으면서 교회나 공동체를 자기 마음대로 조정하려고 한다. 이런 경우 리더는 그 사람을 개인적으로 만나서 경고하거나 권면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불만을 늘어놓는 것을 멈추게 해야 한다.

셋째,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원칙대로 하라(마18:15-17).

성경에서는 리더십에 반기를 드는 사람들이 있으면 먼저 그를 찾

아가서 권면하라고 말씀하고 있다. 그래도 말을 듣지 않으면 몇 사람이 같이 가서 권면하고 그래도 말을 듣지 않으면 그 사람의 문제를 교회 리더십팀(당회)에게 넘겨야 한다. 그래도 그 사람이 말을 듣지 않을 때는 교회의 권위로 징계를 내릴 수 있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

넷째, 다른 사람들의 불만을 고자질하는 사람의 말을 듣지 말라. 리더에게 불만이 있는 사람은 대개 다른 사람들이 리더에게 불만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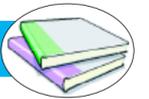
있는 것처럼 말한다. 이것은 자신은 뒤로 숨어서 자신의 주장이 정당하다는 것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다. 그러니 제3자와 얘기하지 말고 당사자와 직접 말해야 한다.

다섯째, 리더를 반대하는 자들을 위해 기도하고 축복하라.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마5:44).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롬12:14)

물며 우리에게는 오죽할까?

어떤 리더에게나 반기를 드는 사람들은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대할지를 잘 준비하여 대처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리더에게 반대하는 사람들이 나오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에 적절한 대처를 할 수 있도록 미리미리 준비하는 지혜가 필요할 것이다. 그것이 바로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공동체를 더욱 건강하게 만들어가는 또 하나의 방법이

새 책 소개



“리더십은 이렇게” “양육은 이렇게” “사회선교는 이렇게”

배현찬 목사의 공동체 시리즈 3권



배현찬 목사(버지니아, 주예수교회 담임)의 공동체 시리즈 3권이 최근 출간됐다.

“리더십은 이렇게”, “양육은 이렇게”, “사회선교는 이렇게” 제목의 이 책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 안에서 꾸준한 성장을 보인 주예수교회를 목회하면서 탁월한 리더십 훈련과 철저한 제자양육, 그리고 사랑과 정의로 지역사회 선교를 해오면서 담아낸 목회이야기들이다.

새로운 교회로 탈바꿈하는 혁신적인 교회 몸부림의 산물이라고 평했다.

두 번째 책 함께 자라는 공동체-“양육은 이렇게”는 로마서를 강해하며 교인들과 성경공부한 자료를 그대로 엮은 현장감 넘치는 소그룹 성경공부 교재이다. 김성봉 목사(인양대학교 신학대학원장)는 “탁월한 본문해석과 강해를 바탕으로 삶의 방향을 제시해주는 신앙훈련과 성장을

느헤미야 강해, 로마서 적용, 디아스포라 한인교회의 사회봉사

저자는 발간사에서 “디아스포라의 삶의 애환이 묻어있는 신학적 결단과 시대상황적 소명이 함께 어우러진 공동체 사명의 결정체”인 이 책들이 “적박한 목회 환경에서 분투하는 이민목회자들, 전세계 디아스포라 사역현장에서 사역하는 선교사들, 그리고 새로운 문화적 도전 앞에 맞서야 하는 한국교회의 목회자들과 평신도 지도자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첫 번째 책 함께 세우는 공동체-“리더십은 이렇게”는 느헤미야 강해를 통해 배우는 성경적 리더십의 모델을 쉽고 명쾌하게 풀어냈다. 동역자 정인수 목사(아들란타연합장로교회 담임)는 “놀라운 성서적 통찰력으로 쓴 전통교회의 허물을 벗고

위한 교제”라고 칭찬했다.

세 번째 책 함께 섬기는 공동체-“사회선교는 이렇게”는 주예수교회의 사회선교사역의 DNA를 생생하게 분석함으로써 사역 현장과의 조화를 이뤄냈다. 이 책에 대해 김세광 교수(서울장신대학교 신학대학원장)는 “이민교회 사회적 공헌에 대한 성서적 원리와 실제를 다룬 교과서”라며 미국사회 뿐 아니라 전 세계 디아스포라 한인교회의 “목회적 로드맵으로 활용해도 무방하다”고 평했다.

각각 387페이지, 407페이지, 367페이지, 콤팩트판사 발행. 각 서점에서 구입할 수 있다.

▲연락처: (804)560-7500, 7509

(유원정 기자)

터 키

(13면에서 계속)

제 뱃속이 굉장길 바라면서... ^^이곳에서 자매들과 교제하는데 지혜가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한국을 좋아하는 마음에 한국 사람이면 모두 따라 다니는데 이런 자매들을 향해 이곳에 들어온 이단 단체에서도 손을 뻗어서 모르고들 겁니다. 이 자매들을 아버지께서 보호해 주시길 두 손 모읍니다.

때로 이런 모든 것들이 집되어 무거울 때가 많아요. 전하고 싶어서 말하면 벽에 대고 한 것 같은 상황에 좌절되고, 마음껏 할 수도 없는 상

황에 한숨지고... 그래도 여러분이 함께 두 손 모으심에 힘입어 일어나자! 아자! 아자! 나 혼자 외쳐 봅니다.

특히 “Ankara Worship Center”를 위해 두 손 모아주셔서. 선생님들과 함께 이곳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아버지께 예배하는 곳이 되길 바라봅니다. 이곳에 있는 선생님자녀들에게 한글학교가 열리는 데 제게 미술을 부탁해서 MK를 섬기게 되었습니다. 자매들과도 계속된 교제가 필요하므로 격주로 섬기게 되었지요. 지치지 않고 자매들과 MK들을 잘 섬길 수 있게 되길 원합니다. 가을이라 그런지 모든 분들이 많이 보고 싶네요.



두 손 모음 제목 드립니다.

1: 터키에 경제와 생활의 어려움에 곤고한 이들이 쿠르반의 참 주인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믿게 되고 아버지의 사랑을 만날 수 있도록
2: 사역자들을 조여 오는 비자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고 언어에 진보가 있도록 지혜와 총명 주시고 늘

건강과 성령충만하도록

3: 만나는 사람들 중에 준비된 영혼을 민감하게 알아볼 수 있게 성령이 민감한 사람 되도록(파키제, 잔술, 세이마, 아휘페, 불주, 바삭, 대니즈, 제이넴, 오즈눌, 감재, 뷰슈르, 부켓, 다리예, 이팩, 엘룰, 멜베, 슈메레, 미네, 아이부케, 큐뷰라, 후리아

진술, 세나) 이 학생들이 복된 소식을 받을 수 있도록, 언어선생님인 ‘아이단’과 좋은 교제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4: KO사역을 통해 만난 25명 젊은이들을 아버지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주의 일군을 발견하고 잘 돌볼 수 있고 앙카라 월실 센터(AWC)가 이 젊은이들이 복음의 일군으로 인도될 수 있도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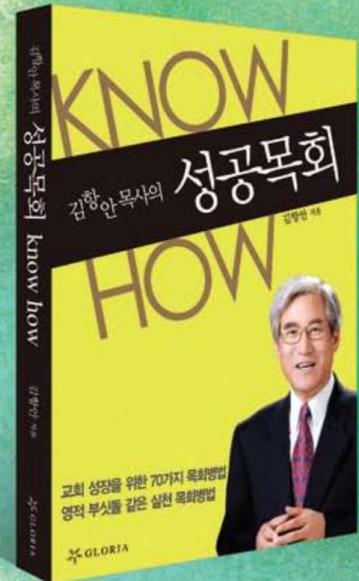
5: 에스터와 다니엘(사위) 믿음의 가정을 세우고 사랑스럽고 지혜로운 아기도 주시고 사무엘(아

들)믿음과 학업을 잘 마치고 지혜롭고 믿음 있는 배우자를 만날 수 있도록

계절이 허수상한 이때에 주님오시길 기다리시는 믿음의 군사들에게 강권하시고 평안하시길 두손 모읍니다. Co~K! seviyorum(무진장 사랑해요)

주님이 사랑하는 제자 debie(김드보라) 드림
이메일:deborahck7@hanmail.ne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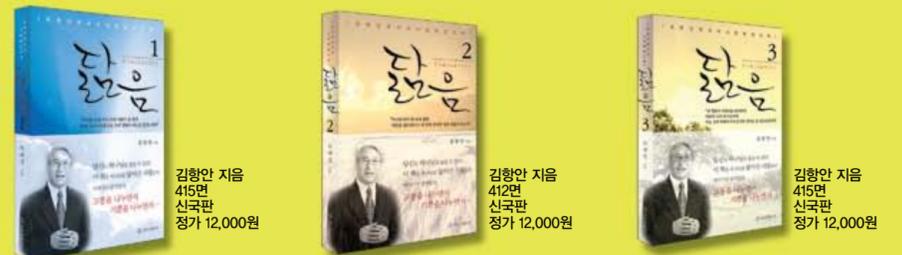
김항안 목사가 전하는 실천목회의 새로운 패러다임 성공 목회가 되게 하는 70가지의 목회방법



김항안 지음
384쪽
신국판
정가 12,000원

28년 동안 한국교회정보센터(www.kcdc.net)를 통해 한국교회에 소개된 영적 부식들과 같은 실천목회의 Know How와 Know Where가 담긴 목회방법!!!

김항안 목사가 시편 150편을 새롭게 조명한 기독교 영성 안에서 한국기독교총연합회 출판부분 우수도서 선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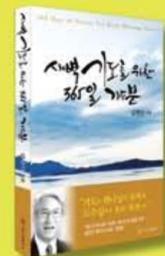
김항안 지음
415면
신국판
정가 12,000원

김항안 지음
412면
신국판
정가 12,000원

김항안 지음
415면
신국판
정가 12,000원

시편 150편에 담긴 기독교영성의 맥을 성경에 나오는 인물과 대버서켜 영성의 맥을 알게 해 주는 영성회복의 내비게이션!!!

김항안 목사가 새한국중앙교회에서 행한 일 년 365일 새벽기도문 대표기도문



김항안 지음
390면
신국판
정가 12,000원



김항안 목사
철학 박사, 선교학 박사

목포 교육대학, 가톨릭대학, 중앙대학교 대학원 장로회 신학대학원, 미국 트리니티 신학대학원, 뮌헨 대학, 베를린 신학대학에서 수학했다. 강남 대학, 총회 신학, 서울 신학대 동대학원 강사, 아세아 신학대학원 교수, 한국교회정보센터 대표, 콜로라도 선교의 대표, 새한국중앙교회 담임목사를 역임하였다.

저서로는 「기독교 윤리의 원천」, 「절기 예배의 이론과 실제」, 「감동적인 고난주간을 위하여」, 「복음적인 설교와 교회성장」, 「목회자의 영적능력 과 교회성장」, 「목회자의 영적은사와 교회성장」, 「대표기도문」, 「감사하는 영혼의 양식 헌금기도」, 「일만 번 주기도 하라」, 「아이를 스스로 변화하게 만드는 크리스천 사랑교육법」, 「담음」, 「1997-2012 복음적인 예배와 설교를 위하여」, 「새벽기도를 위한 365일 기도문」 외 다수의 저서가 있다.

기도는 자기의 무능을 환골이하는 “성토대회”가 아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하늘 능력이 임한다. 그래서 기도는 특권이다.